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2월호 통권 제14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업종별 주가변화 분석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의 특징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2월호 통권 제14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I. 경제동향	6
II. 산업·고용동향	30
III. 해외경제 동향	64
경제·산업현안	85
I.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업종별 주가변화 분석	86
II.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94
III.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102
IV.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	109
경제·산업이슈	115
I.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의 특징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116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경제·산업동향

I. 경제동향	6
1. 생산	6
2. 소비	9
3. 투자	13
4. 대외거래	18
5. 소비자물가	20
6. 금융시장	23
II. 산업·고용동향	30
1. 제조업	30
2. 서비스업	43
3. 에너지 및 원자재	48
4. 고용	52
5. 인구	58
6. 부동산	61
III. 해외경제 동향	64
1. 미국	64
2. 중국	69
3. 유로지역	71
4. 일본	74
5. 인도	77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79
[주요 경제정책 동향]	82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Q	2Q	3Q	4Q	11월	12월	1월
전산업생산	0.6	-0.8	1.6 (-1.2)	-3.4 (-3.5)	-0.5 (2.6)	-1.1 (2.0)	-0.5 (0.8)	-0.3 (0.5)	-
광공업생산	-0.1	0.4	5.1 (0.1)	-5.1 (-7.1)	1.0 (5.7)	0.6 (3.7)	0.5 (0.3)	3.4 (3.7)	-
서비스업생산	1.4	-2.0	-1.1 (-3.0)	-3.4 (-1.5)	-1.7 (1.9)	-2.0 (1.2)	-1.4 (0.7)	-2.2 (-1.1)	-
소매판매액	2.4	-0.2	-2.9 (-6.4)	1.9 (6.5)	1.8 (-0.7)	-1.3 (0.5)	-1.5 (-0.9)	-2.0 (0.2)	-
설비투자지수	-6.2	6.0	7.0 (-3.0)	6.3 (5.6)	7.8 (-0.2)	3.5 (2.8)	5.4 (3.5)	5.3 (0.9)	-
건설기성액	-6.9	-2.3	0.3 (4.1)	-4.1 (-4.6)	-2.1 (-4.2)	-3.0 (3.6)	1.7 (4.5)	-2.5 (-0.9)	-
수출(통관)	-10.4	-5.4	-1.9	-20.3	-3.4	4.2	4.1	12.6	11.4
수입(통관)	-6.0	-7.1	-1.9	-15.8	-8.7	-1.7	-1.9	2.2	3.1
경상수지 (억달러)	600	753	129	61	240	322	92	115	-
실업률	3.8	4.0	4.2	4.4	3.6	3.7	3.4	4.1	5.7
취업자수 (천명)	301	-218	288	-407	-314	-441	-273	-628	-982
소비자물가	0.4	0.5	1.2	-0.1	0.6	0.4	0.6	0.5	0.6
원/달러환율	1,166	1180	1,195	1,220	1,188	1,116	1,115	1,095	1,099
국고채금리 (3년)	1.53	0.99	1.23	0.92	0.85	0.95	0.97	0.97	0.98

주: 1. ()안과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감정원

경제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

■ 수출은 IT부문 호조와 선진국 수요회복 등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20년 12월 12.6%, '21년 1월 11.4%)

- 수출 호조품목 위주로 생산과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중 제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각각 전월대비 3.7%, 0.9% 증가

■ 그러나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업황 부진이 심화되는 등 체감경기는 상당히 부진

- 올 1월 중 전체 취업자수는 1998년 외환위기 기간 중 월 평균 100만명을 상회하는 고용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대 감소폭인 전년동월대비 98.2만명 감소(전월 -62.8만명)
- 특히 대면서비스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포함)의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20.11월)-48.2→(12월)-68.6→('21.1월)-74.1
- 고용여건의 악화는 민간의 소비여력 약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하락이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0.6%의 낮은 상승률을 시현

■ 농축수산물 물가(10.0%)는 작황부진과 AI 영향으로 과실류와 축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 공업제품 물가(-0.6%)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상승 으로 하락폭은 축소되는 모습

■ 서비스물가(0.4%)는 집세와 개인서비스에서 상승하였으나, 무상교육 등 공공서비스 하락세가 지속되며 낮은 상승률을 유지

2021년 1월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인 국고채금리와 주가가 전월보다 상승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에서 상승 반전

■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미국금리 상승, 주요국(미국과 영국) 백신접종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전월보다 0.01%p 상승한 0.98%를 나타냄

■ 주가(KOSPI)는 개인투자자금의 유입, 신용잔고 증가, 한국은행 최저 기준금리 유지 등으로 전월말(2,873)대비 3.6% 상승한 2,976을 기록

■ 원/달러 환율은 미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기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8개월간 지속된 하락세에서 상승 반전(월평균 1,099원)

I.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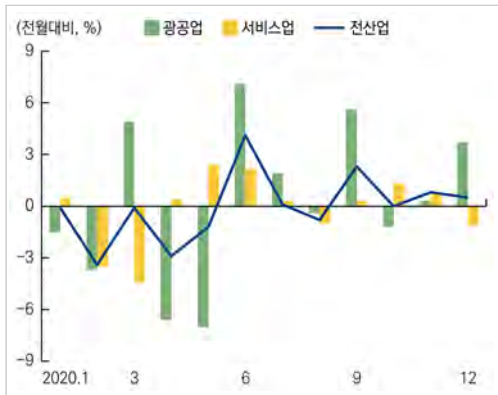
1. 생산

12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줄었으나 광공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증가

■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1.1%) 등에서 줄었으나 광공업(3.7%)이 늘면서 전월대비 0.5% 증가(전년동월대비 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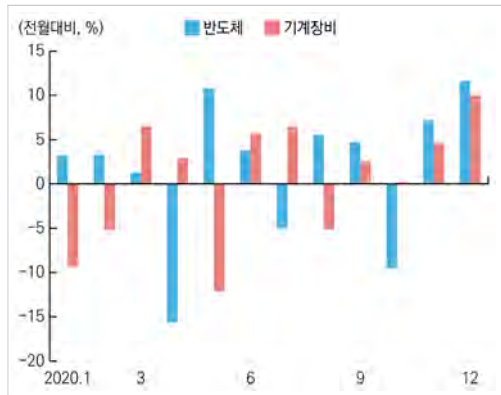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1.6%)와 기계장비(10.0%)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3.7% 증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27.3%)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그림 1]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반도체, 기계장비 제조업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서 재고율은 하락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0.6%p 상승한 74.5%를 기록했으나 전년동월(75.1%) 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2010년 이후 제조업 평균가동률 평균은 75.6%)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10월)73.8→(11월)73.9→(12월)74.5

■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10.1%), 전기(5.6%) 등에서 늘어 전월에 비해 1.3%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담배(-18.0%), 기타제품(-12.5%)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

-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출하가 늘고 재고가 줄어 전월(107.6%)에 비해 낮은 106.0%를 기록
- 재고/출하 비율(%): ('20.10월)109.2→(11월)107.6→(12월)1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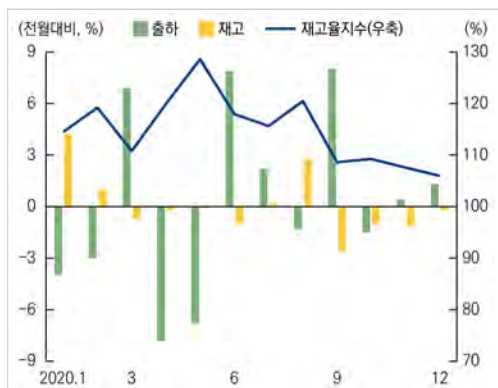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지수)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그림 3]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4] 제조업 출하 및 재고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가 증가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와 비농림어업취업자수가 감소하여 전월(98.9)과 동일한 98.9를 기록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102.5)에 비해 0.5p 상승한 103.0으로 나타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괴리가 발생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 상승과 경제심리지수 증가세 지속 등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 상승
- 반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구성지표 항목 중 소비(소매판매액)와 고용(비농가취업자수) 부진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

[그림 5]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BOX1〉 2020년 산업생산의 특징

■ 2020년 연간 전산업생산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으로 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8% 감소

-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이 늘었으나 서비스업 등에서 줄어 0.8% 감소
 -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이 큰 가운데 숙박·음식점(-18.5), 운수·창고업(-14.2%) 도·소매업(-2.5%) 등에서 줄어 전년대비 2.0% 감소
- ※서비스업생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광공업은 자동차및트레일러(-10.2%)와 의복(-21.1%)에서 줄었으나 반도체(23.9%), 기계장비(5.5%) 등에서 늘어 전년대비 0.4% 증가

〈연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주요 업종 2020년 생산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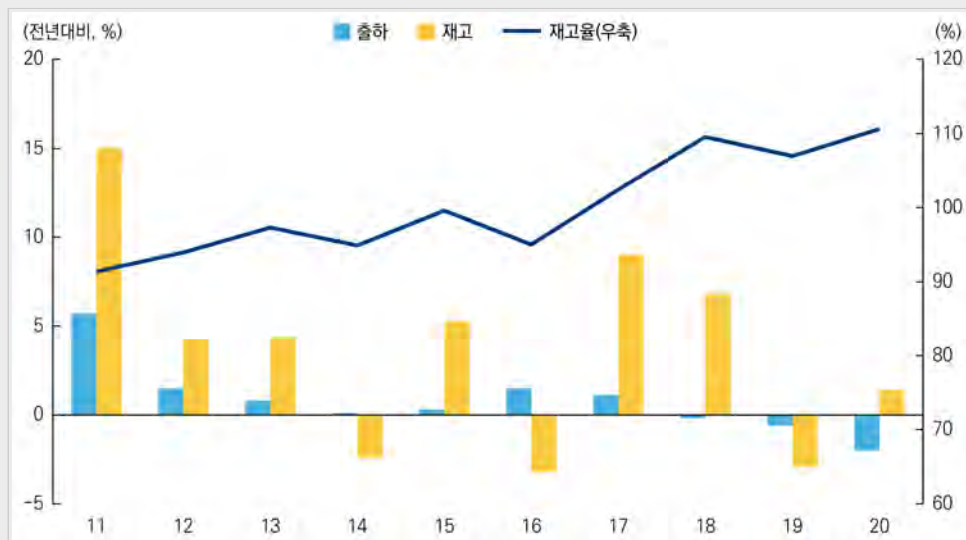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출하는 전년대비 줄고 재고가 늘어 재고율도 상승

-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28.9%), 식료품(0.6%)에서 늘었으나 의복(-14.3%)과 자동차및트레일러(-9.7%)에서 줄어 2.0% 감소
- 재고는 식료품(7.6%), 전기장비(11.3%) 등에서 늘어 1.4% 증가
- 재고율은 110.6%로 전년(106.9%)에 비해 상승

〈제조업 출하·재고 및 재고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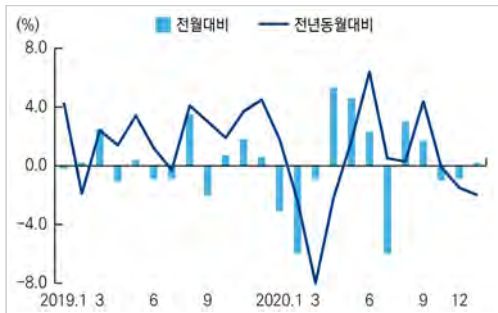
2. 소비

소매판매는 12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외부활동 축소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가정식 수요가 늘면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증가로 소폭 증가 전환

■ 12월 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대비 0.2%를 기록하여 전월(-0.9%) 감소에서 증가 전환

- 전년동월대비로는 -2.0%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

[그림 6]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12월 중 준내구재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¹⁾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 등으로 의복(-11.8%), 신발 및 가방 등의 판매(-5.6%)가 줄면서 전월대비 6.7% 감소

- 준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10월)7.1→(11월)-6.9→(12월)-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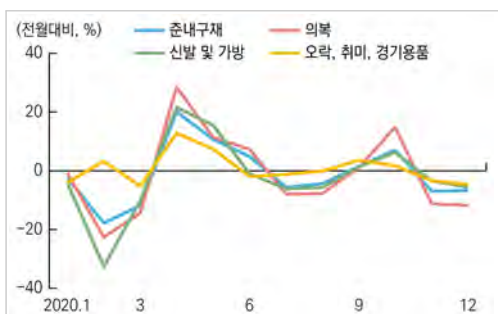
- 12월 중 비내구재 판매는 화장품, 차량연료 등의 판매가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정내 음식료품 판매가 전월대비 11.2% 늘어난 데 기인하여 증가폭 확대

- 비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10월)-5.8→(11월)1.3→(12월)3.9

- 내구재판매는 신차출시 효과지속, 업계 연말 마케팅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부분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과 개별소비세 30%인하 6개월 연장²⁾에 따른 선구매수요 축소 등으로 승용차 판매(-9.0%)가 줄면서 전월대비 1.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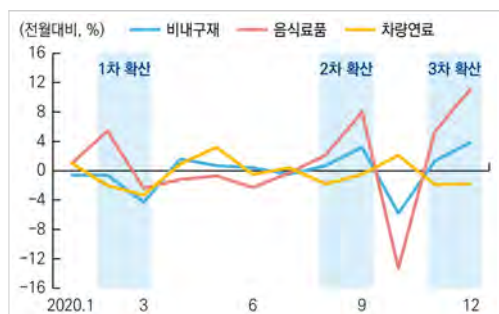
- 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10월)2.0→(11월)-0.3→(12월)-1.7

[그림 8] 준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9] 비내구재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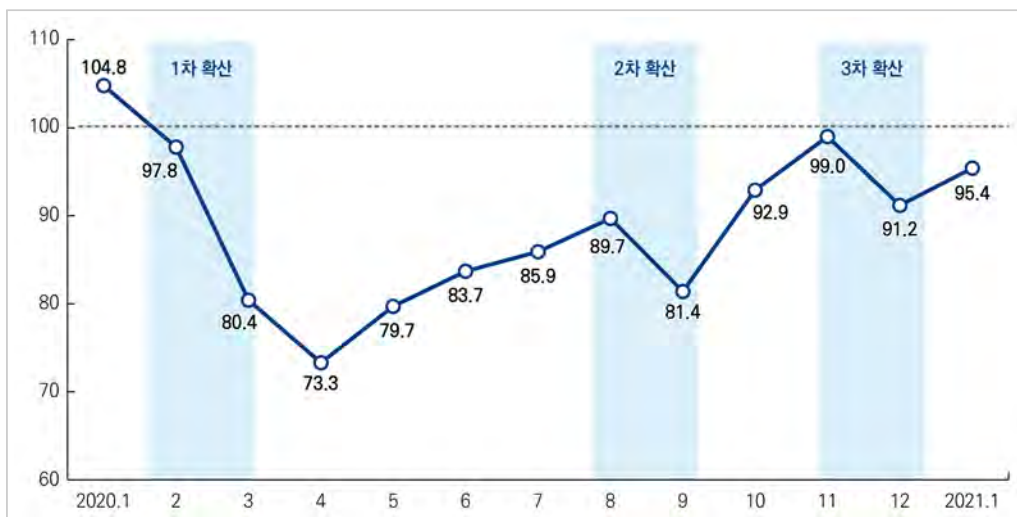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 정부는 11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함. 12월 6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을 2.5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2) 정부는 2020년 3월~6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였고, 7~12월 중에는 30%로 인하폭을 축소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

■ 2021년 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백신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월보다 4.2p 상승

- 구성지수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6개월 뒤 경기전망과 취업전망이 각각 8p, 6p 상승하였으며, 6개월 뒤 생활형편 전망도 3p 상승
- 향후경기전망CSI: ('20.10월)83→(11월)91→(12월)81→('21.1월)89
- 취업기회전망CSI: ('20.10월)75→(11월)71→(12월)74→('21.1월)80
- 생활형편전망CSI: ('20.10월)91→(11월)94→(12월)89→('21.1월)93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BOX2〉 2020년 소매판매의 특징

■ 2020년 연간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처음으로 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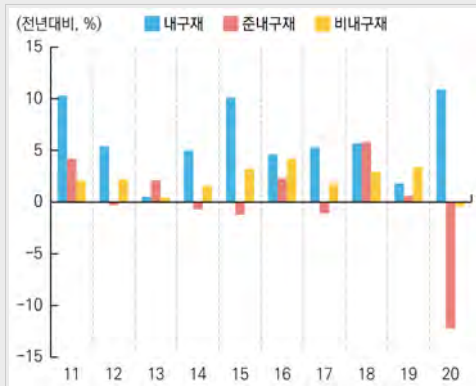
- 비내구재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준내구재는 의복, 신발 및 가방을 중심으로 감소
 - 비내구재 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수요증가로 음식료품 판매가 4.7%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면세점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18.6%)하면서 전년대비 -0.4% 기록

- 준내구재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로 의복(-16.4%), 신발 및 가방(-23.8%) 판매가 큰 폭으로 줄면서 12.2% 감소
- 반면,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판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10.9% 증가
 - 승용차는 생산차질이 조기에 안정화³⁾된 가운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업계의 내수공급 확대 조치⁴⁾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5.4% 증가
 -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컴퓨터 판매가 17.4% 증가하였으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구교체 수요가 증가(23.4%)

■ **업체별로는 면세점, 백화점, 전문소매점 등 오프라인 업체들의 소매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판매 호조로 무점포 소매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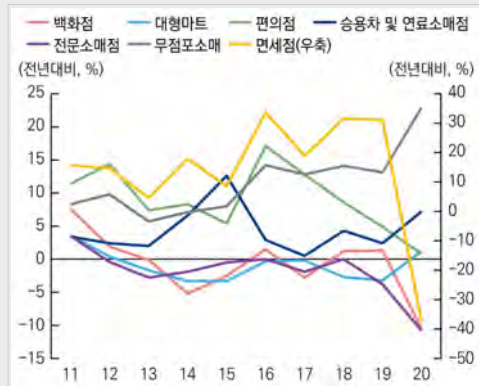
-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면세점 소매판매 증가율은 -37.5%로 급감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자제 및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백화점과 전문소매점은 각각 10.6%, 10.8% 감소
- 다만, 오프라인 업체 중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대형마트는 판매가 증가
 - 2020년 중 승용차 판매 호조로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의 판매가 7.2% 증가
 - 대형마트는 외출자제 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가정식 수요증가에 따른 음식료품 판매가 증가(3.7%)하면서 1.2%증가
- 반면, 온라인 및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따라 무점포 소매점의 판매는 전년대비 22.9% 증가

〈연간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연간 소매업체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3) 해외 주요업체들은 3~6월 동안 가동중단이 계속되며 부품공급 차질이 장기화되었으나, 국내는 부품공급 차질(와이어링 하네스 등)에 따른 공장가동 중단이 2월 5~15일 정도에 불과(한국자동차산업협회)

4) 2019년 전체판매 중 내수비중은 39%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내수로 물량을 확대전환하면서 49%까지 증가(한국자동차산업협회)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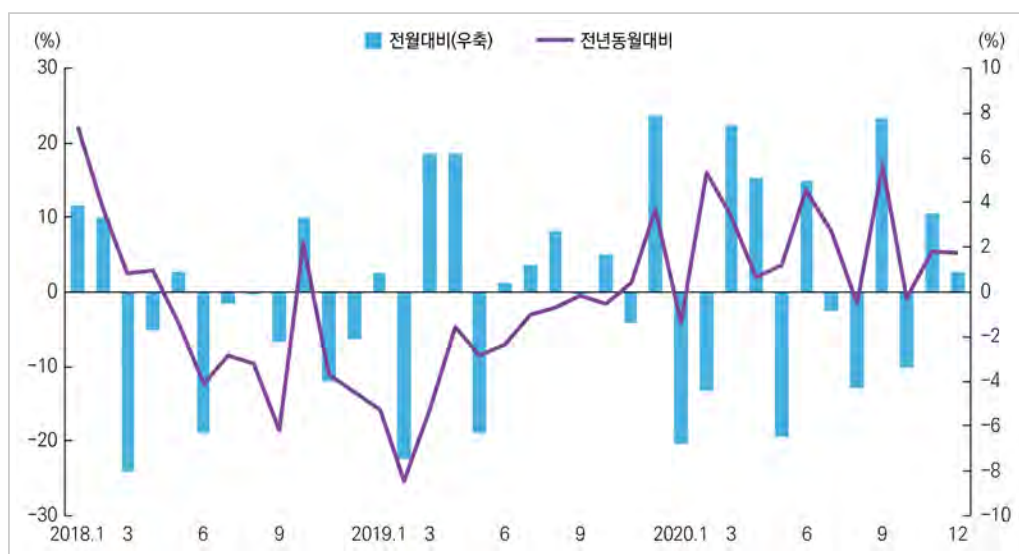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류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기계류에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2월 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전월(-4.8%)의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3.4%)하였으나, 기계류에서 전월(6.5%)보다 증가폭이 크게 하락(0.2%)한 영향으로 전월대비 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류(-13.8%)가 전월(-10.8%)보다 감소폭이 확대되고 기계류(13.7%)는 전월(13.1%)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하며 5.3% 증가

[그림 11] 설비투자자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일반기계류(2.8%)에서 전월(10.6%)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전기 및 전자기기(-6.5%)는 감소로 전환함에 따라 전월대비 0.2% 증가하여 전월(6.5%)보다 증가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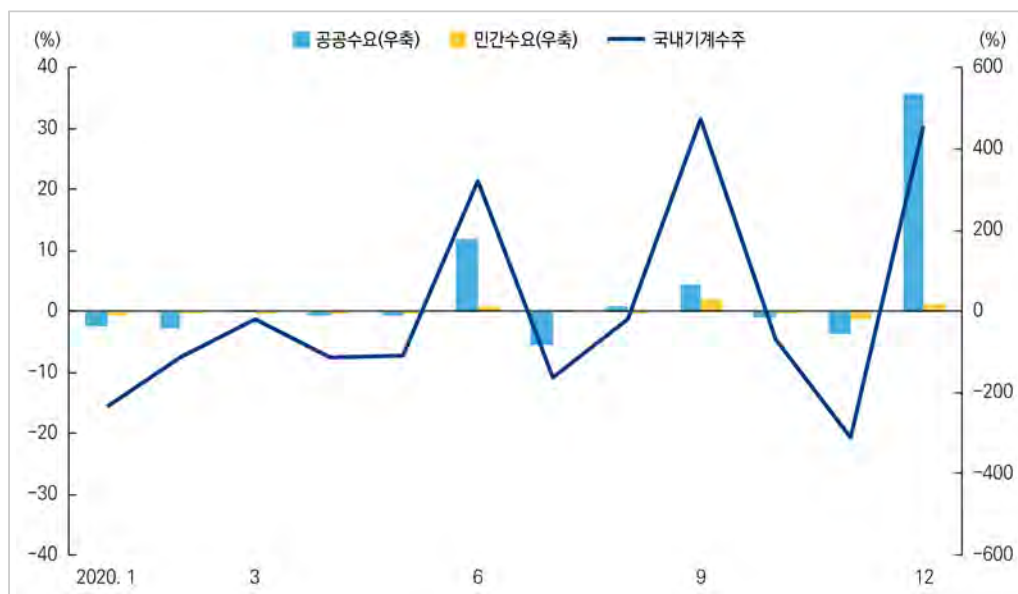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10.3%)에서 전월(1.2%)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33.0%)에서 전월(-15.5%)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대비 3.4% 증가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기계류 내수출하
지수와 기계류 수입액 모두 증가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535.9%)과 민간(17.1%)부문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월(-20.6%)의
감소에서 벗어나 30.5% 증가 전환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4.1%)에 이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10.9% 증가

[그림 12]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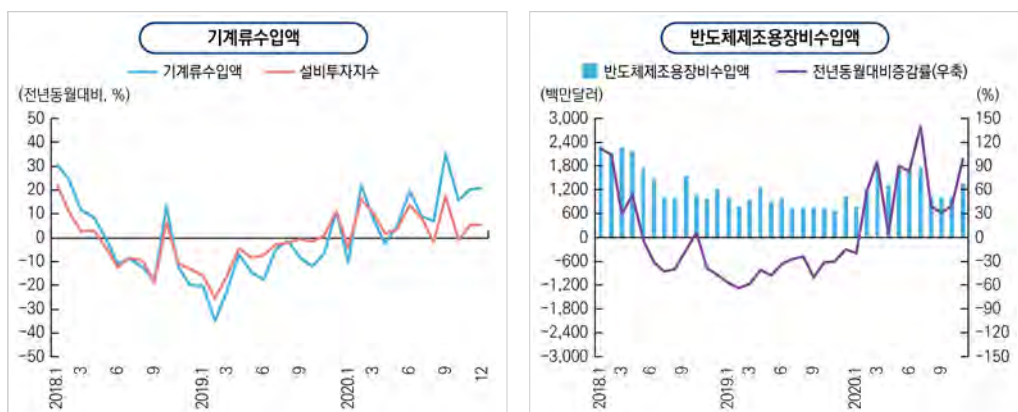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기계류수입액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 12월 중 기계류수입액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440.8%), 반도체제조용장비(113.8%) 등에서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0.8% 증가
- 12월 중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제외한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며 전월(8.8%)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

■ 2021년 1월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속보치)은 전년동월대비 33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
어 2021년에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13] 기계류수입액 및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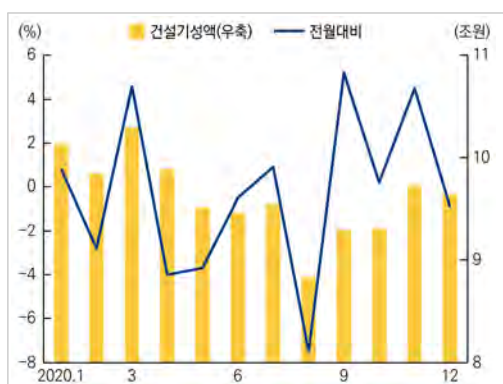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감소

- 12월 중 건설기성액(불변, 계절조정)은 토목(6.2%)이 늘었으나, 건축(3.6%)이 줄어 전체적으로 0.9% 감소(전년동기대비 2.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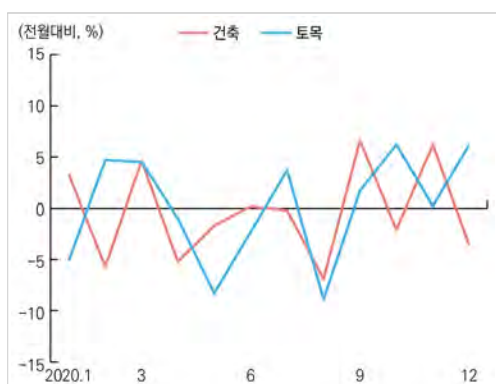
- 발주자별(경상, 계절조정)로는 공공부문(5.6%)이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1.3%)에서 감소

[그림 14] 건설기성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5] 부문별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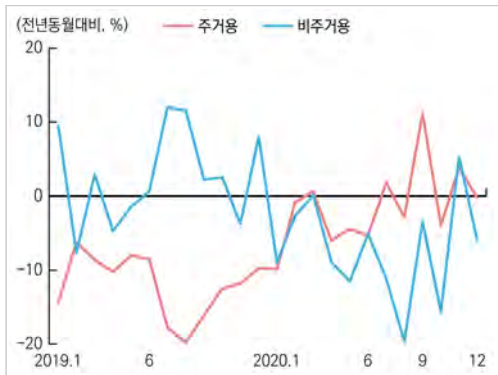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0.3%)과 비주거용(-6.0%)이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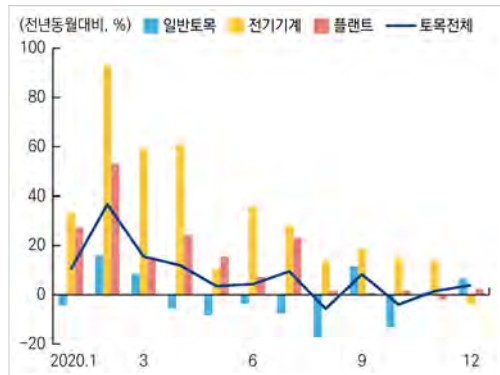
- 토목부문은 전기기계(-3.9%)에서 줄었으나, 일반토목(6.5%), 플랜트(2.3%) 등에서 늘면서 3.9% 증가

[그림 16] 건축부문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7] 토목부문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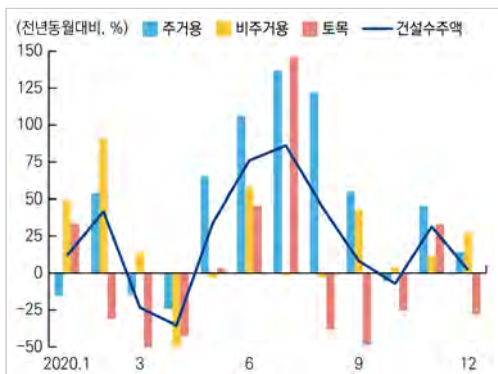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 지속

■ 12월 중 건설수주액(경상)은 건축(17.6%)이 늘었으나 토목(-27.9%)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세부 공종별로는 주거용 건축(14.2%)과 비주거용 건축(27.9%)이 모두 증가
- 토목부문은 철도및궤도(171.4%), 토지조성(8.9%) 등에서 늘었으나 도로및교량(-55.7%), 기계설치(-50.5%) 등에서 줄어 27.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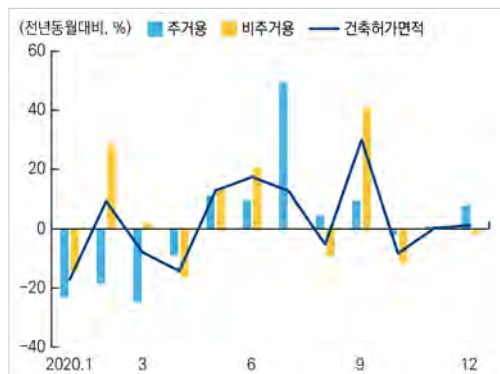
■ 12월 건축허가면적은 비주거용(-1.7%)이 감소하였으나 주거용(7.9%)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그림 18] 공종별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9] 건축허가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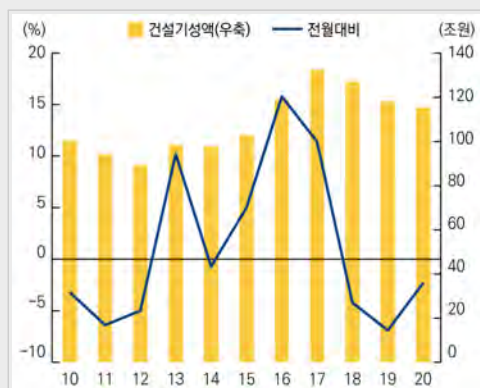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BOX3〉 2020년 건설기성의 특징

■ 2020년 연간 실질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2018년부터 3년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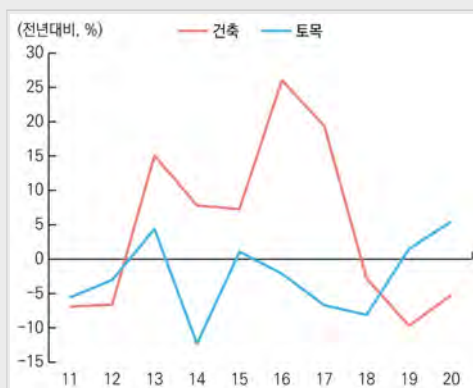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토목이 5.5%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에서 5.2% 감소
- 2020년 건설기성 감소는 토목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로 인해 건축부문의 건설공사가 줄어든 데 기인
 - 토목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증가
 - 건축부문의 감소는 주거용 부진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용·상업용 건축 감소와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인해 공사 실적이 줄어든 데 기인

〈연간 실질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통계청

〈부문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4. 대외거래

가. 수출

수출은 IT부문의 수출 호조와 선진국으로의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총수출과 일평균수출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개선세

■ 2021년 1월 수출(480.1억 달러)은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하여 전월(12.6%)에 이어 2개월 연속 두자리수의 증가율

- 1월 중 수출증가는 전년에 비해 조업일수가 1일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하나,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액(21.3억달러)도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오름세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1% 늘면서 2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저유가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IT 소재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며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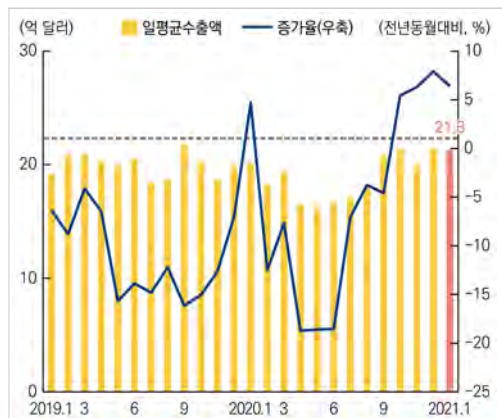
■ 무역수지는 39.6억달러로 9개월 연속 흑자 유지

[그림 20]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1]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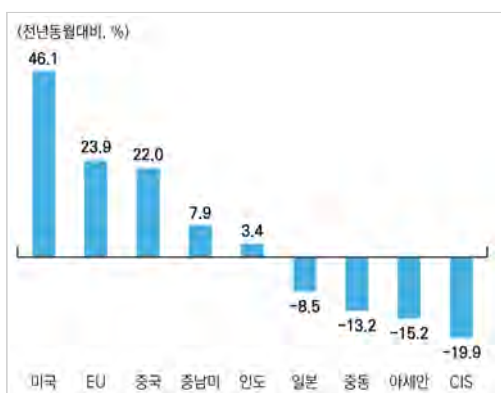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 피해가 재확산된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부문을 중심으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46.1% 증가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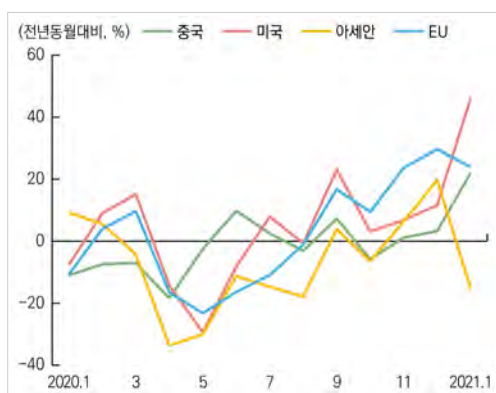
- 대EU 수출은 국내산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바이오헬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친환경차 판매 증가에 힘입은 자동차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컴퓨터 등이 호조세를 보임
- 대중국 수출은 현물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요확대에 힘입은 무선통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 반면, 중남미(7.9%), 인도(3.4%)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중동(-1.2%), 아세안(-15.2%), CIS(-19.9%) 수출은 감소 전환

[그림 22] 2021년 1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3]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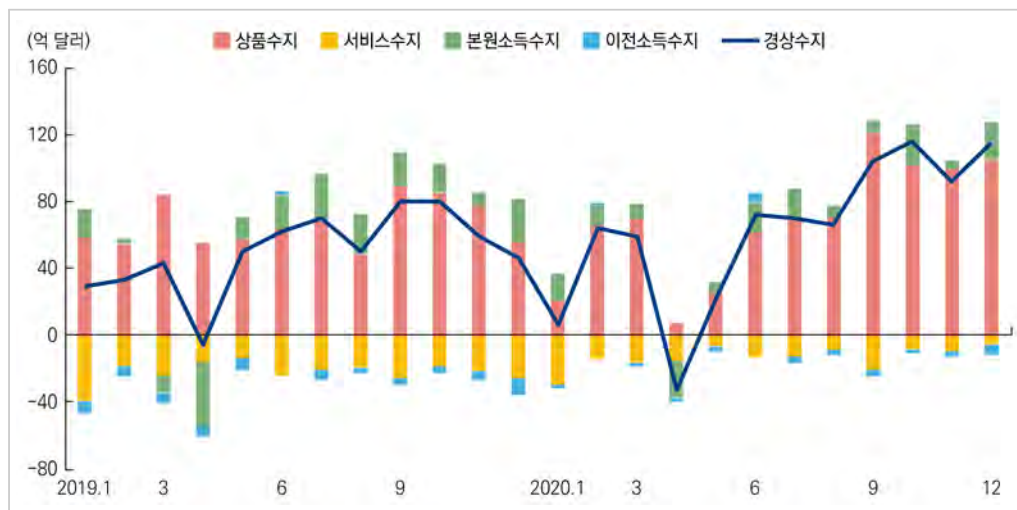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안정적 흑자규모 유지, 서비스수지의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흑자폭이 확대

- 12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46.4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115.1억 달러를 기록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10.3% 증가하고 수입이 0.1%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56.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105.0억 달러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의 흑자전환 및 여행수지의 적자폭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26.0억 달러)에 비해 적자폭(5.3억 달러)이 축소
- 본원소득수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25.6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든 21.9억 달러 흑자

[그림 24] 항목별 경상수지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2020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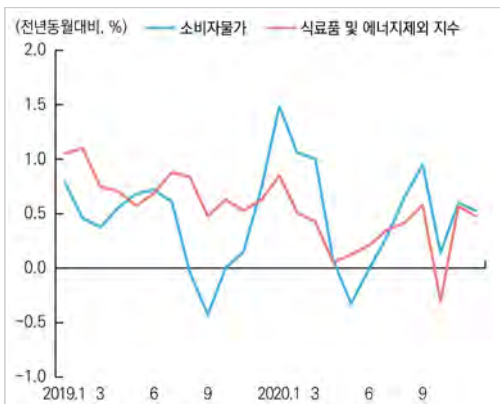
- 2020년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은 전년(596.8억 달러)보다 26.1% 증가한 752.8억 달러 기록
- 2020년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156억 달러)에는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전년대비 106.6억 달러 축소)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수지 개선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이 감소하여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62.4억 달러 줄어든 데 기인
 - 2020년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798.1억 달러)보다 21.4억 달러 늘어난 819.5억 달러를 기록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이 내림세를 지속하고 서비스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0.6% 상승

- 2021년 1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6%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0%대 물가 지속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는 전년동월대비 0.4%를 기록

[그림 2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6]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0% 상승하여 전월(9.7%) 보다 상승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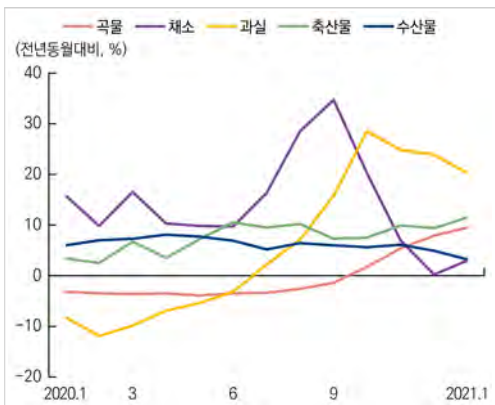
- 생산량 증가에 따른 채소류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과일류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I의 영향으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축산물 가격이 상승
- 과일류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봄철 저온, 여름철 장마, 가을철 태풍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2% 상승
- 1월 닭고기와 달걀 가격은 각각 7.5%와 15.2% 상승하며 축산물 가격은 11.5% 상승
-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월 0.75%p에서 2021년 1월 0.79%p로 상승

[표 1] 2020년 과일 재배면적(단위: ha)

	사과	배	감	귤
평년	33,163	10,789	9,565	15,505
2020년	31,601	9,091	8,404	14,644
2021년 1월 가격상승률	45.5%	36.8%	17.3%	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그림 27]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서비스물가는 전월세 등 집세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공공서비스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같은 0.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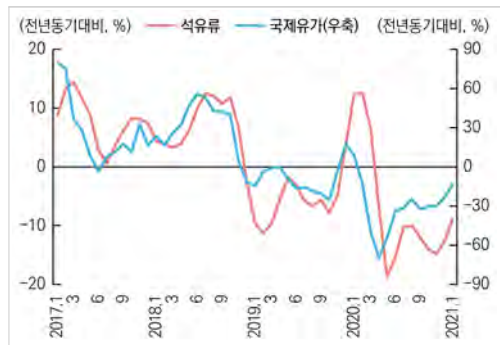
- 전월세 등 집세 물가는 1월 0.7%를 기록하여 2019년 10월(-0.2%)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 1월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른 외식수요 증대 등으로 외식물가가 1.1% 상승하고, 외식제의 소비재물가도 1.8% 상승하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월(1.3%)에 비해 상승세 확대
- 반면, 공공서비스 물가는 무상교육 추가시행 효과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

[그림 28] 부문별 서비스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9]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주: 국제유가는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의 국제유가 오름세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내림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

- 2020년 1월 중 국제유가는 이란과 미국간 갈등, 사우디의 감산 소식,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3개 유종 평균 배럴당 53.6달러를 기록하며 상승하는 모습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20.11월)-0.9→(12월)-0.9→('21.1월)-0.6
- 석유류제품(전년동월대비, %):('20.11월)-14.8→(12월)-12.6→('21.1월)-8.6
- 국제유가⁵⁾(달러/배럴): ('20.11월)42.3→(12월)48.7→('21.1월)53.6

■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2021년 1월 -5.0%를 기록하며 하락폭 확대

-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 인하⁶⁾에 따라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4.5% 수준을 지속
- 2021년 1월부터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이 반영되면서 전기가격이 전년동월대비 2.1% 하락

5)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자료: Bloomberg)

6) 산업자원부는 2020년 7월부터 유가하락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

6. 금융시장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미국·영국 등 백신접종 확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선호하는 민주당의 상원 장악, 엘런 신임 재무장관의 경기부양책 강조에 따라 미국 금리가 상승하자 이에 연동하여 상승

■ 2021년 1월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0.01%p)한 월평균 0.98%를 기록하여 상승세가 6개월째 지속

- 미국 민주당이 1월 초 2개 주 상원선거에서 승리하여 상원을 장악하자 신정부의 부양정책이 용이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 형성
- 미국 신정부는 전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0.9조 달러에 더해 추가로 1.9조 달러의 재정부양책을 추진하고, 엘런 재무장관이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피력하자 미국금리가 상승하고 국고채금리의 상승을 견인
- 그러나 단기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소폭 상승에 그침
- 3년 만기 국고채금리(% , 월평균):('20.11월)0.97→(12월)0.97→('21.1월)0.98
- 10년 만기 미국국채금리(% , 월평균):('20.11월)0.87→(12월)0.93→('21.1월)1.08

■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3년 만기채(0.01%p)보다 높은 0.06%p 상승한 1.73%를 기록하여 국고채 기간물 간 스프레드가 확대

- 장기채가 국내외 경기회복기조와 재정정책 강화에 따른 장기채의 수급악화 예상이 확산된 반면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기간물 간 스프레드 확대 요인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 , 월평균):('20.11월)1.61→(12월)1.68→('21.1월)1.73
- 국고채 스프레드(10년-3년, %p):('20.11월)0.65→(12월)0.71→('21.1월)0.76

[그림 30]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1] 국고채 및 미국 금리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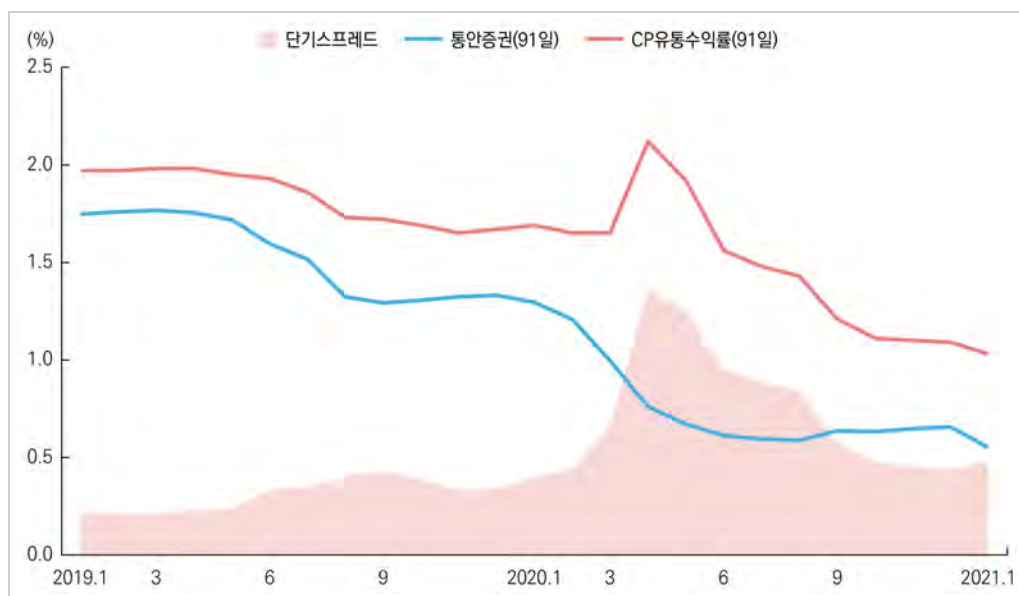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ed

■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단기금리가 하락

- 다만 무위험증권인 통안증권금리(91일)의 하락폭이 CP금리(91일) 하락폭보다 커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20.11월)0.65→(12월)0.66→('21.1월)0.55
- CD금리(91일물, 월평균, %):('20.11월)0.66→(12월)0.66→('21.1월)0.68
- CP금리(91일물, 월평균, %):('20.11월)1.10→(12월)1.09→('21.1월)1.03
- 스프레드(CP금리-통안증권금리, 월평균, %):('20.11월)0.45→(12월)0.43→('21.1월)0.48

[그림 32] 단기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월별)



주: 스프레드는 통안증권금리(91일)와 차
자료: 한국은행

2021년 1월 회사채 금리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2020년 12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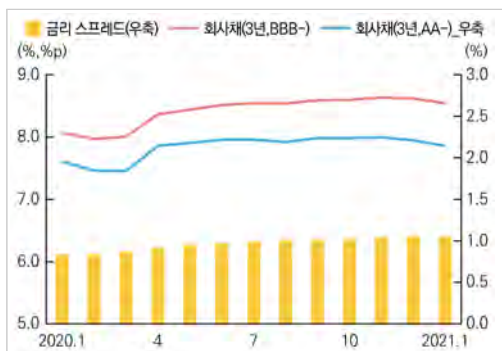
■ 2021년 1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며 하락

- 1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7bp 하락한 2.14%이었으며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8bp 하락한 8.54%를 기록
- 회사채(3년, 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 641bp에서 2021년 1월 640bp로 1bp 하락

■ 202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차가 확대

- 12월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2bp 상승한 2.51%,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대비 3bp 상승한 2.89%를 기록
-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차가 전월 37bp에서 38bp로 확대

[그림 33] 회사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4]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



주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주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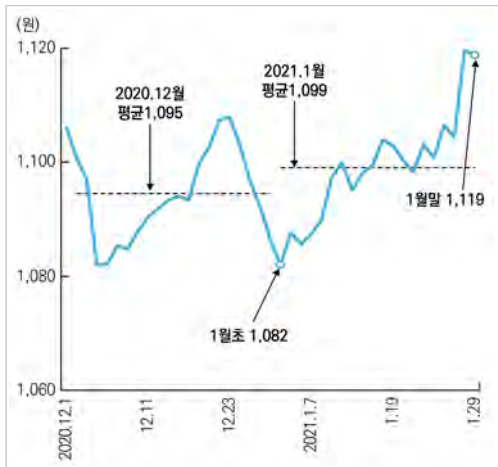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 미국 신정부의 대중 압박 지속,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상승

■ 2021년 1월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099원으로 전월(1,095원)에 비해 5원(0.4%) 상승하여 8개월 만에 하락추세에서 반전

- 유럽 선진국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미국이 대중국 강경책을 표명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승
-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1.9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미국금리 상승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
-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채권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이익실현을 위해 전월에 이어 주식 순매도를 강화하여 전체 국내증권이 순매도된 것으로 나타난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월평균 원/달러 환율: ('20.11월)1,115→(12월)→1,095→('21.1월)1,099
- 외국인국내증권순매수(조원): ('20.11월)5.2→(12월)-2.9→('21.1월)-4.2

[그림 35] 원/달러 환율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6]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추이(월별)



자료: 금융감독원

다. 주가

2021년 1월 주가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경기지표 악화 우려와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상충되며 혼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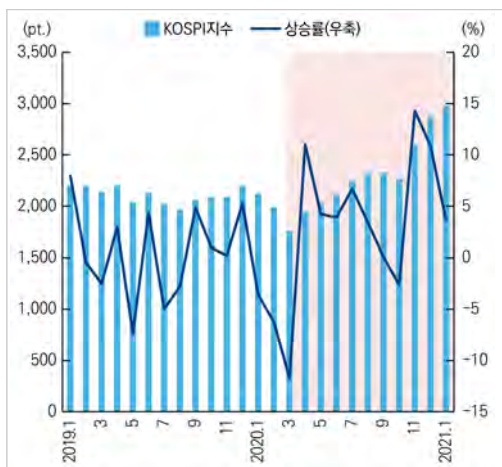
■ 2021년 1월 국내 주가는 한국은행의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상승률은 둔화

- 1월말 KOSPI지수는 전월말(2,873) 대비 102.7pt 상승한 2,976을 기록
- 반면 1월 KOSPI지수 상승률은 전월 10.9%에서 하락한 3.6%를 나타냄

■ 한편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잔고를 의미하는 신용잔고는 2020년 3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

- 2020년 3월말 6.5조원 수준에서 2021년 1월말 20.9조원으로 3.2배 증가
- 신용잔고의 증가는 향후 주가의 하방압력이 높아질 경우 개인 투자자금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및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그림 37]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8] 신용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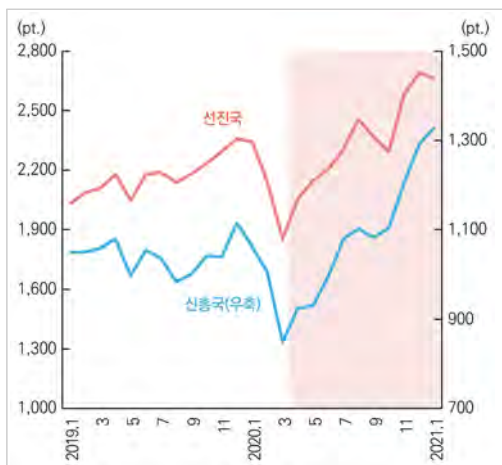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글로벌 주식시장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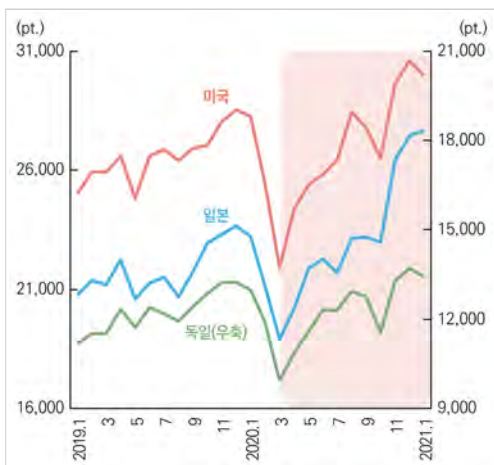
- 1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1.1% 하락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3.0% 상승
- 한편 1월말 기준 미국과 독일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2.0%, 2.1% 하락하였으나 일본은 0.8% 상승

[그림 39]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0] 주요국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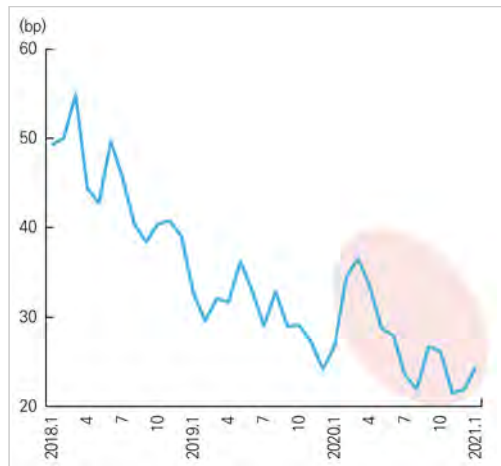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1년 1월 신용위험지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상충되며 차별화

- 2021년 1월 한국의 신용위험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 2021년 1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⁷⁾은 전월대비 2.5bp 상승한 24.4bp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전년말 대비 0.2bp 높은 수준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⁸⁾는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한 반면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하락
 - 2021년 1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10.1bp 상승한 348.6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4.2bp 하락한 217.5bp를 기록

[그림 41]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2]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7)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8)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산업·고용동향

경제분석국

12월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무선통신기기와 가전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51.8%, 30.7% 증가하였고, 반도체 생산 또한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

1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철강·화학·조선 등의 수출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 11대 산업 중 반도체(21.7%), 무선통신기기(58.1%), 자동차(26.4%), 조선(23.4%) 등 8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석유(-46.0%), 섬유(-7.9%) 등은 감소

12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며 3개월 연속으로 부진

■ 금융 및 보험(23.7%), 부동산(3.2%) 등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39.5%), 운수(-13.9%), 예술·스포츠·여가(-40.6%), 도매 및 소매(-0.5%) 등 감소

1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모두 3개월 연속 상승하여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최근 20개월 중 가장 높아졌고, 농산물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도 모두 전월대비 상승하여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나타냄

■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긍정적 전망, 중국의 원자재 및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침

(부동산)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0.66% → 0.80%)은 상승폭이 확대 되었으나, 지방(1.12% → 0.78%)은 상승폭이 축소되어 전국은 0.79% 상승

고용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확대되며 부진

■ 1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전체 취업자 수 증감(전년대비, 만명): ('20.10월)-42.1→('11월)-27.3→('12월)-62.8→('21.1월)-98.2

II. 산업·고용동향

1.

1. 제조업

12월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무선통신기기와 가전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51.8%, 30.7% 증가하였고, 반도체 생산 또한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18.6% 증가

- 전월대비로도 무선통신기기, 가전 및 반도체 생산이 각각 38.8%, 17.2%, 11.6% 증가하여 제조업 전체 생산이 증가하는 데 기여

■ 자동차와 석유 산업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생산이 감소하였고, 석유 산업은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감소(-9.6%)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19			2020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2.3	111.2	114.3	109.9	111.9	118.2	3.7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9	1.3	6.9	-2.1	0.6	3.4	
반도체	11.3	32.1	35.3	13.1	8.5	18.6	11.6
자동차	-5.8	-11.3	-4.9	-5.2	-1.6	-6.6	-8.6
화학	-1.7	-0.7	2.7	0.4	-5.5	0.0	6.9
일반기계	-2.6	-3.2	13.0	-1.9	8.6	7.2	10.0
철강	-4.0	-3.8	-0.4	-3.7	-1.5	0.7	1.4
조선	17.2	16.1	13.0	5.0	7.5	-6.7	-11.3
석유	-11.0	-4.0	-0.2	-3.9	-7.8	-9.6	0.0
섬유	-6.4	-6.6	-2.1	-10.2	-4.9	-5.3	-1.5
무선통신기기	11.4	7.9	-2.5	-18.1	4.8	51.8	38.8
가전	-1.1	-10.4	-2.3	13.2	17.8	30.7	17.2
컴퓨터·주변장치	-16.2	-17.2	-10.7	-3.0	-1.0	6.8	7.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021년 1월 주요 11대 산업¹⁾의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철강·화학·조선 등의 수출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IT관련 산업인 반도체(21.7%), 무선통신기기(58.1%), 컴퓨터·주변장치(21.6%), 가전(19.1%)과 자동차(26.4%), 조선(23.4%) 등 8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 산업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4.7% 감소

[표 2] 수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19			2020 1월	2020				2021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1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17.6	-17.4	-9.6	-7.7	-7.1	-0.1	10.7	13.7	9.6	-4.7
반도체	-32.1	-30.9	-17.8	-3.4	10.4	16.4	30.0	10.1	21.7	-7.9
자동차	-4.5	-4.1	1.5	-19.7	0.6	3.5	2.1	-1.9	26.4	0.8
화학	-22.6	-18.9	-6.0	-17.4	-14.2	-7.9	-1.5	19.7	8.6	1.0
일반기계	-12.4	-1.8	3.9	-5.0	-10.9	-7.3	2.7	11.6	-4.8	-14.8
철강	-12.3	-8.9	5.7	-17.3	-6.9	-4.8	-7.8	5.7	6.0	1.4
조선	25.1	-62.0	-57.9	59.0	-21.8	32.3	106.1	166.7	23.4	25.2
석유	-26.8	-12.4	-5.4	-6.3	-50.3	-49.0	-36.1	20.3	-46.0	-13.8
섬유	-6.9	-12.3	-3.6	-12.9	-15.9	-6.4	2.9	9.3	-7.9	-18.2
무선통신기기	-6.8	-2.9	-0.5	-23.3	-12.0	20.2	39.8	2.1	58.1	-8.5
가전	-6.6	-7.0	1.1	-18.4	14.6	20.3	23.5	6.0	19.1	-10.1
컴퓨터·주변장치	-14.4	-10.8	-3.2	-9.0	5.2	15.5	23.0	9.9	21.6	-13.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산업은 내수와 수출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생산과 수출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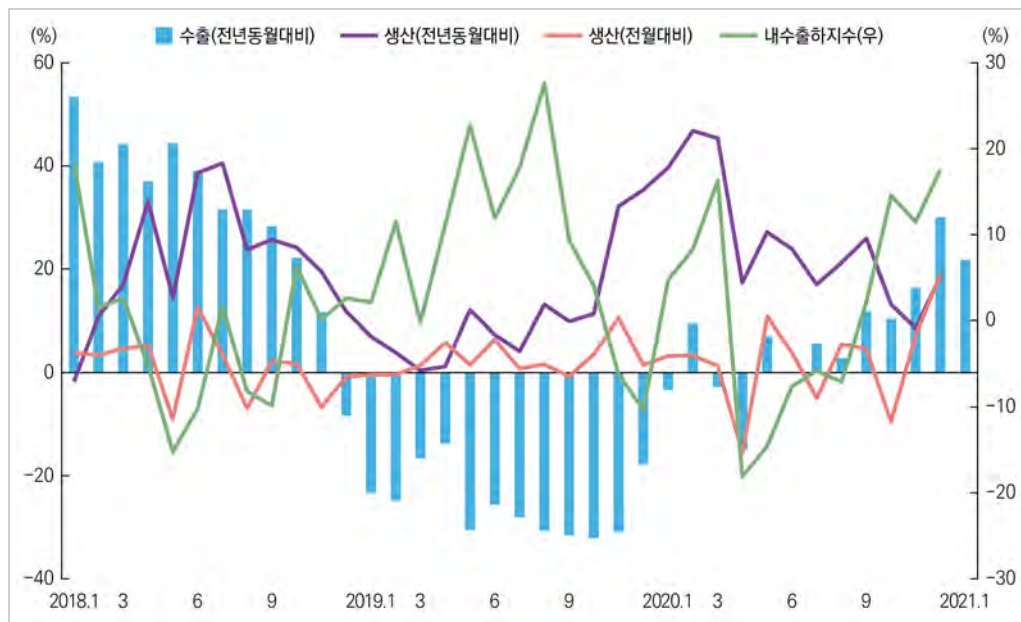
■ 모바일 및 서버용 D램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생산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힘입어,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6%, 전월대비 11.6%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13.1 → (11월)8.5 → (12월)18.6
- 생산(전월대비) 증감율(%): ('20.10월)-9.5 → (11월)7.2 → (12월)11.6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14.5 → (11월)11.5 → (12월)17.5

■ 2021년 1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7% 증가

- 경쟁기업의 생산시설 정전²⁾으로 인한 글로벌시장 반도체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 부문의 대형 고객 수주³⁾ 등에 기인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10.4 → (11월)16.4 → (12월)30.0 → ('21.1월)21.7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미국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의 대만 생산시설에 2020년 12월 3일 1시간 가량 정전 발생

3) IBM, 인텔, 엔비디아 등과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의 파운드리에서 생산

자동차 산업의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1월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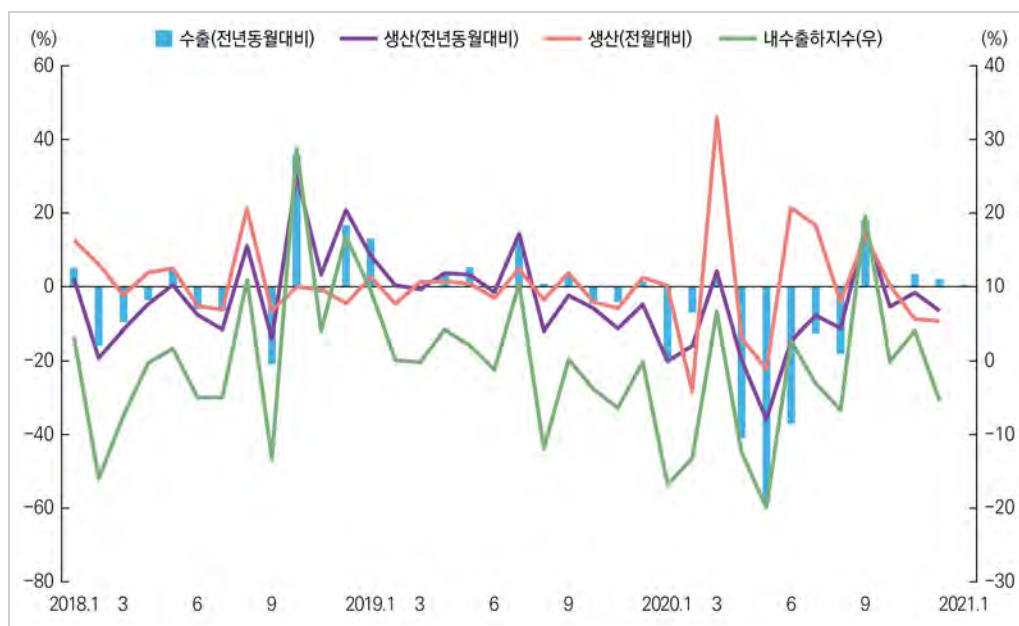
■ 12월 생산은 일부 공장의 파업과 생산라인 조정으로 인한 내수출하감소(-5.4%)로 수출증가(2.1%)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6.6%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5.5 → (11월)-1.6 → (12월)-6.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10월)0.3 → (11월)-8.8 → (12월)-8.6
- 내수출하(전월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0.1 → (11월)4.1 → (12월)-5.4

■ 2021년 1월 수출은 북미 시장의 자동차 판매 호조로 완성차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0.2%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6.4%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0.6 → (11월)3.5 → (12월)2.1 → ('21.1월)26.4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은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12월 생산이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1월 수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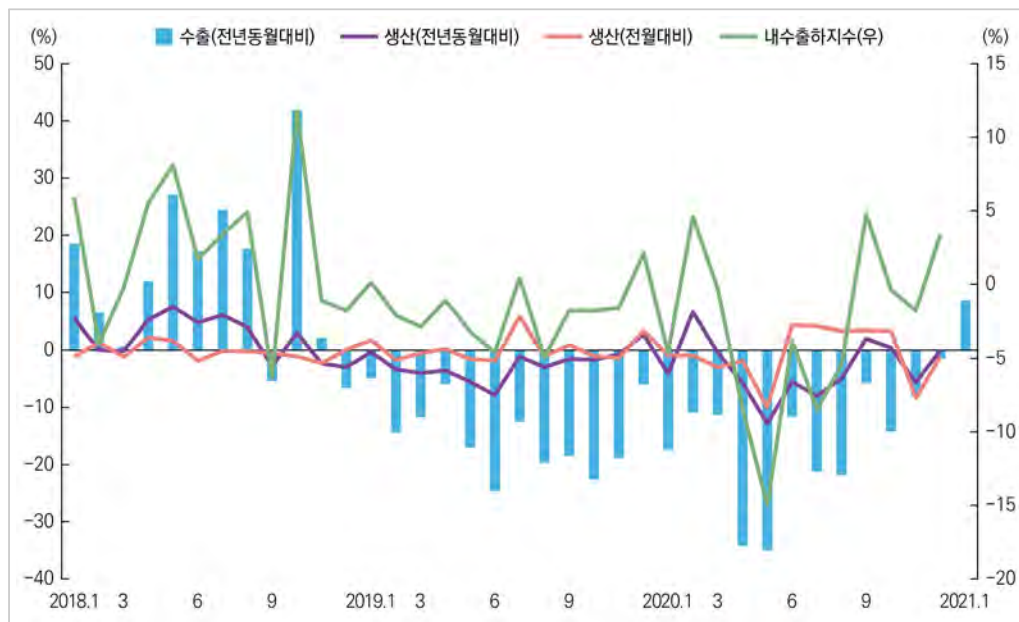
■ 12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보합 수준에 머물렀지만, 포장재 및 가전산업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증가한 데 힘입어 내수와 수출 모두 전월대비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0.4 → (11월)-5.6 → (12월)0.0
- 생산(전월대비) 증감율(%): ('20.10월)3.3 → (11월)-8.4 → (12월)6.9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0.4 → (11월)-1.8 → (12월)3.4

■ 2021년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6%, 전월대비1.0%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2018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증가(8.6%)로 전환
- 해외시장에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제품의 수출이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2월)-14.2 → (11월)-7.9 → (12월)-1.5 → ('21.1월)8.6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2020년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2021년 1월 수출은 주요국의 투자심리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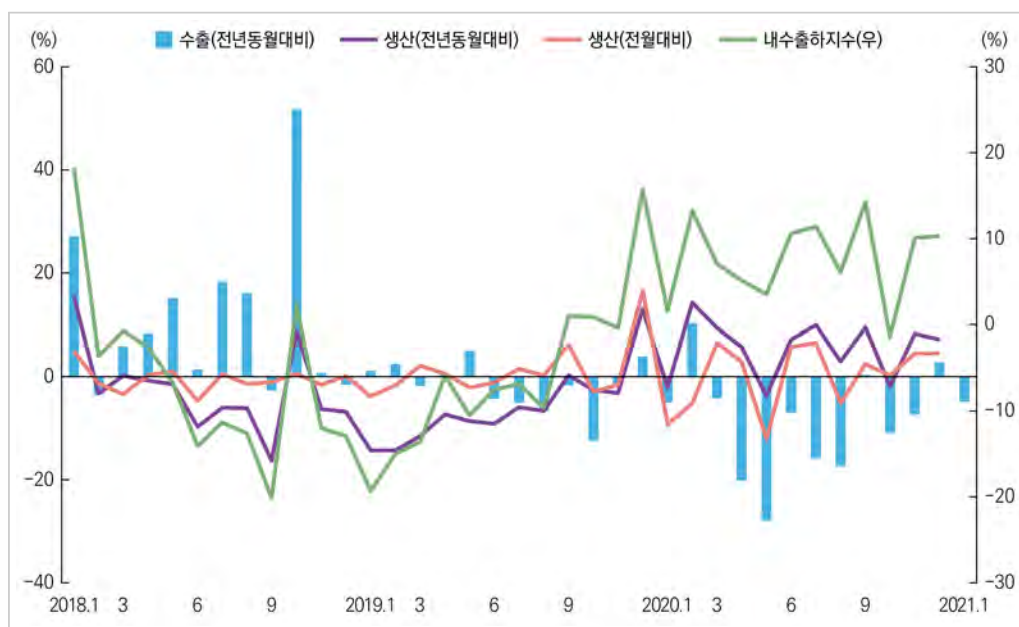
■ 2020년 12월 생산은 내수출하 증가와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하여,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10월)-1.9 → (11월)8.3 → (12월) 7.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 ('20.10월)0.2 → (11월)4.4 → (12월)10.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10월)-1.4 → (11월)10.1 → (12월)10.3

■ 2021년 1월 수출은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지연으로 아세안·미국·EU 등에 대한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4.8%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10월)-10.9 → (11월)-7.3 → (12월)2.7 → ('21.1월)-4.8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2020년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되었고, 2021년 1월 수출도 수출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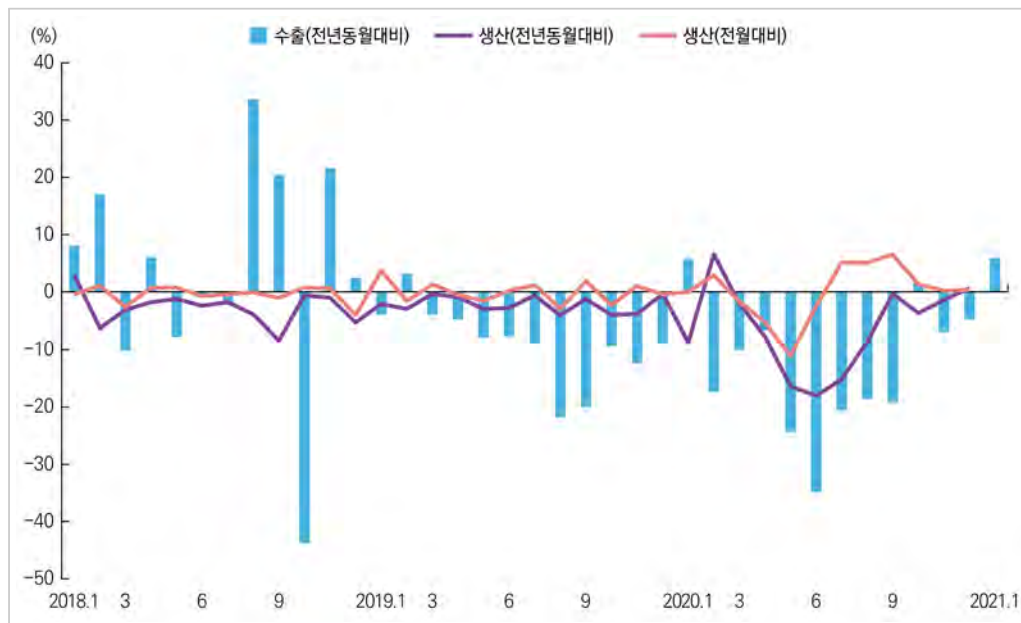
■ 2020년 12월 생산은 주요 철강 수요산업의 회복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여, 11월 1.4%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고, 전월대비로도 1.4%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10월)-3.7 → (11월)-1.4 → (12월)0.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 ('20.10월)1.3 → (11월)0.2 → (12월)1.4

■ 2021년 1월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 및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전방산업 경기회복으로 인해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10월)-6.9 → (11월)-4.8 → (12월)-7.8 → ('21.1월)6.0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선 산업은 2020년 12월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 1월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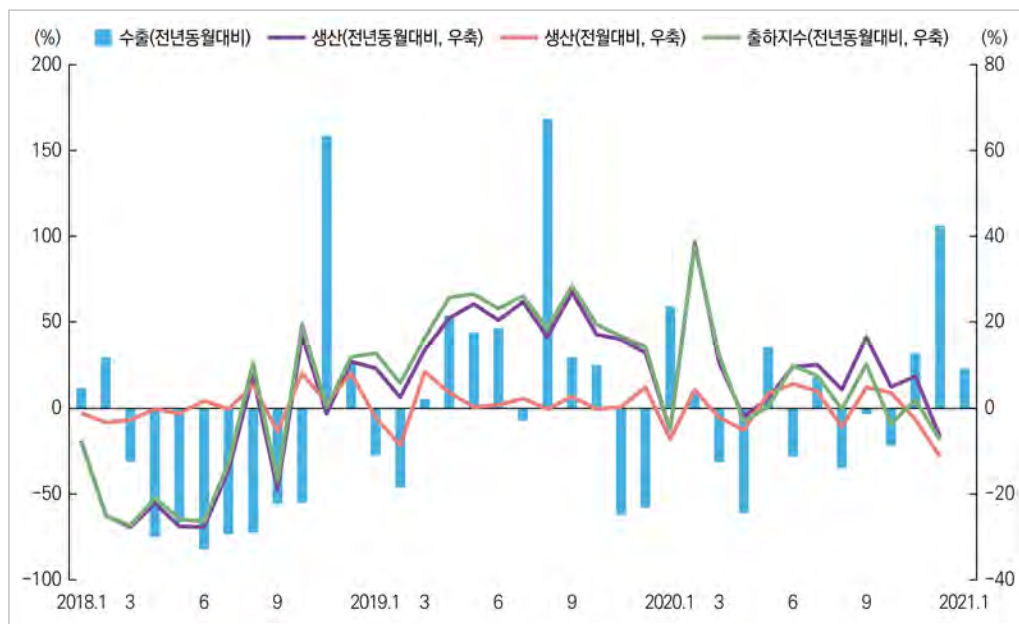
■ 12월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일부 물량의 통관이 재개되면서 수출이 106.1% 증가하였으나, 생산과 출하, 건조량⁴⁾은 각각 6.7%, 7.3%, 2.4%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5.0 → (11월)7.5 → (12월)-6.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10월)3.7 → (11월)-2.5 → (12월)-11.3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3.6 → (11월)2.0 → (12월)-7.3

■ 2021년 1월 중 수출은 27.8억 달러로 대형 해양 플랜트 설비(17.7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3개월 연속 증가(23.4%)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21.8 → ('20.11월)32.3 → (12월) 106.1 → ('21.1월)23.4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국내 조선소가 수주한 물량을 건조한 물량 톤수로 나타낸 지표로서 선박 건조가 끝난 상태를 의미

석유 산업은 12월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감소폭도 다소 확대되었으며, 1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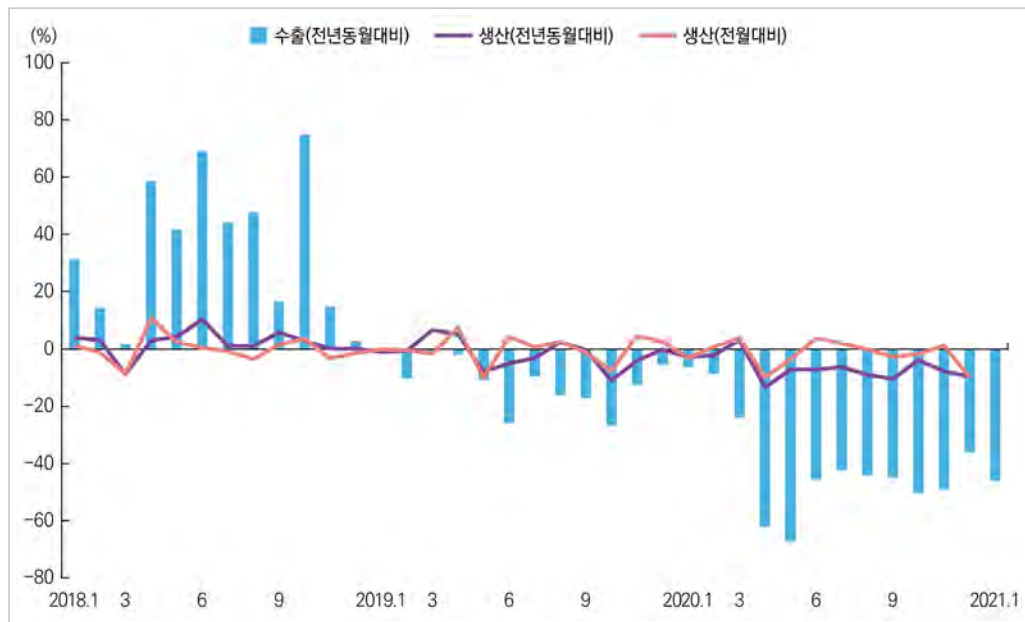
■ 12월 중 생산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운송부문의 수요 감소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8개월째 지속

- 석유제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41.3%)을 차지하는 경유 수출은 39.1%, 13.1%를 차지하는 항공유 수출은 77% 감소하는 등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어 생산이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3.9 → (11월)-7.8 → (12월)-9.6
- 생산(전월대비) 증감율(%): ('20.10월)-1.8 → (11월)1.2 → (12월)0.0

■ 1월 중 수출도 각국의 운송부문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6.0% 감소하여, 지난해 월평균 수출(20.1억 달러)을 하회하는 수준인 18.1억 달러로 낮아짐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50.3 → (11월)-49.5 → (12월)-36.5 → ('21.1월)-46.0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2020년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2021년 1월 수출도 의류 및 패션 산업의 부진으로 섬유 수요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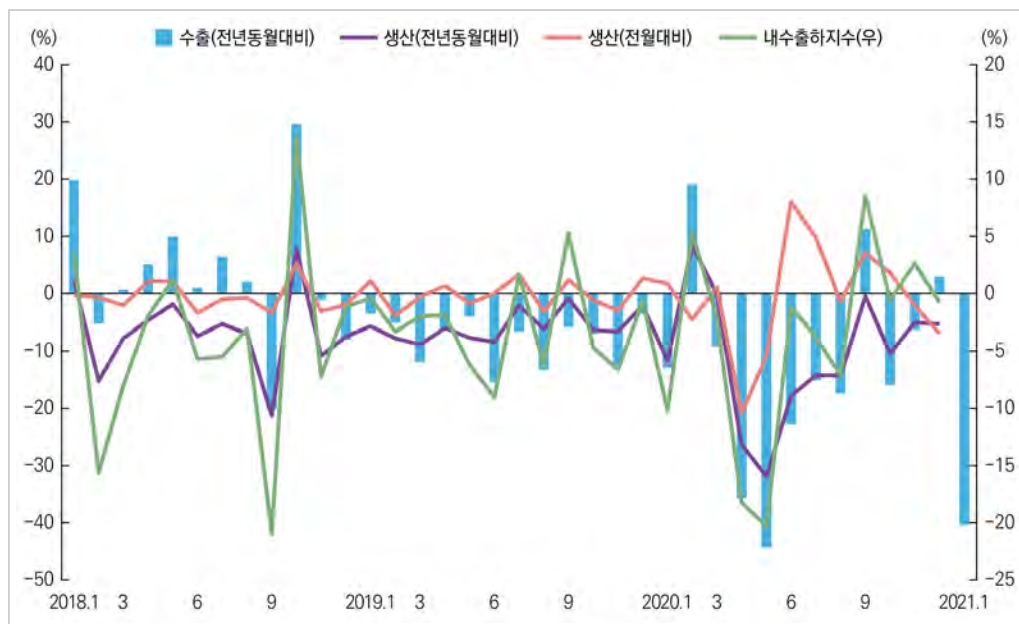
■ 2020년 12월 화학섬유제조업의 가동률은 증가하였으나, 재고 증가에 따라 섬유제조업의 가동률이 하락하여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생산지수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20.10월)-10.4 → (11월)-5.1 → (12월)-5.3
- 생산지수증감률(전월대비, %): ('20.10월)3.6 → (11월)-2.1 → (12월)-1.5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0.6 → (11월)2.6 → (12월)-0.8

■ 2021년 1월 수출은 마스크·필터 등 방역 관련 품목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등으로 의류·패션 산업 부진이 지속되어 섬유 수요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15.9 → (11월)-6.4 → (12월)2.9 → ('21.1월)-7.9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은 2020년 12월 생산이 증가하였고, 2021년 1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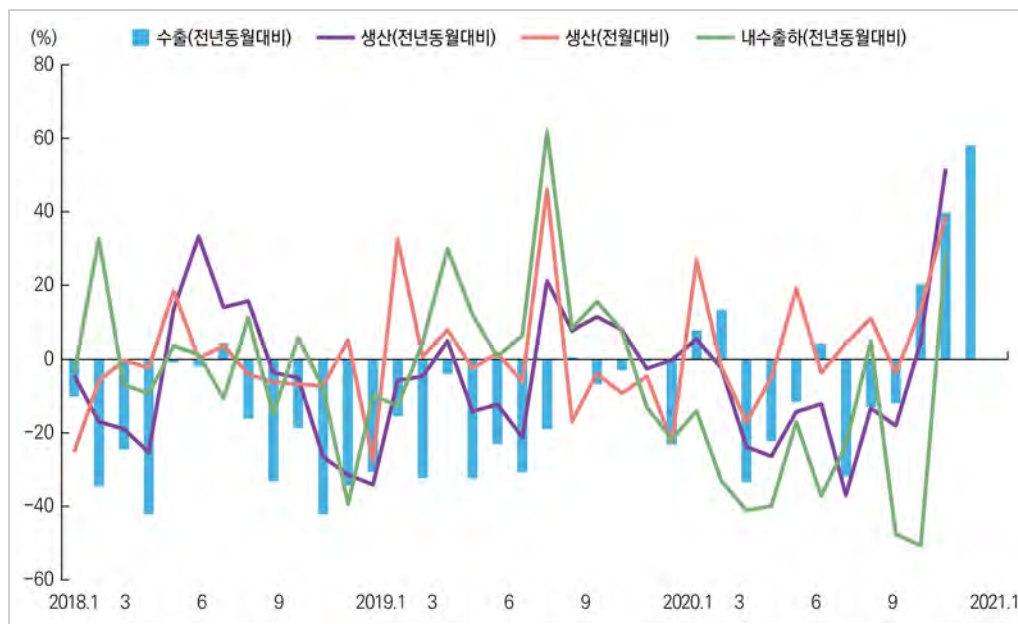
- 12월 중 생산은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내수 출하가 증가하고, 중국 기업의 한국산 카메라 모듈⁵⁾ 탑재가 증가하면서 카메라 모듈 대중 수출이 252.0% 증가하는 등 부분품의 대중 수출이 198.6% 증가하고 대베트남 수출도 53.9%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1.8%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18.1 → (11월)4.8 → (12월)51.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10월)-3.6 → (11월)13.3 → (12월)38.8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47.6 → (11월)-50.7 → (12월)28.8

- 2021년 1월 중 수출도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58.0% 늘어나며 3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12.0 → (11월)20.2 → (12월)39.8 → ('21.1월)58.1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카메라 모듈(Camera Module)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영상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의 필수 부품으로서 이미지센서, 렌즈모듈, AF액츄에이터, 경통, IR필터, 커넥터 등으로 구성

가전 산업은 2020년 12월 생산과 2021년 1월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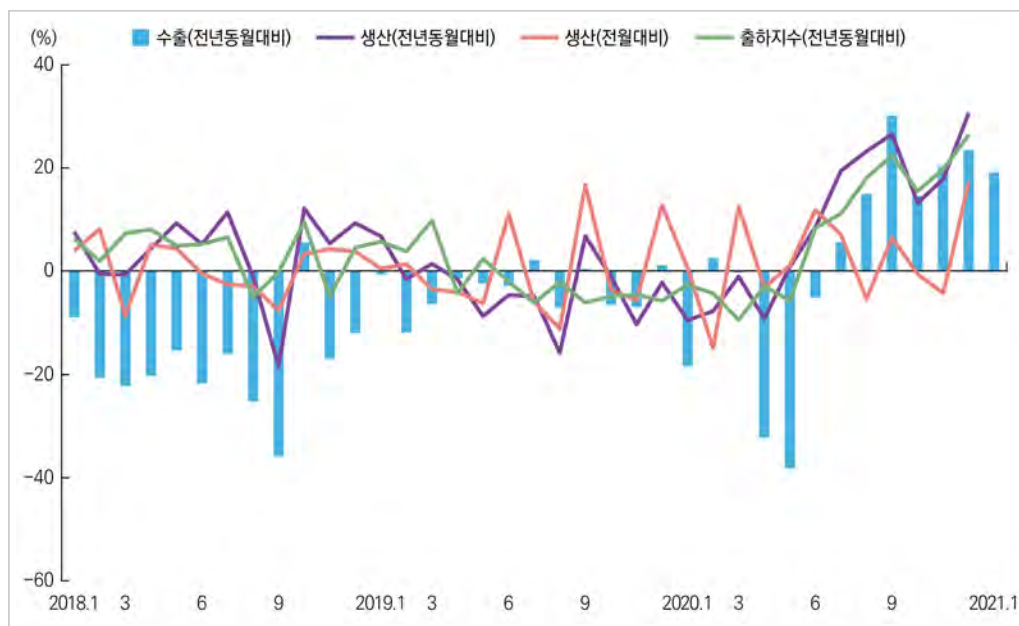
■ 12월 중 생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0.7% 늘어 증가세를 지속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13.2 → (11월)17.8 → (12월)30.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10월)-0.6 → (11월)-4.3 → (12월)17.2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15.5 → (11월)19.7 → (12월)26.4

■ 2021년 1월 중 수출은 미국, EU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로 19.1% 증가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각각 48.0%, 24.6%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14.6 → (11월)20.3 → (12월)23.5 → ('21.1월)19.1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컴퓨터 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수출도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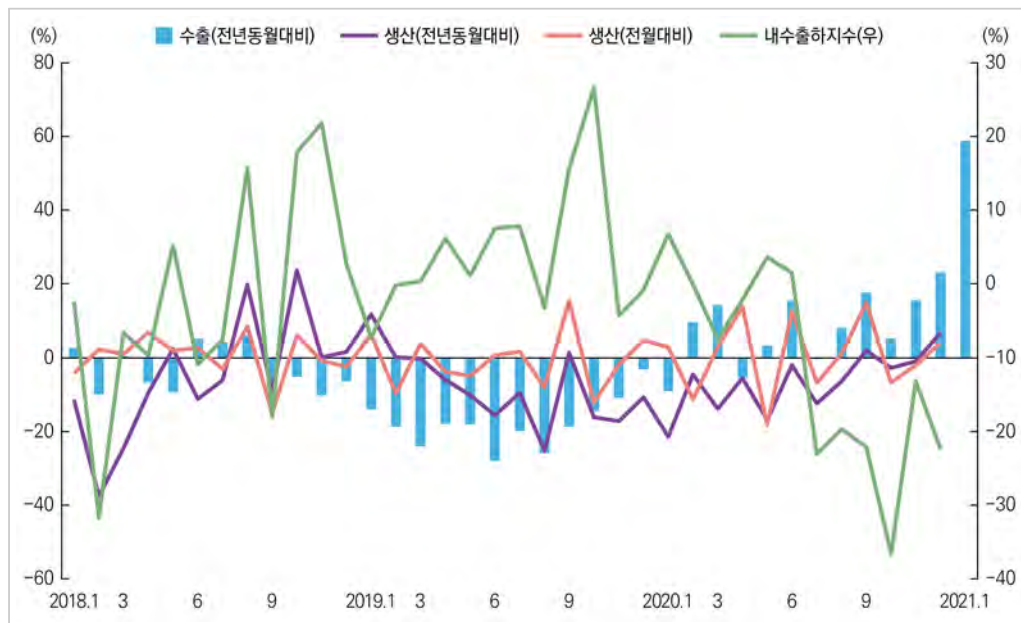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PC 및 모바일용, 가전용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의 12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전월대비 7.4%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2.8 → (11월)-1.0 → (12월)6.8
- 생산(전월대비) 증감율(%): ('20.10월)-6.8 → (11월)-2.0 → (12월)7.4

■ 2021년 1월 수출은 해외시장에서 모바일 및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수요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5.2 → (11월)15.5 → (12월)23.0 → ('21.1월)21.6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12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부진이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며 3개월 연속으로 부진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 -2.5 → (11월) -1.4 → (12월) -2.2
-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23.7%), 부동산(3.2%) 등이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0.5%), 숙박 및 음식점(-39.5%), 운수(-13.9%), 예술·스포츠·여가(-40.6%) 등은 감소

■ 전월대비로는 도매 및 소매(0.3%), 금융 및 보험(4.6%) 등이 증가하였으나, 교육(-1.4%), 숙박 및 음식점(-27.3%), 운수(-3.2%) 등이 줄면서 감소(-1.1%)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10월) 1.3 → (11월) 0.7 → (12월) -1.1

[표 3]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19			2020			전월대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서비스업(원지수)	109.1	110.3	118.8	106.4	108.8	116.2	-1.1
서비스업	0.7	2.4	2.6	-2.5	-1.4	-2.2	
도매 및 소매	-1.8	-0.3	0.1	-1.8	-2.0	-0.5	0.3
금융 및 보험	-1.3	4.3	3.3	14.1	18.0	23.7	4.6
교육	-0.4	-1.0	-0.9	-4.2	-3.0	-4.4	-1.4
보건 및 사회복지	7.0	9.9	8.4	0.3	-0.7	-1.0	-0.7
숙박 및 음식점	0.0	0.2	0.9	-15.3	-17.1	-39.5	-27.3
운수	-0.8	-1.8	0.7	-14.8	-11.0	-13.9	-3.2
출판·영상·방송	6.3	5.3	4.3	-1.4	0.4	0.1	-1.6
전문, 과학 및 기술	1.7	0.6	1.3	-1.4	-0.3	1.4	0.9
사업시설관리지원	3.0	4.1	6.0	-11.5	-10.9	-12.3	1.8
협회·수리·기타개인	-1.9	0.5	-0.4	-8.3	-10.6	-12.7	-4.2
부동산 및 임대	-1.2	7.4	10.3	-2.5	0.0	3.2	3.4
예술·스포츠·여가	-0.7	5.9	2.9	-30.0	-30.0	-40.6	-15.8
하수, 폐기물 처리	-0.3	0.7	7.6	2.8	2.0	2.3	-1.1

주: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매업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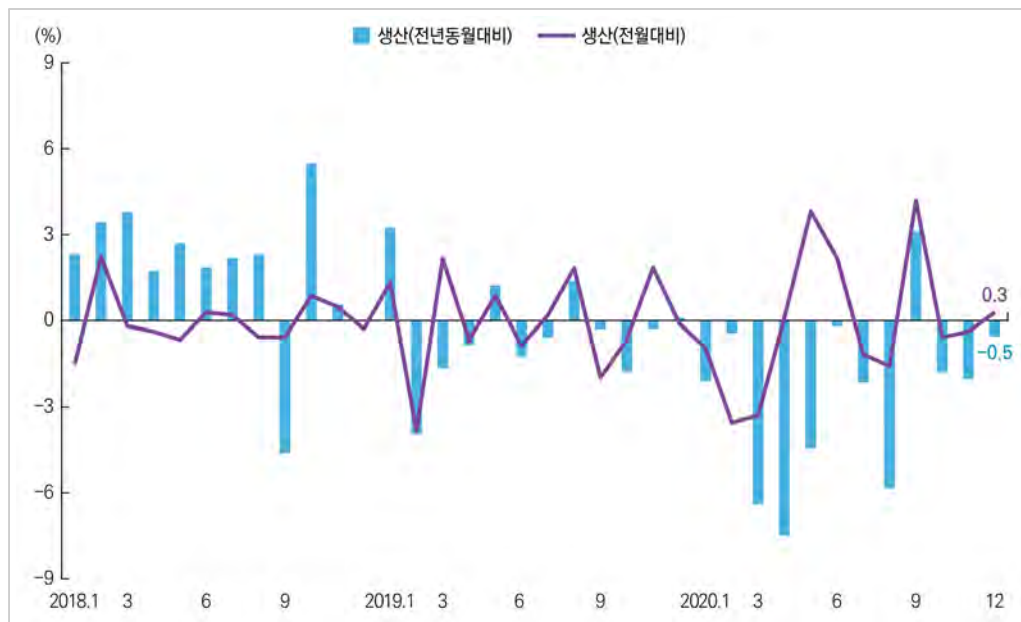
■ 12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도매업과 자동차 판매업 부문이 각각 3.0%, 5.1% 증가하였으나, 소매업 부문이 6.9%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며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

- 소매업 부문 생산은 무점포 소매업(26.9%)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종합 소매업(-6.8%)과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33.6%) 등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하며 11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지속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10월)-1.8 → (11월)-2.0 → (12월) -0.5

■ 전월대비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의 생산이 2.0% 감소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의 생산이 각각 0.4%, 0.7% 증가하여 증가(0.3%)로 전환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10월)-0.6 → (11월)-0.4 → (12월)0.3

[그림 12]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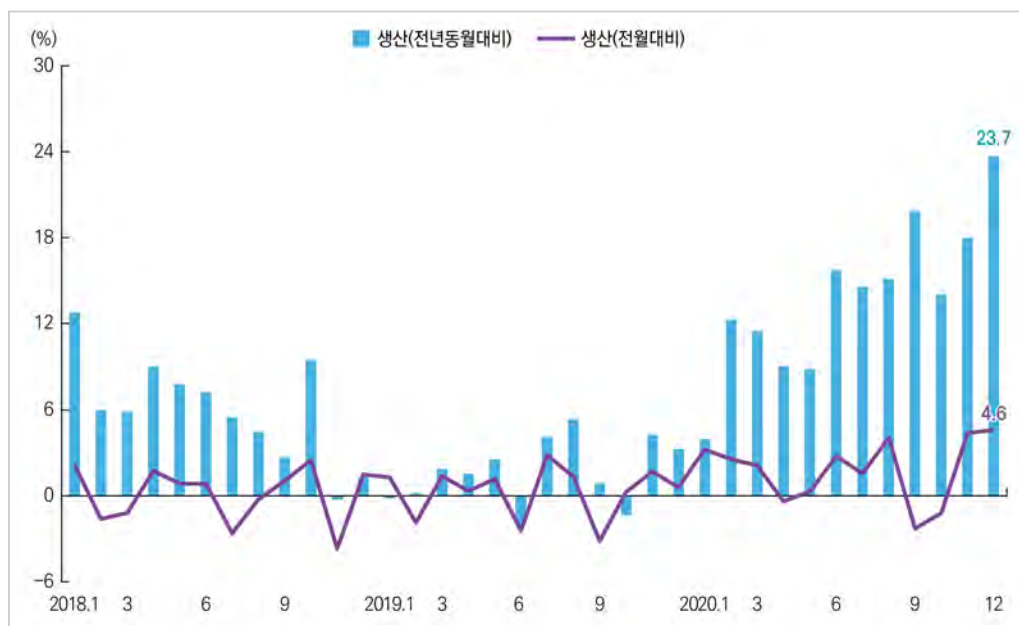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 및 보험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

■ 12월 중 금융 및 보험 부문은 전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생산지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100.7% 상승하여 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

- 금융업과 보험업 부문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9.3%, 11.6% 상승했으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 증권 및 선물거래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43.7% 상승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10월)14.1 → (11월)18.0 → (12월)23.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 ('20.10월)-1.2 → (11월)4.4 → (12월)4.6

[그림 13]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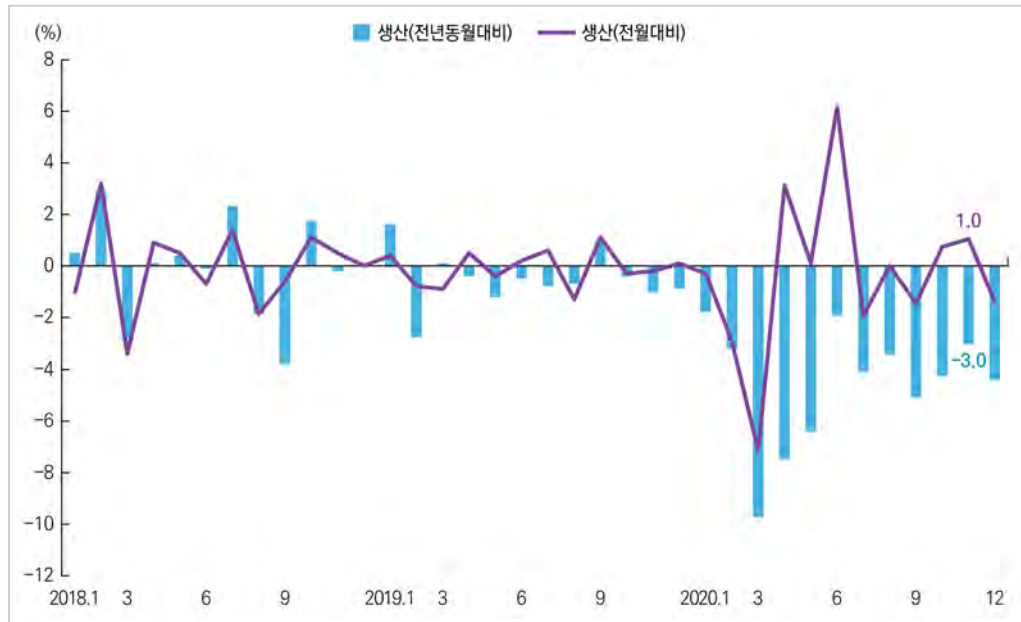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 서비스업의 12월 생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도 감소로 전환

■ 12월 생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도 1.4%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10월)-4.2 → (11월)-3.0 → (12월)-4.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 ('20.10월)0.7 → (11월)1.0 → (12월)-1.4

[그림 14] 교육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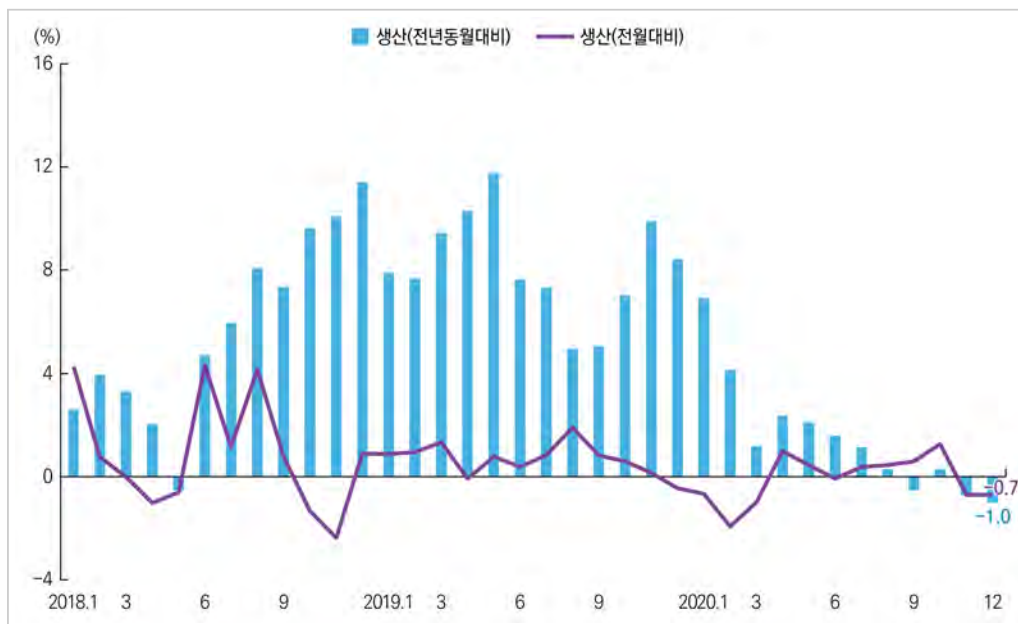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병원 부문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 부문의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보건업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업 부문도 비거주 복지시설의 생산이 10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병원 부문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2.0% → (11월)2.0 → (12월)1.2
- 의원 부문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1.1% → (11월)-3.7 → (12월) -1.9
- 비거주복지시설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10월)-3.3% → (11월)-4.7 → (12월)-6.9

■ 전월대비로는, 병원, 의원 등 보건업 부문(-0.2%)과 사회복지업 부문(-2.4%) 모두 감소세 지속

[그림 15] 보건 및 사회복지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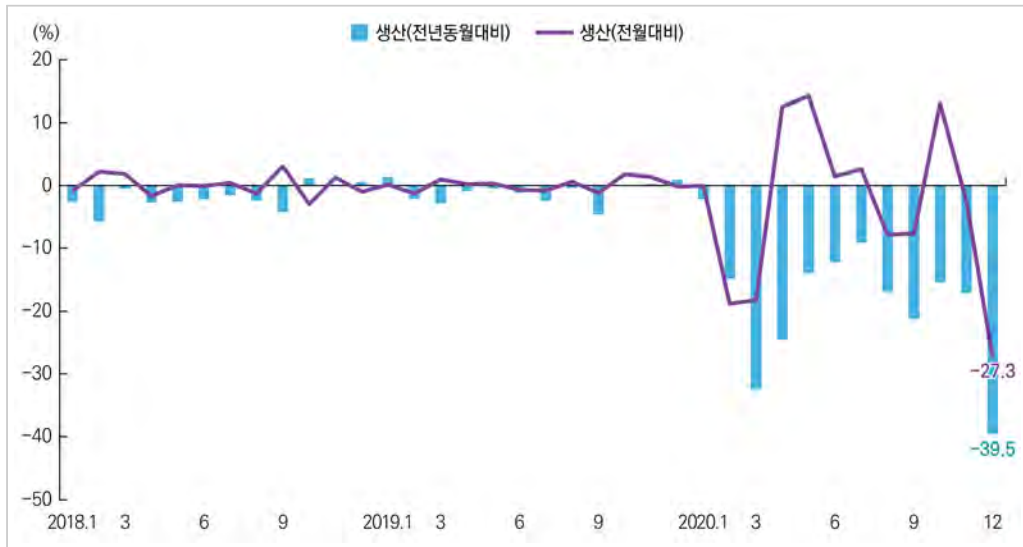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생산 감소세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전월대비로도 크게 하락

■ 12월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동월대비 39.5% 하락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숙박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3.5% 하락했으며, 특히 여행수요를 나타내는 휴양콘도 운영부문과 호텔 부문이 각각 55.1%와 53.2% 하락
- 음식점 및 주점 부문은 38.9% 하락했으며, 주점 부문(-67.6%), 한식 음식점 부문(-48.2%), 비알코올 음료점 부문(-34.5%) 등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전년동월대비)증감률(%): ('20.10월) -15.3 → (11월) -17.1 → (12월) -39.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10월) 13.0 → (11월) -2.6 → (12월) -27.3

[그림 16]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1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모두 3개월 연속 상승하여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최근 20개월 중 가장 높아짐

■ 1월 원유 가격은 배럴당 53.6달러로 전월대비 10.0% 상승하여 3개월 만에 34.3% 급등하였는데,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OPEC+의 감산결정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

-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있으므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전망

■ 1월 석탄 가격은 톤당 86.8달러로 전월대비 4.6%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로도 24.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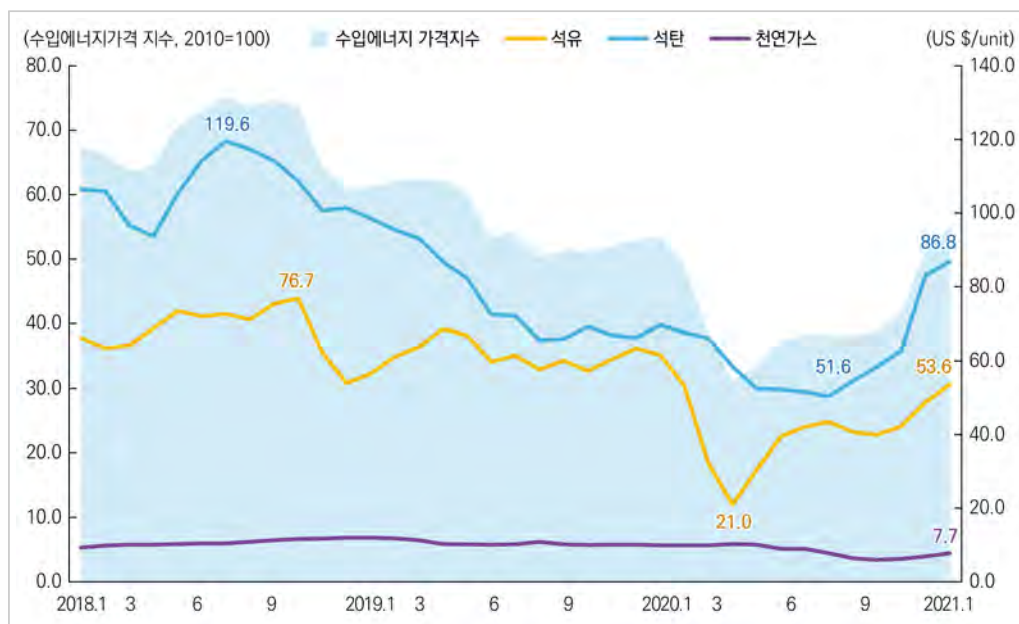
- 1월 석탄 가격은 2020년 최저가 대비 72.5% 상승한 수준으로, 중국의 석탄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1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7.7달러로 전월대비 12.1% 상승

- 겨울 한파와 함께 탈석탄 정책으로 LNG수요가 급증하여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3개월만에 29.6% 상승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질량 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7]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입에너지가격지수 추이



주: 1.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고려하여 석유가격 45.5%, 석탄 33.3%, 천연가스 21.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2.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우측)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월 농산물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가 모두 전월대비 상승하여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나타냄

■ 1월 농산물 및 식품 가격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5.5%, 7.8%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15.4%, 20.5% 상승하여 2020년 8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옥수수는 미국의 생산량 저조, 아르헨티나의 수출 일시중단, 쌀은 태국과 베트남의 공급량 부족, 유지류는 폭우로 인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생산량 감소, 가금육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공급부족이 가격 상승세의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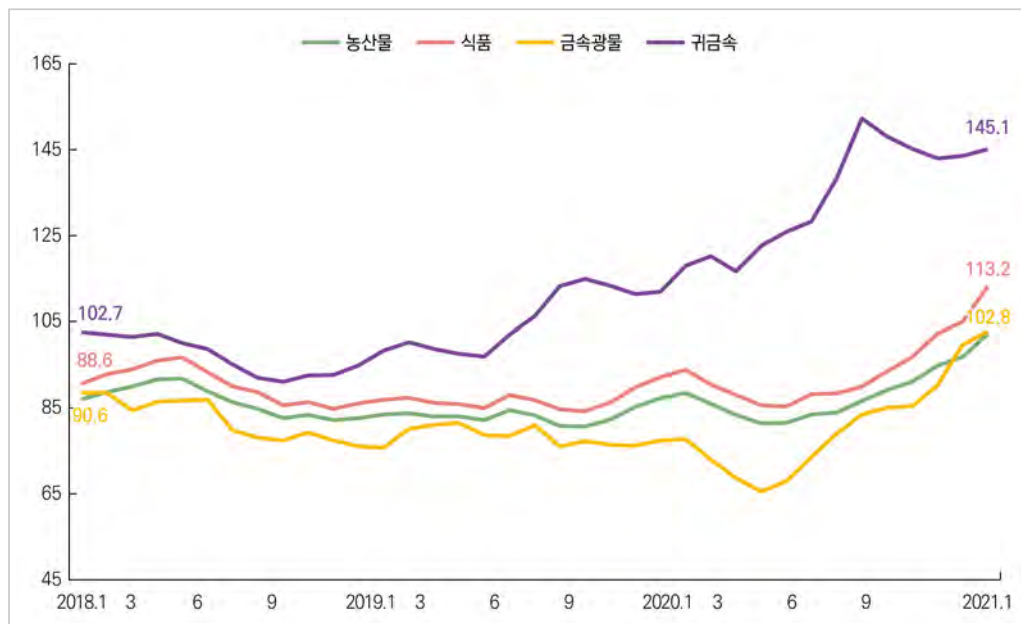
■ 1월 금속광물 지수는 102.8로 9개월 연속 상승하여 최근 5년 최고치를 갱신

-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는 가운데, 구리는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도 최대 소비국 중국의 수요 확대와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긍정적 전망, 낮은 재고 등으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니켈은 인도네시아 지진에 따른 공급 우려로 최근 5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철광석은 중국내 제철소 가동률 증가에 따른 철광석 재고 감소로 가격 상승세

■ 1월 귀금속 지수는 145.1로 전월대비 1.1% 상승하였는데 금은 상승폭이 0.5%로 줄어든 반면 은과 백금은 전월대비 3.7%와 6.1% 상승

- 2021년에는 세계 각국이 탄소제로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태양광 패널과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은 수요와 수소연료전지의 촉매제 등으로 이용되는 백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8]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주: 가격지수는 각 품목의 2010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

자료: 세계은행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0년 11월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두자리수 감소율

-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59.1%를 차지하는데,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0.5%)과 2020년(-12.2%) 연속으로 감소(1~11월 기준)
- 11월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산업부문 생산활동 감소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했으며,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석유, 석탄은 감소하고, 가스 소비량은 1.7% 증가
 - 1~11월의 누적 소비량에서는 모든 에너지원이 감소했으나, 가스 소비량의 감소가 가장 작으며 석탄 소비량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 최종에너지는 일차에너지 중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미

[표 4]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toe, %)

	2018	2019		2020p				
		1~11월	11월	1~11월	10월	11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계	143,498	130,228	12,062	114,290	11,218	10,850	-10.0	-3.3
전년동기대비	0.7	-0.5	2.0	-12.2				0
석탄	32,049	29,080	2,640	25,014	2,612	2,505	-5.1	-4.1
석유	69,294	62,872	5,942	55,755	5,318	4,906	-17.4	-7.7
가스	11,066	10,365	998	9,219	947	1,015	1.7	7.2
전력	24,399	22,028	1,958	19,140	1,851	1,928	-1.5	4.2
신재생 및 기타	6,691	5,883	523	5,162	489	495	-5.4	1.2

주 : 2020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통계월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2020년 12월 전력판매량은 동계 난방수요로 인해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소폭 증가

- 12월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했으며 가정부문은 6.4%, 공공부문은 0.5%, 산업부문은 0.3% 증가한 데 비해, 서비스부문은 1.3% 하락
 - 서비스부문은 생산활동 감소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가 난방수요 증가를 상쇄한 것으로 추정

- 2020년 전체 전력판매량은 2년 연속 감소하여 전년대비 2.2% 하락했는데, 2019년 전력수요 감소는 기후요인이 컸던데 비해, 2020년에는 산업부문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요부진이 주요 요인

- 2020년 산업부문 전력판매량은 전년대비 4.0%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도 2.0% 감소

[표 5] 부문별 전력판매량

(단위: GWh, %)

	2018	2019		2020 ^p				
		1~12월	12월	1~12월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계	526,149	520,499	44,732	509,270	41,147	45,027	0.7	9.4
전년동기대비	3.6	-1.1	-1.3	-2.2				
가정부문	70,687	70,455	5,824	74,073	5,822	6,194	6.4	6.4
공공부문	24,569	24,458	2,330	23,623	1,909	2,342	0.5	22.7
서비스부문	147,189	145,816	12,945	142,881	10,996	12,781	-1.3	16.2
산업부문	283,704	283,705	23,632	268,692	22,420	23,710	0.3	5.8

주 : 2020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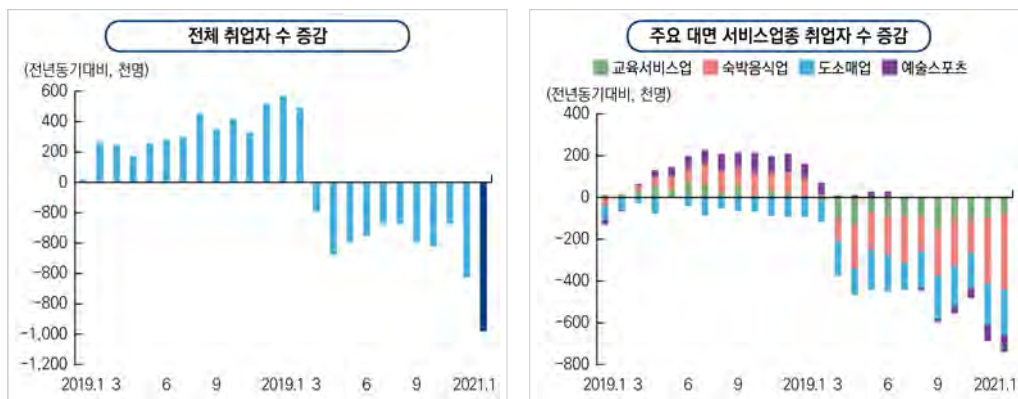
4. 고용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수 감소 폭이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확대되며 고용이 부진

- 1월 중 전체 취업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1월 중 전체 취업자수(2,58.1만명)는 전년동월대비 98.2만 명(-3.7%) 감소하여 전월(-62.8만 명, -2.3%)에 이어 감소폭이 큰 폭으로 확대
-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기간 중 월 평균 100만명을 상회하는 고용감소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종료에 따른 일시적 요인, 전년동월의 양호한 고용 증가폭(56.8만명)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그림 19] 전체 취업자 수 및 대면서비스 업종의 월별 고용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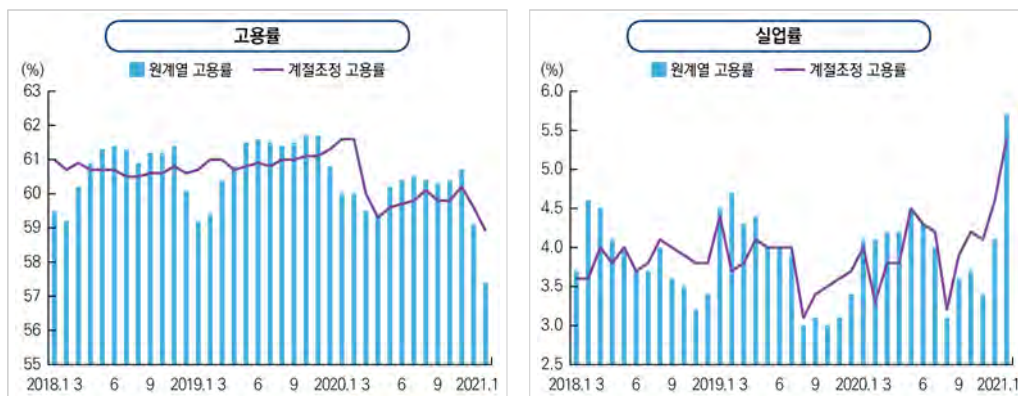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2.6%p 하락하여 전월(59.1%, -1.7%p)보다 하락폭이 확대

- 계절조정 고용률은 58.9%로 전월대비 0.7%p 하락하여 전월(59.6%, -0.6%p)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가 유지됨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4.3%로 전년동월대비 2.4%p 하락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5.7%로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상승폭도 확대

- 계절조정 실업률은 5.4%로 전월대비 0.9%p 상승
- 실업자는 157.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7만명(36.2%) 증가하여 전월(113.5만 명, 전년동월대비 19.4만 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

[그림 20]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제조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소폭 완화되었으나, 건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서비스업은 코로나 19 3차 확산이 시작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폭이 크게 확대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폭설, 한파 등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년동월대비 2.0만 명 감소를 기록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0.6 → (9월)5.6 → (10월)3.6 → (11월)7.7 → (12월)2.3 → ('21.1월)-2.0

■ 제조업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추세적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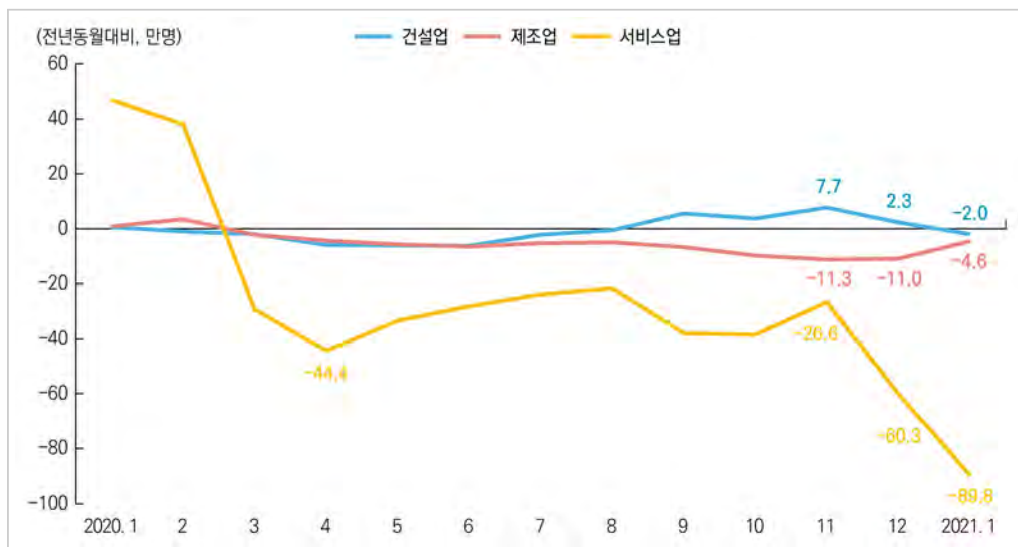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5.0 → (9월)-6.8 → (10월)-9.8 → (11월)-11.3 → (12월)-11.0 → ('21.1월)-4.6

■ 서비스업은 코로나19 3차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종료와 2021년 재개 간 시차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21.4 → (9월)-38.0 → (10월)-38.3 → (11월)-27.0 → (12월)-60.3 → ('21.1월)-89.8
-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⁶⁾: ('20.8월)-31.0 → (9월)-47.4 → (10월)-48.1 → (11월)-39.7 → (12월)-71.1 → ('21.1월)-91.8
-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21.8만 명), 숙박음식점업(-36.7만 명)에서의 감소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보건사회복지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공공행정업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는데, 이는 2020년 재정일자리 종료와 2021년 재개 간 시차로 인한 현상인 것으로 보임

6)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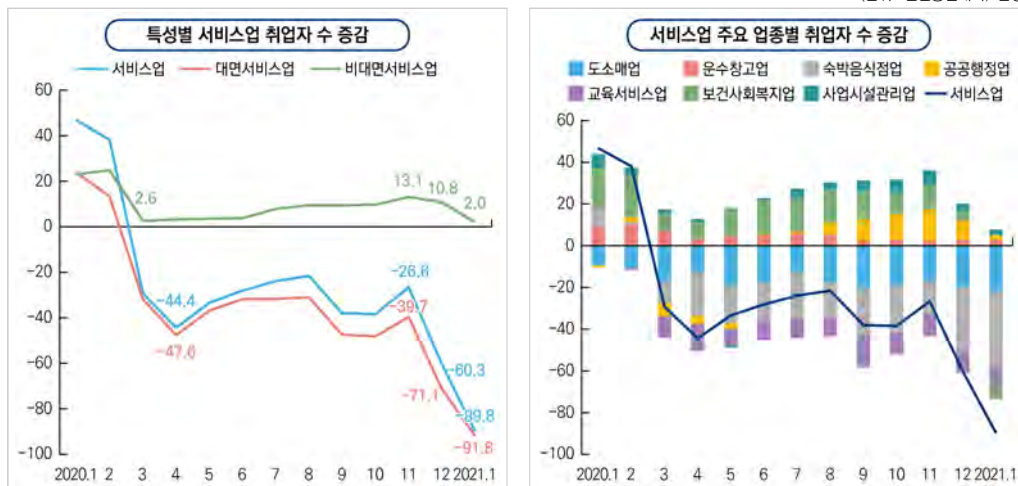
[그림 21]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로는 2개월 연속 전 연령대에서 고용상황이 위축되어 청년과 40대, 50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폭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하였고, 60세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13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청년층(15~29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등의 부진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

- 청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17.2 → (9월)-21.8 → (10월)-25.0 → (11월)-24.3 → (12월)-30.1 → ('21.1월)-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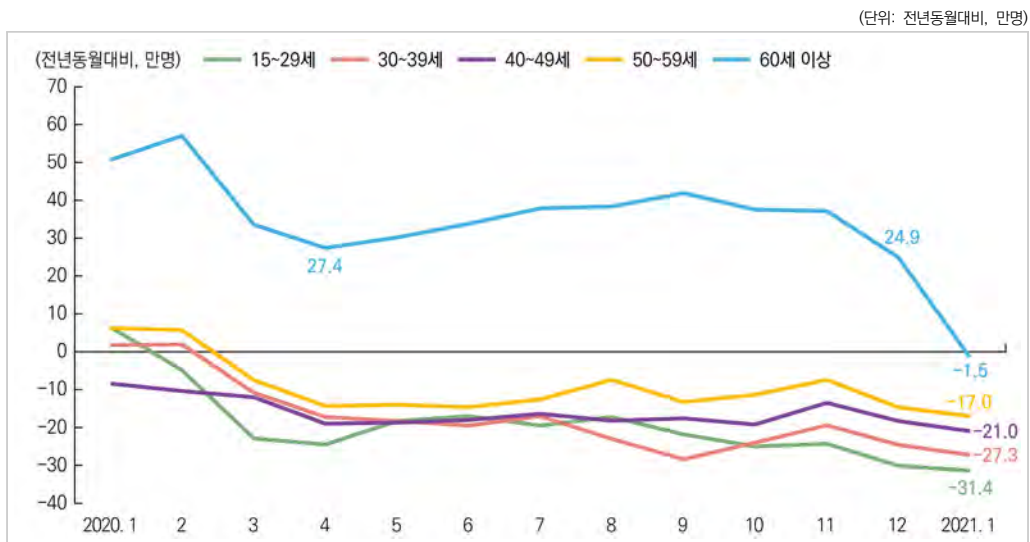
■ 30~50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2개월 연속 확대되며 65.3만 명 감소를 기록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48.6 → (9월)-59.3 → (10월)-54.6 → (11월)-40.3 → (12월)-57.6 → ('21.1월)-65.3
- 40대와 5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재정일자리 종료와 재개 간 시차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 명을 기록하며 2010년 3월 이후 13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38.4 → (9월)41.9 → (10월)37.5 → (11월)37.3 → (12월)24.9 → ('21.1월)-1.5

[그림 23]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 임시일용직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2개월 연속 크게 확대되어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이 종사상지위별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양상

■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6만 명 증가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소폭 확대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28.2 → (9월)9.6 → (10월)1.4 → (11월)3.8 → (12월)0.5 → ('21.1월)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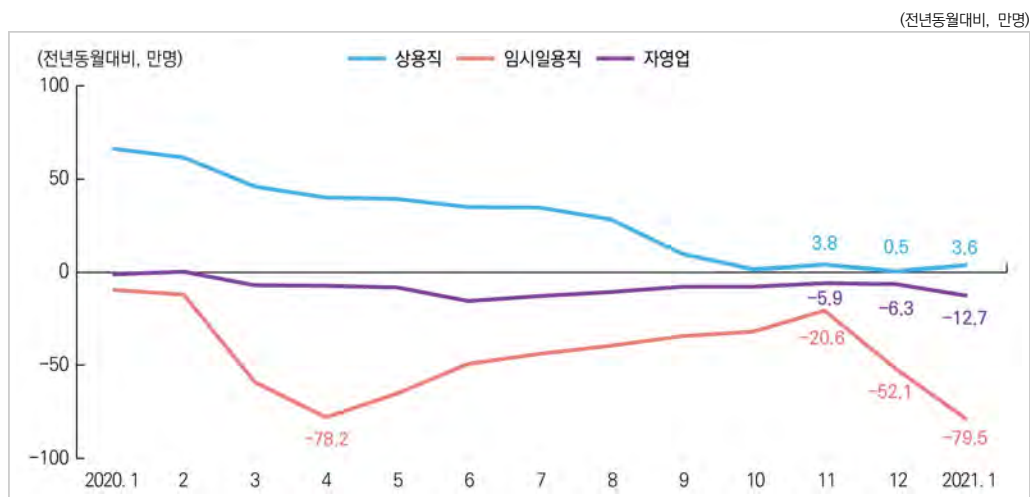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이 반영된 2020년 12월부터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 1월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39.6 → (9월)-34.5 → (10월)-32.0 → (11월)-20.6 → (12월)-52.1 → ('21.1월)-79.5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감소에는 재정일자리사업의 종료 · 재개 간 시차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이 종사상지위별로 차별적이며 임시일용직의 고용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7만 명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

-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8월)-10.7 → (9월)-7.8 → (10월)-7.8 → (11월)-5.9 → (12월)-6.3 → ('21.1월)-12.7

[그림 2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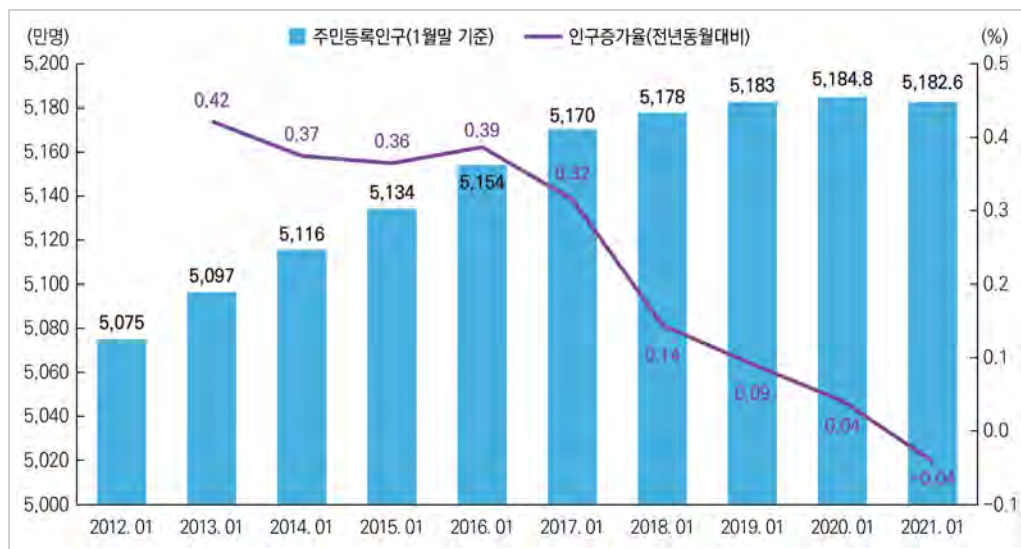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인구

2021년 1월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 (-0.04%) 감소

- 각 연도 1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3년 0.42%, 2015년 0.36%, 2020년 0.04%, 2021년 -0.04%로 계속 하락

[그림 25]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1~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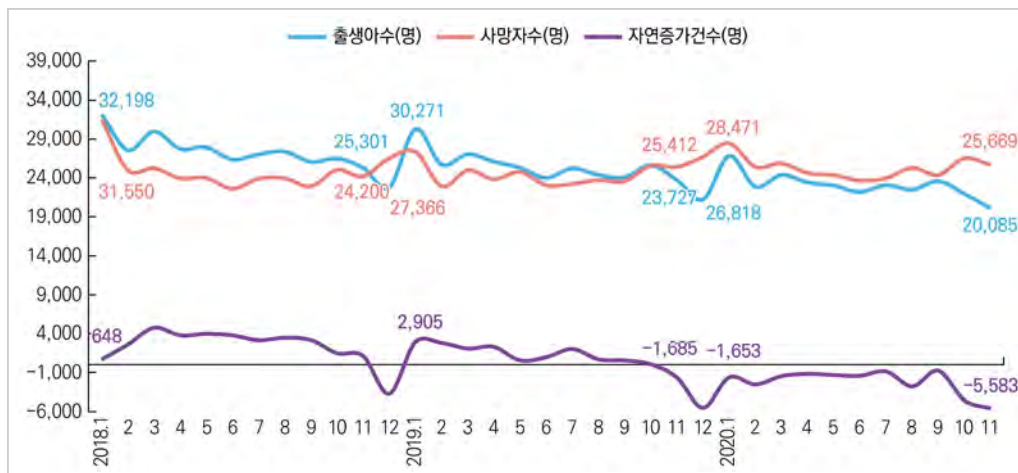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년 11월 출생아 수는 관련통계(월간) 작성 이래 최저치이며, 1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 2020년 11월 출생아 수는 20,085명, 전년동월대비 3,642명(-15.3%) 감소
- 2020년 11월 사망자 수는 25,669명, 전년동월대비 257명(1.0%) 감소
-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5,583명 많아서 2019년 11월 이후 1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26]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생아 수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최근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음

- 2020년 11월 혼인건수는 1만 8,7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11건(-10.3%) 감소,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4.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명 감소
 - 2020년 1월~11월간 혼인건수는 19만 1,37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
- 2020년 하반기 이후 출생아 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2019년 9월~2020년 4월까지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이 평년 대비 특히 감소

[그림 27]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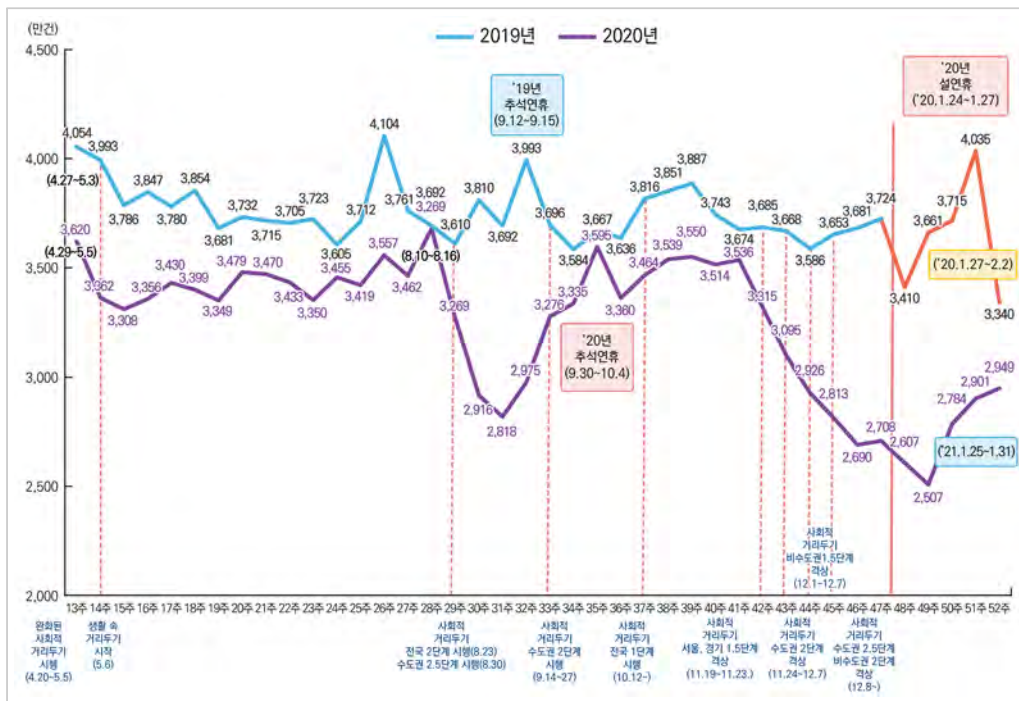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2020.12.7)⁷⁾ 이후 인구이동량은 1월 둘째주(1.4~1.8)까지 큰 폭으로 감소, 1월 셋째 주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

■ 통계청의 분석⁸⁾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52주차(21.1.25~1.31) 일평균 이동량은 2,949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 전주(51주차:21.1.18~1.24)대비로는 1.7% 증가

■ 주중 확진자수 감소와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월 셋째 주(1.11~1.17) 이후 인구이동량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 코로나19 발생 48주차 이후 인구이동량: 48주차(20.12.28~21.1.3) 2,607만건 → 49주차(21.1.4~21.1.10) 2,507만건 → 50주차(21.1.11~21.1.17) 2,784만건 → 51주차(21.1.18~21.1.24) 2,901만건 → 52주차(21.1.25~21.1.31) 2,949만건

[그림 28]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량 추이



자료: 통계청

7) 2020년 12월 7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 바 있으며, 2020년 2월 현재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음.

8) 통계청은 SKT 통신사 모바일 가입자 약 2,200만 명의 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중과 주말의 인구이동량을 추정하고 발표하고 있음. 본인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타 시군구를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건수로 집계하며, 집계된 이동건수를 전체 인구에 대한 SKT 가입자의 지역/성/연령 비율(가중치)을 적용하여 전체 이동량으로 추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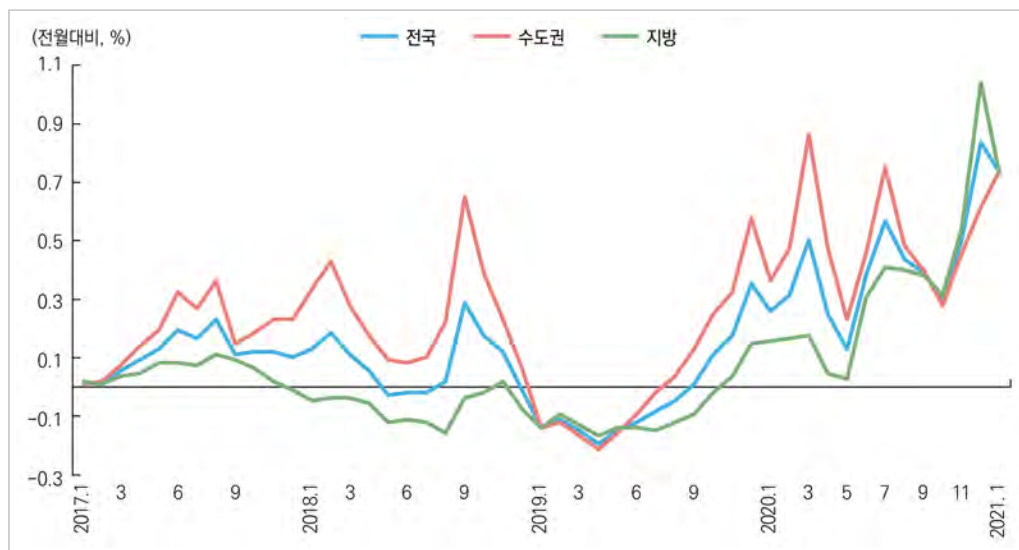
6. 부동산

2021년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79%, 수도권 0.80%, 지방은 0.78%로 지난달에 비해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의 상승폭이 축소

- 수도권은 저금리 유동성,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
- 지방은 울산 1.52%, 부산 1.34%, 대구와 대전이 1.15%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29]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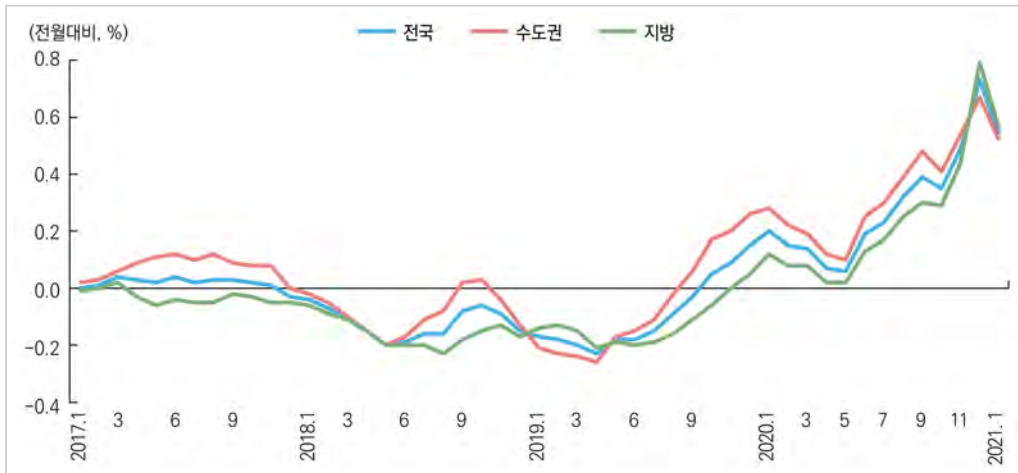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0.54%로 전월(0.73%)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저금리, 거주요건 강화, 임대차 2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여건 및 학군 양호지역 위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 축소
- 지방은 세종 4.66%, 울산 1.34%, 대전 1.23%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30]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2020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2020년 한해 동안의 주택거래량은 2006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 기록

■ 주택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0.1%,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한 14만 281건

- 수도권(6.3만건)은 전월대비 53.7% 증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지방(7.7만건)은 전월대비 1.9% 증가, 전년동월대비 37.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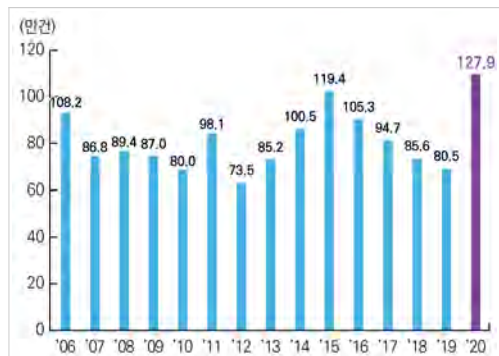
■ 2020년도 주택거래량은 127만 9,305건으로 주택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 기록

[그림 31]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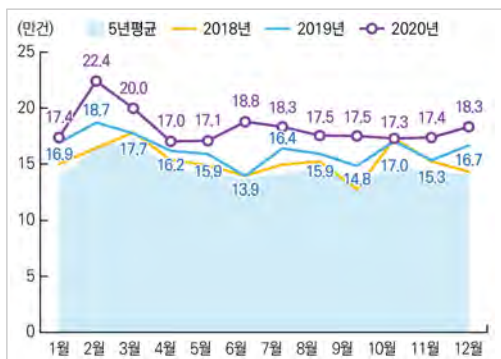
[그림 32] 연도별 12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 전월세 거래량은 18만 3,230건으로 전월대비 5.6% 증가,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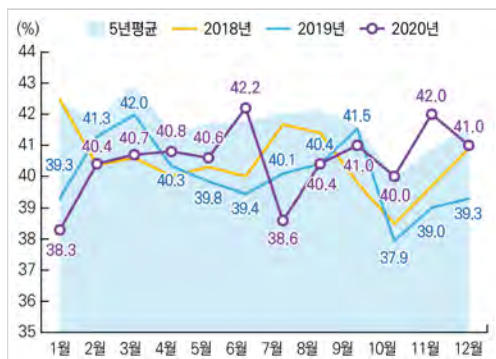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0%로 전월대비 1.0%p 감소, 전년동월대비 1.7%p 증가

[그림 33]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34] 월별 전국 월세 비중



III.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미국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과 소비 등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백신 보급,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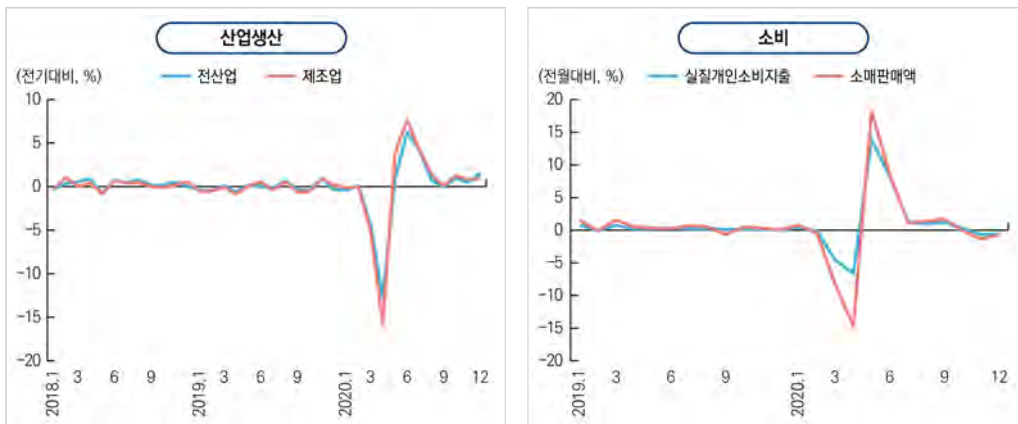
■ 12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1월 중 ISM 제조업구매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하락

- 전산업생산(전월비, %): ('20. 10월)1.0 → (11월)0.5 → (12월)1.6
- 제조업생산(전월비, %): ('20. 10월)1.3 → (11월)0.8 → (12월)0.9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구매자지수는 1월 중 58.7로 전월(60.7)에 비해 하락

■ 소비관련 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되었고, 소매판매는 3개월 연속 감소하며 부진

- 실질개인소비지출은 12월 중 전월대비 0.6% 감소하여 전월(-0.7%)의 감소세가 유지되었고,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7%로 전월(-1.4%)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3개월 연속 감소 지속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1월 중 89.3로 전월(88.6)보다 소폭 반등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부진

[그림 1]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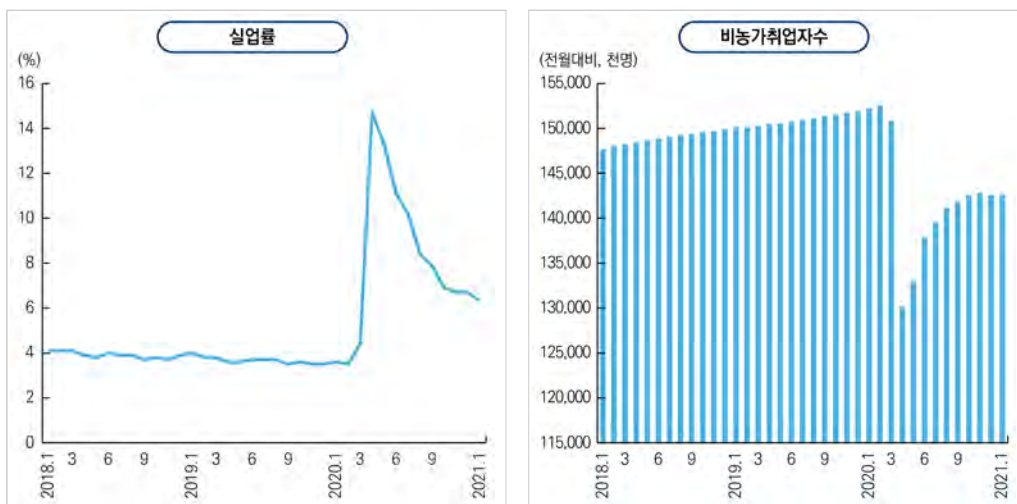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노동시장은 정체되었던 실업률이 하락하고 전월 감소 전환되었던 비농가취업자수도 소폭 증가 전환

- 1월 중 실업률은 6.3%로 전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의 감소(-22.7만 명)에서 벗어나 4.9만 명 증가
- 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억 4,263.1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2월(1억 5,252.3만 명)에 비해 6.9%(989.2만 명) 감소한 상황
- 실업률(%): ('20.11월)6.7 → (12월)6.7 → ('21. 1월)6.3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0.11월)26.4 → (11월)-22.7 → ('21. 1월)4.9

[그림 2] 미국 주요 고용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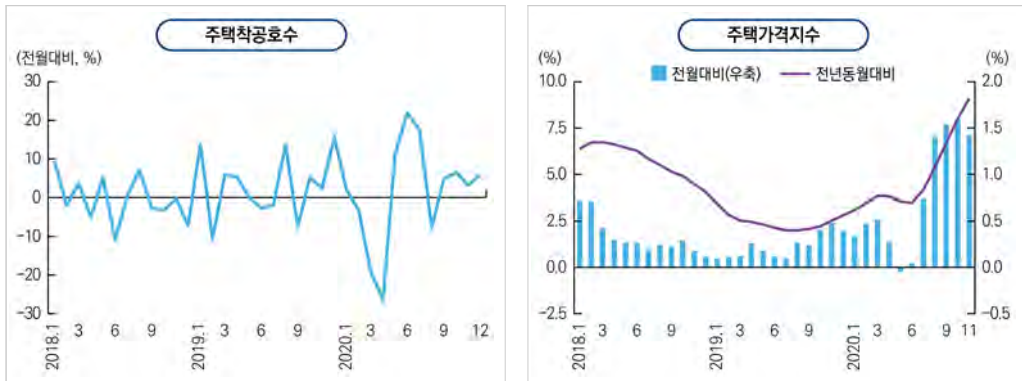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주택시장은 주택착공호수가 전월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주택가격은 기록적인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4개월 연속 지속

- 주택착공호수는 12월 중 전월대비 5.8% 늘어 4개월 연속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되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 주택가격(S&P/Case-Shiller지수기준)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11월 중 전월대비 1.4%(전년동월대비 9.1%)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

* 주택담보대출금리(30년만기 고정금리, 월말 기준, %): ('20. 3월)3.50 → (6월)3.13 → (9월)2.90 → (12월)2.67 → ('21.1월)2.73

[그림 3] 미국 주택착공호수 및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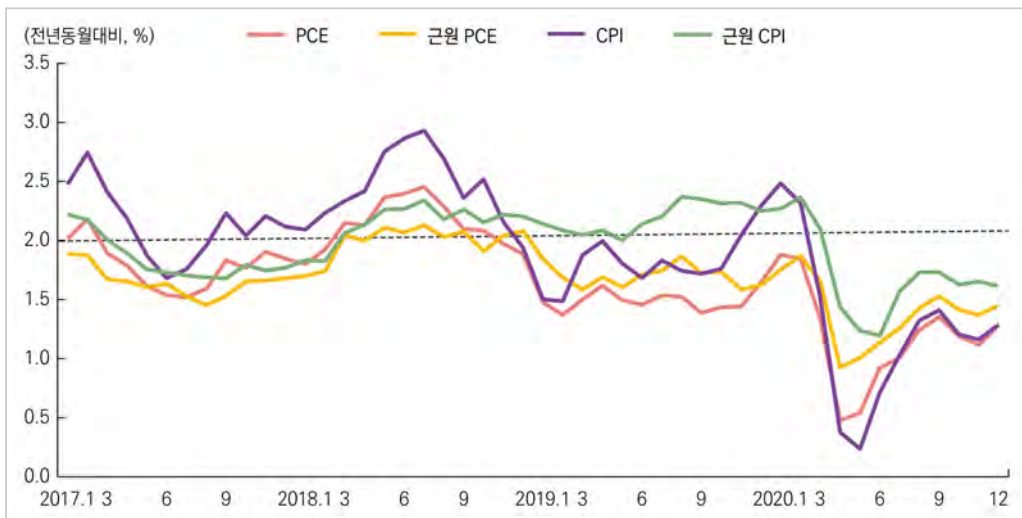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물가는 1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PCE물가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소폭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상승 흐름은 지난 9월 이후 여전히 주춤한 상황

- 1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전월(1.2%)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확대 되었고, PCE물가상승률도 1.3%로 전월(1.1%)에 비해 0.2%p 상승
- 근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전월(1.7%)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근원PCE물가상승률은 1.5%로 전월(1.4%)에 비해 소폭 상승

[그림 4]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시장금리는 1월 중 10년물 국채금리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제로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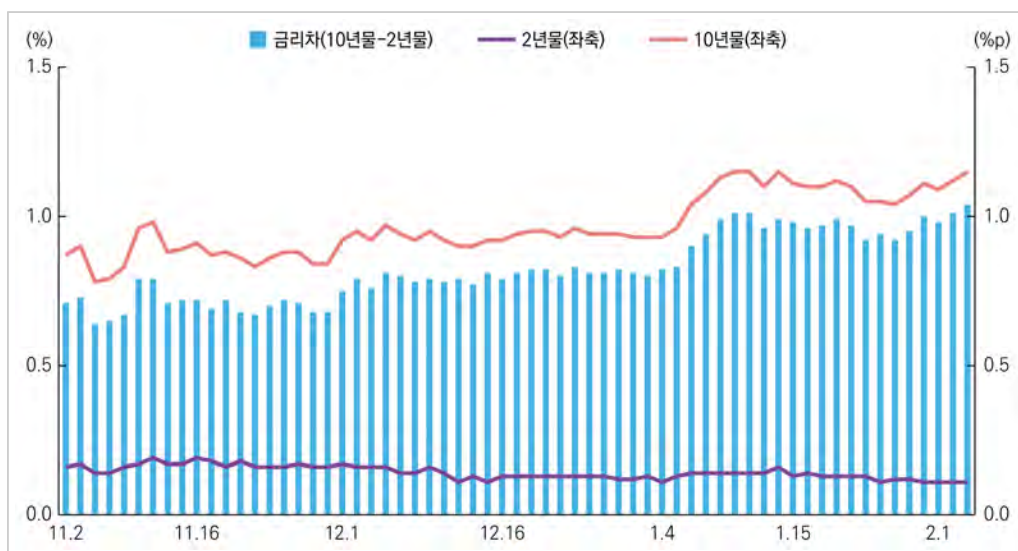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1월 들어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월말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며 일평균 1.08%를 기록하여 전월(0.93%)대비 0.15%p 상승
-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제로금리 기조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전월(0.14%)대비 0.01%p 하락한 0.13%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10년물과의 기간금리차는 0.95%p로 전월보다 0.16%p 확대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0.11월)0.70 → (12월)0.79 → ('21.1월)0.95

*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이 2월 5일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2~3월 중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미연준은 1월 26~27일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최근 들어 12월까지 경제활동과 고용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고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 활동이 백신접종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

[그림 5]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의 일별 추이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BOX1〉 미국의 2020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속보치)

■ 미국의 지난해 4/4분기 실질 GDP는 4.0%(전기비 연율) 증가하였으나, 연간으로는 -3.5% 감소하며 지난 1946년(-11.6%)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

- 2020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소비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3/4분기(33.4%)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됨
- 개인소비는 상품소비 감소(-0.4%)에도 서비스소비(4.0%)가 늘며 2.5% 증가
- 민간투자는 전기에 비해 증가폭은 줄었으나, 비주택(구조물+설비+지식재생산산물)투자 및 주택투자에서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
 - 비주택투자(13.8%)는 설비투자(24.9%)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주택투자(33.5%)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며 빠르게 회복
- 수출은 22.0% 증가하였으나 내수증가로 수입이 29.5% 늘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기(-3.21%p)에 이어 마이너스 기록(-1.52%p)
- 정부지출은 코로나19 재정지원법(CARES Act) 관련 지원 프로그램 종료의 영향으로 전분기(-4.8%)에 이어 1.2% 감소

〈미국의 주요 지출부문별 실질GDP성장률〉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성장률 ¹⁾		3.0	2.2	-3.5	-5.0	-31.4	33.4	4.0
지출 항목별 성장률	개인소비	2.7	2.4	-3.9	-6.9	-33.2	41.0	2.5
	민간투자	6.3	1.7	-5.3	-9.0	-46.6	86.3	25.3
	(비주택투자)	7.4	2.9	-4.0	-6.7	-27.2	22.9	13.8
	(주택투자)	-1.5	-1.7	5.9	19.0	-35.6	63.0	33.5
	수출	3.0	-0.1	-13.0	-9.5	-64.4	59.6	22.0
	수입	4.4	1.1	-9.3	-15.0	-54.1	93.1	29.5
	정부지출	1.8	2.3	1.1	1.3	2.5	-4.8	-1.2

주: 1) 전기대비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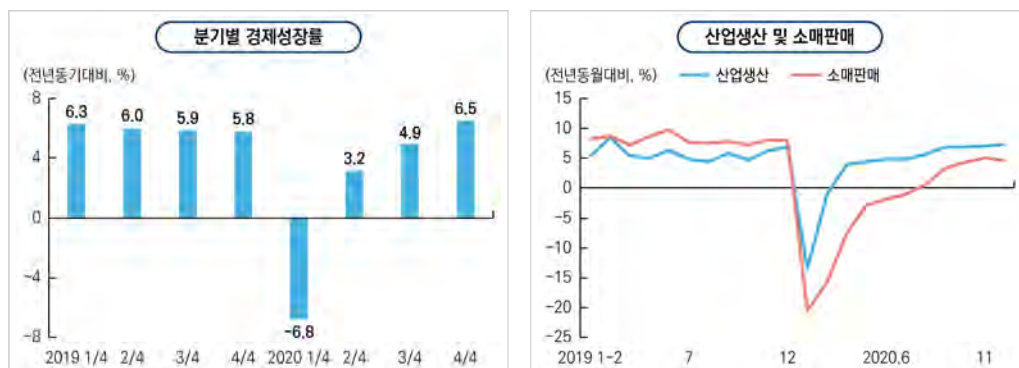
자료: BEA

2. 중국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

- 2020년 4분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대비 6.5%(2020년 연간 기준으로는 2.3%) 증가하였으며, 2020년 연간 GDP 규모는 101.6조 위안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돌파
- 2020년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3%로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며 전월(5.0%) 대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
- 2020년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9%(동년 누적치)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 9월 이후 건설투자 부문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중국 실물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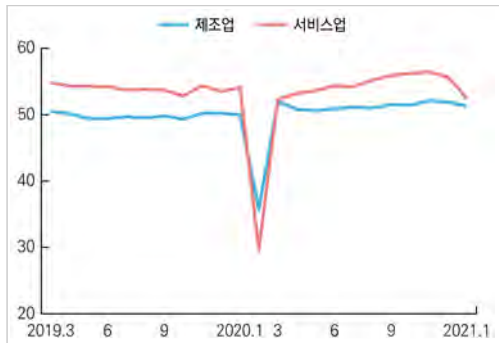


자료: CEIC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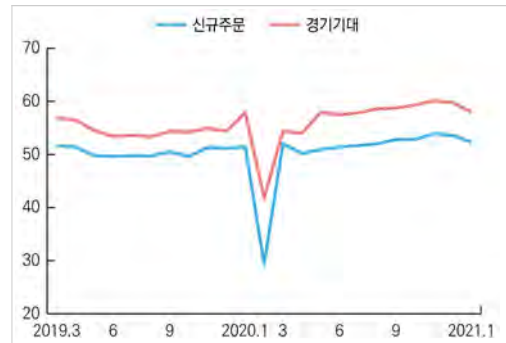
- 2020년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연간 2.5% 상승하였으며, 2021년 1월 중국의 종합 PMI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11개월 연속 임계치인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연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2.9%)보다 낮은 2.5%를 기록하며 2020년 물가상승률 목표치(3.5%)는 달성하지 못함
 - 2021년 1월 종합 PMI는 제조업(51.3)과 서비스업(52.4) 모두 동반 하락하며 전월(55.1)보다 낮아진 52.8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던 2020년 2월(28.9) 이후 계속해서 50 이상을 유지 중
 - 2021년 1월 제조업 부문 신규주문지수(52.3)와 경기기대지수(57.9)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제조업 부문에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그림 7]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제조업 신규주문 및 경기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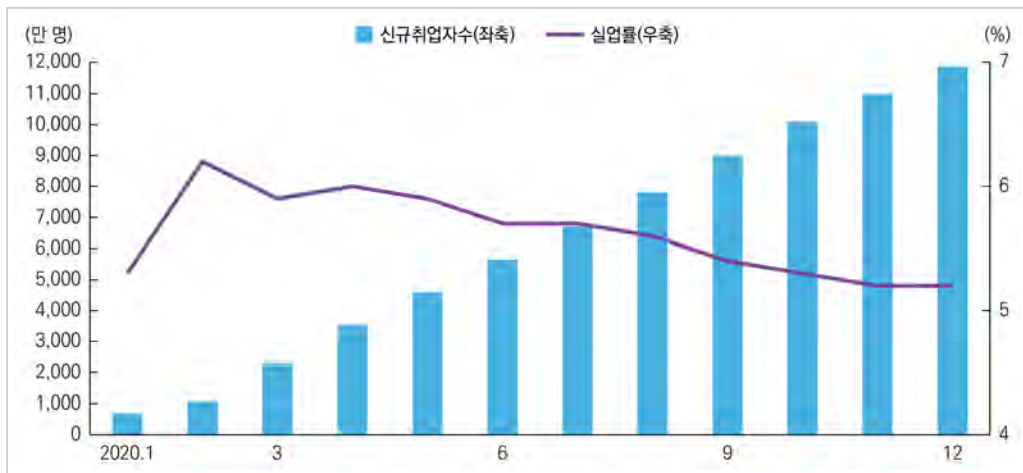


자료: CEIC

■ 2020년 12월 중국의 실업률(도시지역)은 5.2%로 전월과 동일한 연중 최저치를 기록

- 2020년 12월 중국의 누적 신규취업자수(도시지역)는 1,18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하였으나, 2020년 5월 양회에서 제시한 2020년 고용창출목표(900만 명)는 초과 달성

[그림 9] 중국 실업률 및 신규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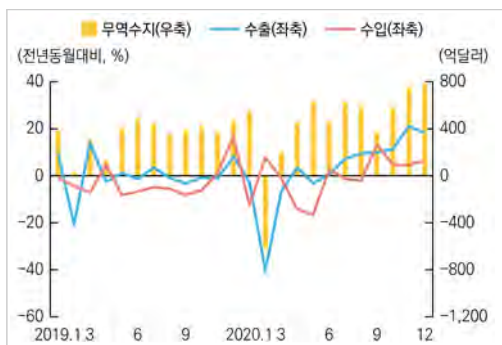


자료: CEIC

■ 2020년 중국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액은 5,350억 달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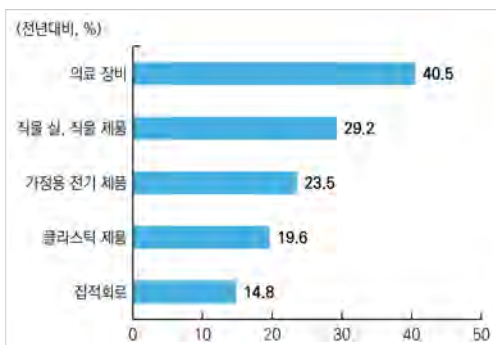
- 2020년 12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1% 증가하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총 무역수지 흑자액은 782억 달러로 전월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의료기기(40.5%)와 가전용 전기제품(23.5%)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영향

[그림 10]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11] 중국 연간 수출 증가율 상위 5개 품목



자료: 해관총서

3.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조치로 4/4분기 GDP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실물지표 개선세도 여전히 미흡한 모습

■ 유로지역의 4/4분기 GDP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분기 큰 폭 반등(전기대비 12.4%)에서 0.7%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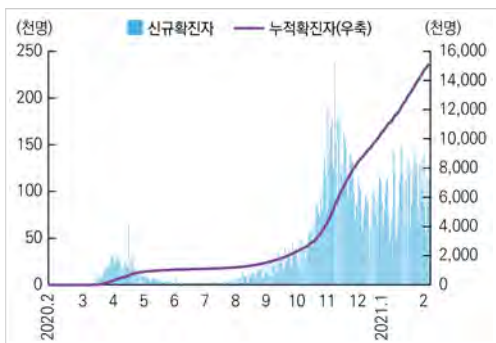
- 유로지역 GDP 성장률(전기대비, %): ('20.1/4)-3.7 → (2/4)-11.7 → (3/4)12.4 → (4/4)-0.7
- 유로지역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0.1/4)-3.2 → (2/4)-14.7 → (3/4)-4.3 → (4/4)-5.1
- 유로지역 국가별 4/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 스페인(0.4), 독일(0.1), 프랑스(-1.3), 이탈리아(-2.0)

[그림 12] 유로지역 GDP성장률 추이



자료: Eurostat

[그림 13] 유로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자료: Our World in Data, Oxford

■ 11월 중 산업생산은 주요국 산업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산업생산⁹⁾이 52.8% 증가한 데 기인하여 증가

- 부문별로는 에너지(-3.9%)와 내구재(-1.2%)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중간재(2.1%), 자본재(2.6%)는 증가
- 산업생산(전월대비, %): ('20.9월)0.2 → (10월)2.3 → (11월)2.5
- 국가별 산업생산(전월대비, %): 독일(0.8), 프랑스(-0.9), 이탈리아(-1.4), 스페인(-0.6)

■ 12월 중 소매판매는 일부국가들의 봉쇄조치 완화로 외부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 등으로 의복, 신발 판매가 전월대비 12.4%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2.0% 증가 전환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0.10월)1.4 → (11월)-5.7 → (12월)2.0
- 12월 중 부문별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섬유·의류 및 신발(12.4), 음식료품(1.9%), 전자기기 및 가구(-7.0), 컴퓨터 및 서적(-1.4), 의약품(-2.9), 메일 및 인터넷판매(-2.7)

[그림 14]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5]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7월 중 정점을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

- 11월 중 유로지역 실업률은 8.3%로 7월 8.7%에서 4개월 연속 하락세
- 11월 중 청년실업률은 18.4%로 9월(17.9%) 이후 2개월 연속 상승

■ 2021년 1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 내림세 둔화, 봉쇄조치 등으로 이어되었던 소비 재개에 따른 공산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5개월 연속 하락에서 상승 전환

9) 코로나19로 인한 계절조정 모형 수정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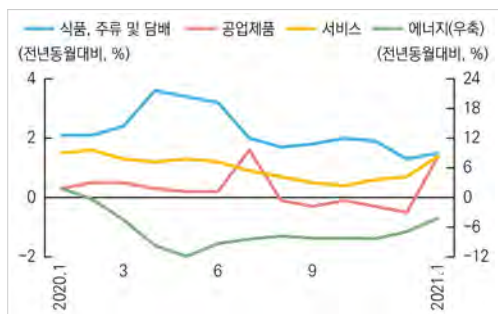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¹⁰⁾ 종료에 따라 독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6%를 기록 (2020년 12월 -0.7% 대비 2.3%p 상승)
- 공산품과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상승률은 1.4%를 나타냄

[그림 16]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7]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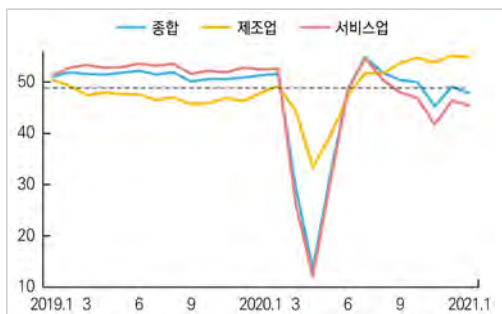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urostat

■ 2021년 1월 중 유로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하락하며 종합 PMI는 전월에 비해 1.3p 하락한 47.8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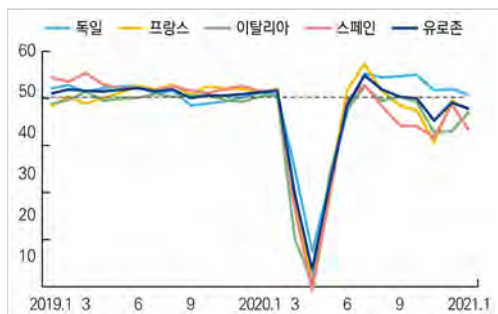
- 봉쇄조치의 영향 등으로 제조업 PMI는 0.4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54.8)하며 확장 국면 유지
- 서비스업 PMI는 변이 바이러스 발견, 일부국가의 봉쇄조치 지속 및 강화 등으로 1.0p 하락한 45.4 기록
-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 PMI가 하락하였으며, 겨울 폭풍과 폭설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43.2)과 브렉시트 전환의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40.3)의 PMI가 낮은 수준을 기록

[그림 18]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9]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10) 독일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일반 세율: 19% → 16%, 생필품 등에 대한 감면 세율: 7% → 5%)

4. 일본

일본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생산 및 고용여건 부진으로 실물경기가 위축되는 모습

■ 2020년 4/4분기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속보치)은 전기대비 3.0% 증가하였으나 2020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4.8% 감소하여 지난 2009년(-5.7%)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냄

- 4/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전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주택투자와 비주택투자도 각각 0.1%, 4.5% 증가
- 4/4분기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전기대비 11.1% 증가했으며 수입도 4.1% 증가
- 반면 2020년 연간으로는 민간소비는 5.9% 감소, 주택투자와 비주택투자는 각각 7.1%, 5.8% 감소를 나타냄
- 2020년 연간 수출과 수입도 각각 12.3%, 6.8% 감소

[그림 20] 일본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자료: 내각부

[그림 21] 일본 연간 GDP 성장률 추이



자료: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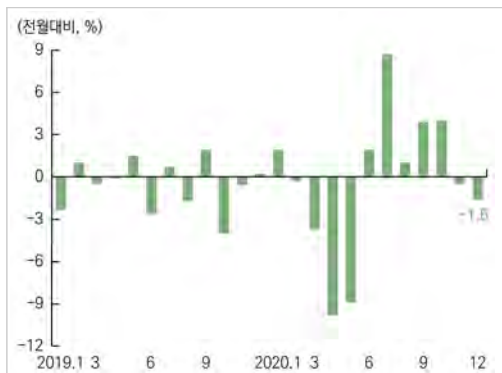
■ 12월 중 광공업 생산은 무기·유기화학공업(2.2%), 석유·석탄제품공업(3.2%)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공업(-3.0%), 범용·업무용 기계공업(-11.7%)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

- 출하(-1.6%)가 줄고 재고(1.1%)가 늘어 재고율은 2.0% 상승

■ 12월 중 비농업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서비스(-29만명), 도소매(-22만명)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58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2.9%를 기록

-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0.10월)-80 → (11월)-44 → (12월)-58
- 실업률(%): ('20.10월)3.1 → (11월)2.9 → (12월)2.9

[그림 22] 일본 광공업 생산증감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3]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 12월 중 소매판매액은 의복(5.8%), 각종상품(3.4%) 등에서 늘었으나 음식료품(-1.1%), 기계·기구(-2.0%) 등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0.8% 감소

- 한편, 12월 중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식료품(-1.2%), 전기·수도(-6.0%) 등에서 줄었으나 의복및신발(9.6%), 가구·가사용품(2.2%)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

■ 1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신선야채(-8.8%), 자동차등관련비용(-2.5%) 등을 중심으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1.2% 하락

- 지난 10월(-0.4%)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대비 0.4% 하락

[그림 24] 일본 가계실질소비지출과 소매판매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5]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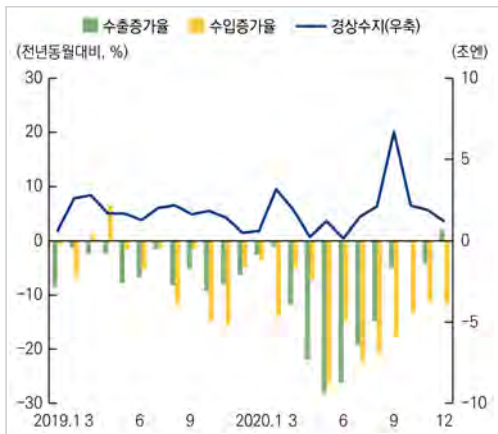
■ 12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고 수입은 11.6% 감소

- 12월 수출액은 6.7조원으로 2018년 11월(6.9조원) 이후 25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
- 수출 품목 중 수송용기기(-2.7%), 원료제품(-1.6%) 등이 감소하고 전기기기(6.6%), 일반기계(0.3%) 등이 증가
- 수입 품목 중에서는 식료품(-2.7%), 광물성원료(-36.3%) 등에서 감소
- 12월 경상수지는 1.1조원으로, 서비스수지(-3,435억엔)의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9,651억엔) 개선으로 흑자기조 유지
- 경상수지(억엔): ('20.10월)21,447 → (11월)18,784 → (12월)11,656

■ 2021년 1월 중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전월(48.5)에 비해 하락한 47.1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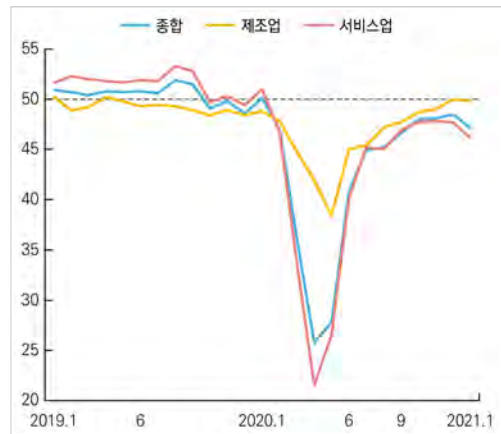
-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제2차 긴급사태' 발령('21.1.7.)으로 전월에 비해 하락하여 각각 49.8, 46.1을 나타냄

[그림 26]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재무성

[그림 27]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5. 인도

인도 경제는 하반기 봉쇄조치 완화 이후 생산활동이 정상화되고 내수 및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 조짐을 보임

■ 인도의 산업 생산은 2020년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였고, 소비자물가는 2020년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산업 생산증가율은 2020년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1%까지 상승했으며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6%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식품물가 상승¹¹⁾으로 2020년 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7.6%까지 상승했으나 정부의 식품 수량 제한조치, 양파·감자 수입 조치, 잠정적 수입 관세 인하 조치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되어 정책목표치 4%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냄

[그림 28] 인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Datastream

[그림 29] 인도 산업 생산증가율



자료: Datastream

■ 인도의 수출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했으나 2020년 4월에 가장 크게 하락한 이후에 하반기 회복세를 보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57.1%, 55.7% 하락
- 수출은 석유제품, 보석류, 의류 및 가죽류 등에서 30% 이상 감소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경제활동 재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8% 상승

11)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 10월 야채 가격 인상률은 전월(20.7%) 대비 22.5% 상승했으며, 10월의 식품 및 음료 가격 인상률은 10.16%로 집계

- 수입은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둔화로 인한 석유 및 석유제품에¹²⁾ 대한 수요 감소로 2020년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계속 보였으나, 12월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21년 1월 기준 4.6% 상승

■ 인도의 기준금리는 2021년 1월 기준 4.00%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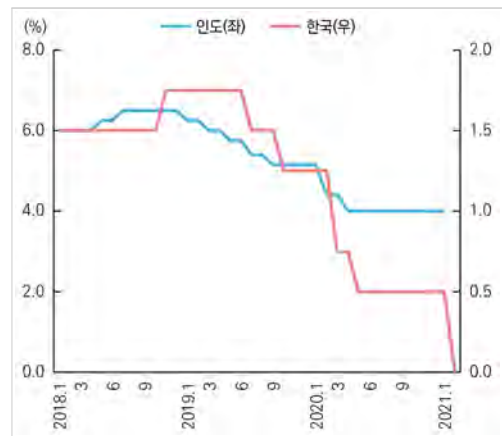
- 2020년 하반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인도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 시행이 제한적이었으며,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4%로 내린 뒤 동결 기조를 유지

[그림 30] 인도 수출·입 증가율



자료: Datastream

[그림 31] 인도 기준금리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12) 2019년 기준 인도 전체 수입량의 26.4%가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 2021년 2월에는 1월에 비하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확산세가 완화되는 추세

- 2월 15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915만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33만 9천명
 - 1월을 정점으로 전 대륙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남미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 감소가 더디게 나타나는 등 완화 추세의 지역별 차이가 있음
 - 대륙별 지역구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수와 신규 확진자수가 많은 지역은 “유럽 > 북미 > 아시아 > 남미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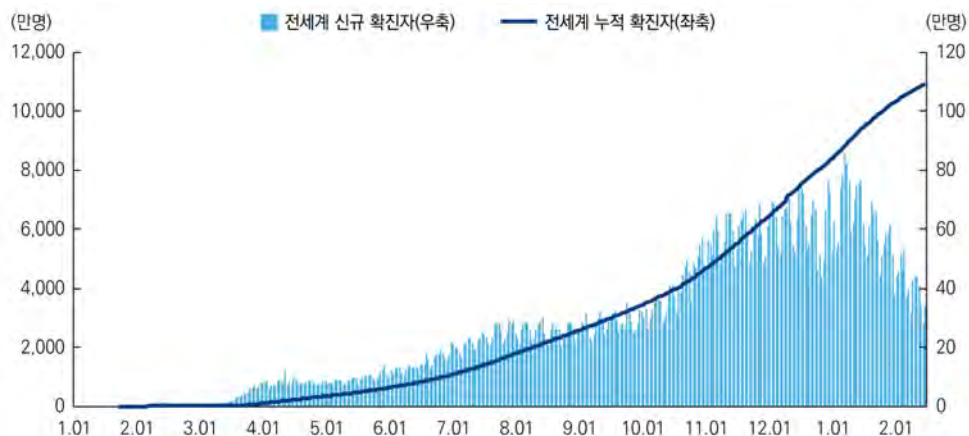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2.15.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일일)	109,156,825 (339,840)	32,500,970 (158,632)	31,784,024 (63,677)	24,113,526 (59,368)	16,962,278 (48,263)	3,763,067 (9,893)	32,239 (7)
사망 (일일)	2407,873 (7,877)	770,809 (4,014)	707,161 (1,534)	386,885 (701)	443,111 (1,156)	98,946 (471)	946 (1)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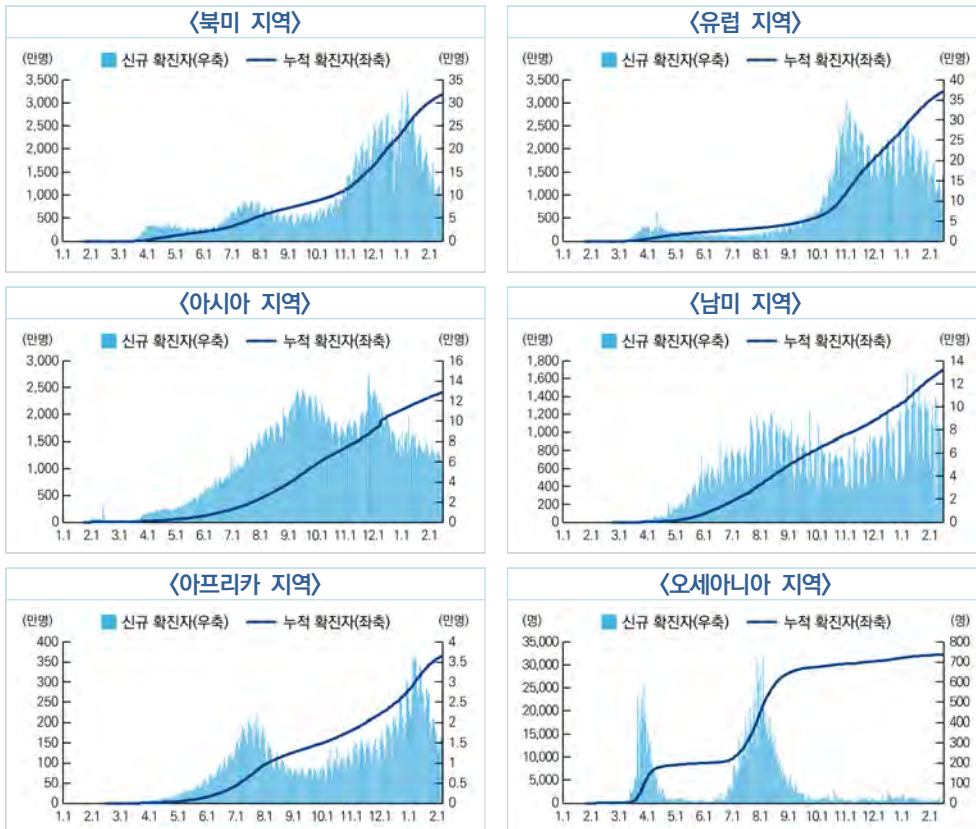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2.15. 현재)〉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북미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정되는 반면, 남미 지역은 확산세 완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북미)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는 1월을 정점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유럽)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 국가가 계속 봉쇄령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월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아시아 지역은 백만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북미와 유럽의 약 1/10 수준(5,197명)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대륙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월에 국지적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도 2월에는 진정세를 보임
- (남미) 1월에 비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확진자수 감소가 느리게 나타나는 추세
-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월을 정점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작년 7~8월의 2차 확산이 진정된 이후 금년 2월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어 안정적 수준을 유지



자료: WH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현황(1.17. 기준)]

연번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100만명당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	전세계	109,156,825	339,840	14,004	2,407,873	2.2
1	미국	27,694,165	53,883	83,668	486,325	1.8
2	인도	10,925,710	9,121	7,917	155,813	1.4
3	브라질	9,866,710	32,197	46,419	239,773	2.4
4	영국	4,059,696	9,776	59,802	117,622	2.9
5	러시아	4,040,505	13,999	27,687	79,210	2.0
6	프랑스	3,528,856	60,972	54,063	82,374	2.3
7	스페인	3,086,286	30,251	66,010	65,449	2.1
8	이탈리아	2,729,223	7,344	45,140	93,835	3.4
9	터키	2,594,128	7,945	30,758	27,562	1.1
10	독일	2,346,876	5,132	28,011	65,288	2.8
11	콜롬비아	2,198,549	3,510	43,208	57,786	2.6
12	아르헨티나	2,029,057	3,259	44,895	50,327	2.5
13	멕시코	1,995,892	3,098	15,480	174,657	8.8
14	폴란드	1,591,497	2,542	42,051	40,832	2.6
15	이란	1,526,023	7,760	18,168	59,028	3.9
16	남아공	1,492,909	1,102	25,171	48,094	3.2
17	우크라이나	1,319,060	2,540	30,161	25,702	1.9
18	페루	1,238,501	3,203	37,562	43,880	3.5
19	인도네시아	1,223,930	6,462	4,475	33,367	2.7
20	체코	1,090,860	2,851	101,864	18,250	1.7
21	네덜란드	1,046,381	2,840	61,067	14,963	1.4
22	캐나다	832,375	1,763	22,054	21,298	2.6
23	포르투갈	787,059	1,303	77,188	15,411	2.0
24	칠레	779,541	3,332	40,779	19,624	2.5
25	루마니아	763,294	1,331	39,677	19,445	2.5
26	벨기에	739,488	857	63,806	21,702	2.9
27	이스라엘	730,293	5,913	84,373	5,414	0.7
28	이라크	646,650	2,798	16,077	13,185	2.0
29	스웨덴	608,411	미집계	60,243	12,428	2.0
30	파키스탄	564,077	미집계	2,554	12,333	2.2
31	필리핀	550,860	1,684	5,027	11,517	2.1
32	스위스	543,207	2,480	62,765	9,776	1.8
33	방글라데시	541,038	446	3,285	8,285	1.5
34	모로코	478,595	121	12,966	8,491	1.8
35	오스트리아	434,712	1,225	48,267	8,221	1.9
36	세르비아	422,210	1,331	62,048	4,245	1.0
37	일본	417,127	973	3,298	7,038	1.7
38	헝가리	388,799	1,337	40,247	13,752	3.5
39	사우디아라비아	373,046	314	10,715	6,438	1.7
40	UAE	351,895	3,123	35,579	1,027	0.3
86	대한민국	84,325	456	1,645	1,534	1.8

주: 연번은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요 경제정책 동향]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14(목)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

- 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4조 7천억원을 투입하고, 15건의 뉴딜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
 -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한국판 뉴딜로 4.8조원을 반영하였고, 4.7조원을 집행
 - 뉴딜금융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등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①재정투자, ②법제도개선, ③뉴딜금융, ④소통강화 측면에서 2021년 한국판 뉴딜을 실행할 계획

① 2021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된 총 21.0조원을 차질없이 집행(디지털뉴딜: 7.6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강화: 5.4조원)

②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31개 법안)* 등 법·제도 정비추진

* 주요 법안: 디지털경제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등

③ 최대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 및 17.5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

④ 참여예산제도, 민관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의 아이디어 발굴

[그림]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타임라인

관계부처합동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디지털 뉴딜	DNA	• 데이터 컨트론타워 출범(1월) • 국민부터 서비스 개발(2월)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모(3월) •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모집 공고(3월) • 데이터 바우처 지원(3월)	• AI+X 7대 분야 사업 공모·선정(4월) • 중앙부처 수혜서비스 맞춤형(4월) • 생활밀착 선도서비스 학습(4월) • AI 제조 솔루션스토어 구축(6월)	•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5P) 수립(8월) • 복지행바심(개인·가구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 서비스 일부 개시(9월) • 살갑콘서트 공공·산업 현장예측 실증(7월) • AI 제조 솔루션스토어 운영(7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12월) • 온라인 게이밍 공연장 개편(12월) • 공공데이터 4.4단계 개방(12월, 자율주행, 헬스케어, 금융 등)
	비대면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공모(2월)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공모(2월)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3월)	•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공모(4월) • 타택에서 2.0(AI 정밀의료, SW) 사업 공모(5월)	• 디지털 돌봄 플랫폼 구축 정보화계획 수립(8월)	• 호스피스 전달플라너 1,000개소 확보(12월)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12월) • 초중등 일반교실(누적 27.2만실) 고성능 Wi-Fi 구축 완료(12월)
	SOC 디지털화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시범운영(3월, 김포공항) • 33개 시·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3월) • 스마트 그린산단 3개 신규 선정(3월)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 설계착수(4월) • C-ITS 설계·발주(6월) • 철도(경부, 호남고속)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설치 착수(6월)	• 도로 교량 IoT시스템 설치 착수(7월) • 천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착수(9월)	• 수도권 일반도로 C-ITS 구축(12월) • 전국 시·지하공간 통합지도 완료(12월)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시스템 구축(12월) • 전국 도상지 3D 지형도 구축(12월)
그린 뉴딜	인프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공고(1월) • 스마트 그린도시 업무협약(3월, 25개 지자체)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선정(5월) • 공공부문 Net-Zero 시범사업 가관 공모(6월)	• 국토환경 녹색배원 마스터플랜 수립(9월)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공모(9월)	• 해양생태계 세부 설정·관리방안 확정(12월) • AI 홍수예보 플랫폼 기본계획 수립(12월)
	에너지	• 친환경차 보조금 개선방안 발표(1월) • 미래차 보급정책 실행계획(1월) • 사업과 환경 소비자 간 전략구축제도(제3차 FPA) 도입(1월)	• 한국형 EV100 대상기업 선정(4월) • 한국형 RE100 시행(8월) • 태양광 R&D 센터(대전 유성) 확충(6월)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가관 개정(9월)	• 수소차 2만대 전량(12월) • 수소전문기업 최초 지정(12월) • 에너지 탄소중립 확산전략 마련(12월)
	생태계	•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개조(2월, 3개) •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3월) • 에너지 다변화사업 예비지정사업 공고(2월)	•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6월, 30개)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8월) • 스마트 생태광장 2차 선정사업 발표(5월, 30개)	• 녹색 유망기업 상용화 로드맵 수립(9월)	• 그린스타트업 타운(천안) 조성(12월) • 녹색융합플라자 기본계획 수립(12월)
안전망 강화	안전망	• 국유위험지지도 사업(1월) • 노인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부양가족자 가관 특제(1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수행가관 선정(1월)	• 고령인양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가시(4월) • 일코트 화상대피시스템 구축(5월) • 산재 적용제외 기준 개편 법령 정비(6월)	• 학교 고령보통 적용 시행(7월)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 적용(7월)	• 고령24 구급 계획(5P) 수립(12월)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 적용(7월)
	사람투자	• 초고숙 인턴(인턴) 구축 마일 선정(2월) • 그린분야 특성화고등학교 공고(3월)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대상기관 공모(3월) • K-Digital 창업준수평가관 통합 공모 공고(1월)	• AI 대학원(2개교) 및 KUR(사업단)2개교 선정(4월) • 디지털 배움터 운영(4월, 1,000개)	• 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공급기관 공모 공고(9월)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비과정(8-10월)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본과정(11월) • 전국인형상상 지원체계 마련(12월)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	• 지역뉴딜 투자설명회 개최(1월) • 뉴딜기업 대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1월~) • 지방제 한도초과 발행 회관 지자체 조사(2월)	• 지역균형 뉴딜 시도 대표사업 선정(3-4월) • 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5월) • 제5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6월)	• 시도 군특화계 차등지원 인센티브 배정(7월) • 뉴딜관련 국가지정협력 특별교부세 지원(7월~) • 매뉴얼식 규제특례 추가 발굴(9월)	• 지정제 발행 심의회 개최(10월) • 지역균형 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10월) • 지역특구별 지정(10월~)
	뉴딜펀드 등 지원체계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2월, 순차적 펀드 조성(3월)) • 국민참여형 공모펀드 출시(3월) • 뉴딜 인프라펀드 제2차 지원 법령 개정(3월)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자속) • 법제도개선 과제발굴 추진(자속)	• 2022년 한국판 뉴딜 정부 예산안 제출(9월)	•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 국회 확정(12월)

■ 1.27(수), 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발표

- '19.3월 장래인구추계 결과, 저출산 추세가 반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부는 '19.4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
 - 1기 TF('19.4월), 2기 TF('20.1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두 트랙으로 추진
- 앞선 인구정책 TF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
 - (인구감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6만명이나 사망자 수는 30.8만명
 - (지역소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여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은 공동화가 심화
 - * 2019년 수도권 인구는 2,592.5만명으로 전체인구 중 50%에 해당했으며, 2020년에는 더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할 것이라 전망
 - (초고령사회 압박)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
- 제3기 인구정책 TF는 위의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①인구절벽 충격 완화, ②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선제 대응, ④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
 - 주요내용은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완화, 가족 다양화,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재정지속가능성 강화, 인구통계 관리 및 분석·연구 기능 강화 등이 있음

■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

-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집값 상승기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가 겹쳐 내 집 마련 불안심리가 확산되었다고 평가
- 정부는 실수요 보호·투기수요 근절 등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산업구조 변화, 신기술 발전, 주거 트렌드 변화로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을 고려하여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물량·품질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는 입장
 - 기존 도심 내 주택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
 - 사업추진의 신속성,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주도 방식을 도입

〈기존 정비사업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차이(정부안)〉

	기존 정비사업		공공주도 정비사업
사업절차	조합 + 관리처분 방식	→	공기업 단독 + 현물선납 방식
	개별 심의	→	통합 심의
	평균 13년 소요	→	5년 이내 이주
사업내용	재건축시 공공임대 無	→	재건축시 5~10% 공공임대 의무화
	사업 리스크 조합원 부담	→	공기업이 리스크 전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2년 거주 의무	→	미적용

- 또한, 해당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2월 9일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추후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 1차관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하기로 합의
 - 이외에도 주택공급 담당부서의 조직 개편, LH 수도권특별본부 및 광역대도시권 지역 본부의 조직·인력 확충,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을 논의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nabo

경제·산업현안

- I.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업종별 주가변화 분석 86
- II.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94
- III.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102
- IV.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 109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에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업종별 주가변화 분석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박승호 경제분석관(6788-4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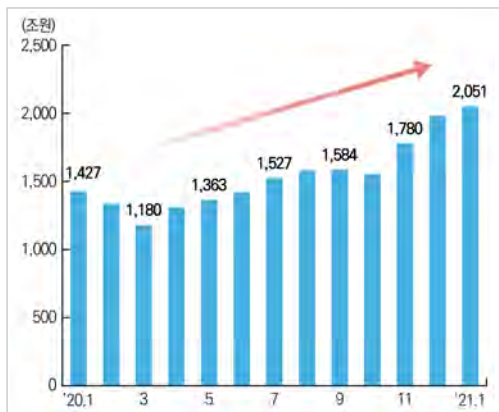
1. 기업규모별¹⁾ 주가 분석

1) 기업규모별 시가총액 변화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전체 시가총액은 624조원 증가한 가운데, 동기간 기업규모별로는 대형주 시가총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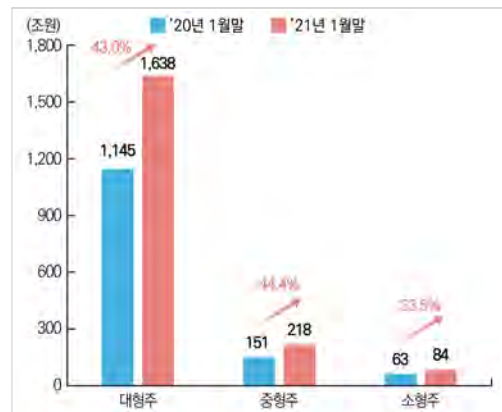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전체 시가총액은 1,427조원에서 2,051조원으로 43.7% 증가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대형주(시가총액 1~100위) 시가총액은 1,145조원에서 1,638조원으로 493조원(43.0%) 증가
 - 중형주(101~300위) 시가총액은 동기간 151조원에서 218조원으로 67조원 (44.4%) 증가
 - 소형주(301위~) 시가총액은 21조원(33.5%) 증가

[그림 1] KOSPI 전체 시가총액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KOSPI 기업규모별 시장총액 변화



주: 대형주는 시가총액 1~100위, 중형주는 101~300위, 소형주는 나머지 기업으로 구성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가 상승의 지수기여율 분석과 관련된 보고서 및 증권거래소의 시계열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1) 기업규모별 기준은 한국거래소 산출방식에 따라 대형주는 시가총액 1~100위, 중형주는 101~300위, 소형주는 나머지 기업으로 구성되며, 상장 1년 이내 기업, 리츠, 섣박투자회사 등은 제외

2) 기업규모별 주가상승 기여율 및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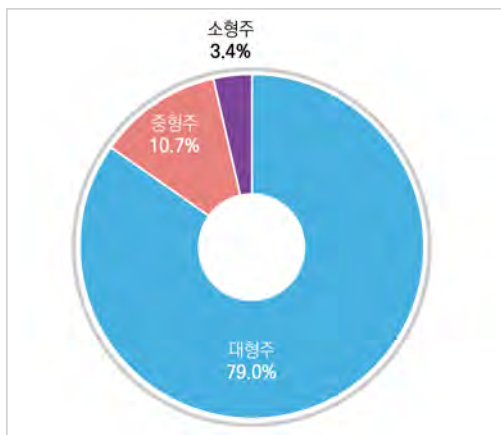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은 주로 대형주의 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의 대형주 기여율²⁾은 79.0%로 코로나19 이후 시가총액 증가의 대부분이 대형주에 의존
- 동기간 중형주와 소형주의 주가상승 기여율은 각각 11.7%, 3.7%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기업규모별 주가상승률이 차별화됨에 따라 시가총액 중 중형주 비중이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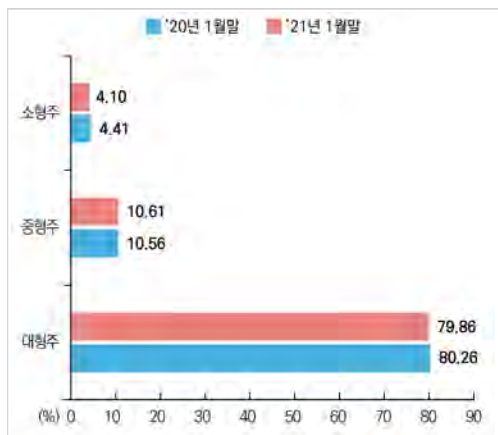
- 중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동기간 10.56%에서 10.61%로 상승
-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1월말 80.26%에서 2021년 1월말 79.86%로, 소형주 비중은 4.41%에서 4.10%로 하락

[그림 3] 기업규모별 주가상승 기여율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KOSPI 기업규모별 시장총액 비중 변화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가상승 기여율은 기간 중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에 대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시가총액 증가분의 비중으로 산출

2. 업종³⁾별 주가 분석

1) 업종별 시가총액 변화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시가총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제조업의 시가총액은 944조원에서 1,446조원으로 503조원 증가

- 동기간 유통업의 시가총액은 8.2조원 증가하였으며, 건설업 3.4조원, 운수창고업 11.9조원, 금융업 13.8조원 서비스업 84.9조원 증가
- 반면 전기가스업의 시가총액은 동기간 21.3조원에서 20.4조원으로 감소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서비스업의 시가총액은 65.5% 증가

- 동기간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업은 각각 53.3%, 13.2%, 18.1%, 55.8%, 7.0% 증가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전기전자의 시가총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의약품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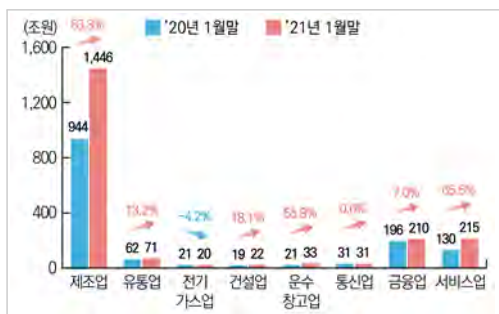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전자전자의 시가총액은 509조원에서 774조원으로 265조원 증가

- 동기간 화학은 시가총액이 93.2조원 증가하였으며, 의약품 61.1조원, 철강금속 5.9조원, 기계 11.0조원, 운수장비 56.1조원 증가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의약품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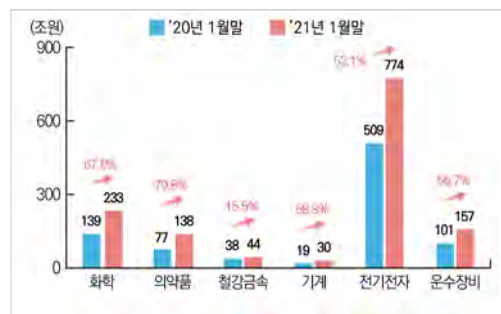
- 동기간 시가총액은 화학 67.0%, 철강금속 15.5%, 기계 58.8%, 전기전자 52.1%, 운수장비 55.7% 증가

[그림 5] KOSPI 업종별 시가총액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6] KOSPI 제조업_세부업종별 시가총액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업종구분은 유가증권시장 산업별 지수의 업종분류를 따름

2) 업종별 주가상승 기여율 및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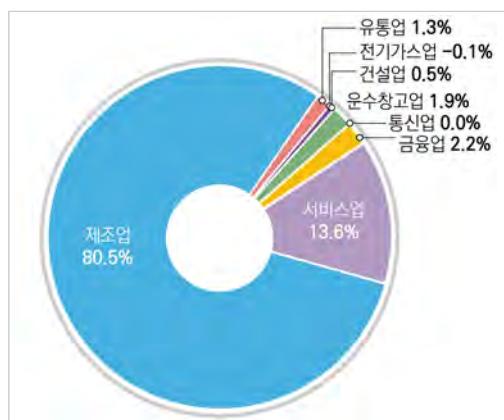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에 대한 기여율은 제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금융업, 운수창고업 순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의 제조업 기여율⁴⁾은 80.5%로 코로나19 이후 주가상승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상승에 기인
- 동기간 서비스업의 주가상승 기여율은 13.6%로 나타났으며 금융업 2.2%, 운수창고업 1.9%, 유통업 1.3%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전기가스업의 주가상승 기여율은 -0.1%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에 대한 제조업 세부업종별 기여도는 전기전자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화학, 의약품, 운수장비 순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에 대한 전기전자업의 기여율은 42.5%로 나타남
- 동기간 화학업의 주가상승 기여율은 14.9%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9.8%, 운수장비, 기계, 철강금속은 각각 9.0%, 1.8%, 1.0%로 나타남

[그림 7] KOSPI 업종별 주가상승 기여율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8] 제조업_세부업종별 주가상승 기여율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주가상승 기여율은 기간 중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에 대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시가총액 증가분의 비중으로 산출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업종별로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승한 반면 금융업, 통신, 건설업, 유통업 등의 시가총액 비중은 하락

- 제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1월말 66.1%에서 2021년 1월말 70.5%로 4.4%p 상승
 - 동기간 서비스업, 운수창고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각각 1.4%p, 0.1%p 상승
- 반면 금융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동기간 13.8%에서 10.2%로 3.6%p 하락하였으며 통신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유통업은 각각 0.7%p, 0.2%p, 0.5%p, 1.0%p 하락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의약품, 화학, 기계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승한 반면 철강금속의 시가총액 비중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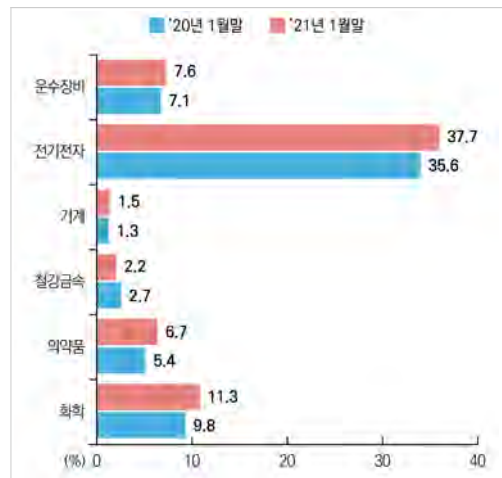
- 전기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1월말 35.6%에서 2021년 1월말 37.7%로 2.1%p 상승
 - 동기간 운수장비, 의약품, 화학, 기계의 시가총액 비중은 각각 0.5%p, 1.3%p, 1.5%p, 기계 0.2%p 상승
- 반면 철강금속의 시가총액 비중은 동기간 2.7%에서 2.2%로 0.5%p 하락

[그림 9]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 변화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0] 제조업_세부업종별 시가총액 비중 변화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근 주가상승의 위험요인 점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와 기업실적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어 주가의 상승세가 약화될 우려

■ KOSPI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 이하 PER)⁵⁾이 크게 상승하여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세가 약화될 가능성

- 2017~2019년 주가수익률(PER) 평균이 15.2배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말 28.7배로 88.4% 상승
- PER가 높다는 것은 주당순이익 대비 주가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PER가 높은 주식은 향후 주가가격의 상승여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

■ KOSPI 상장기업의 수익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하락

- KOSPI 상장기업 영업이익률은 2017~2019년 평균 7.5%에서 2020년 5.9%로 하락
- 총자산이익률(ROA)은 2017~2019년 평균 1.8%에서 2020년 1.0%로 하락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동기간 7.4%에서 4.3%로 하락

[표 1] KOSPI 상장기업 수익성 지표

(단위: %)

	2017~2019년 평균	2020년
주가수익비율(PER)	15.21배	28.66배
영업이익률	7.47	5.89
총자산이익률(ROA)	1.81	0.97
자기자본이익률(ROE)	7.40	4.26

자료: Bloomberg

최근 주가상승이 수요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자 등의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

■ 개인투자자는 2020년 1월~2021년 1월중 70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 특히 2021년 1월 22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5) PER(Price Earning Ratio)는 한국어로 주가수익비율이라고 불린다.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되며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배인지를 보여줌

■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2020년 1~2021년 1월 기간 2020년 1월, 7월, 11월을 제외하고 국내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도

- 외국인 투자자는 2020년 1월~2021년 1월말 29.7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

■ 한편 신용거래 등을 통해 순매수세를 주도한 개인투자자는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 등으로 주가의 하방압력이 강화될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확대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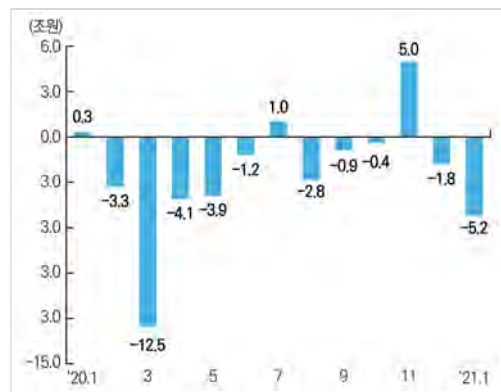
- 주식시장의 신용잔고⁶⁾는 2020년 3월말 6.5조원 수준에서 2021년 1월말 20.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탁증권담보용자도 동기간 15.4조원에서 18.4조원으로 증가

[그림 11] 개인투자자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2] 외국인투자자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시사점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시가총액이 624조원(43.7%) 증가한 가운데 주가 상승의 대부분은 대형주, 제조업(특히 전자전기)의 상승에 기인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의 대형주 기여율은 79.0%로 나타남

■ 2020년 1월말~2021년 1월말 KOSPI 주가상승의 제조업 기여율은 80.5%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중 전기전자업종의 기여율은 42.5%

6) 주식매수자들이 주식 매수시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 잔고를 의미하며 주가의 하방압력이 강화될 경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증가시킬 가능성

기업의 실적과 괴리된 최근 주가의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에만 집중되지 않고 기업 등 실물부문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노력할 필요
- 주식투자 관련 차입 증가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
 - 주식시장의 신용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급격한 자금 유·출입 위험 등을 점검할 필요
- 한편 국내주식에 대한 순매수가 개인투자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

II.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우 경제분석관(6788-3733)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잔액과는 별개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하며,¹⁾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가 되는 디지털 결제 수단임²⁾

- (등장 배경)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기술의 등장, 신규 결제·중개 서비스 사업자 출현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현금사용률의 하락 등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
- (거래방식)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방식과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방식으로 구분
- (구현방식) 중앙은행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조직이 CBDC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구분

CBDC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현금과 유사한 화폐로 분류할 수 있으나,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제약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³⁾

- (현금) 강제통용력이 있으며 거래주체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
 - 금융기관 부도에 따른 지급불이행 가능성이 없으며 전자지급수단과는 달리 지급결제과정에서 기술이 개입되지 않아 유사시 비상대응수단으로 활용됨
 - 개별 경제주체의 현금 보유기간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자지급은 불가

※ 디지털 위안화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연구보고서, 중국 현지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작성

1) "A CBDC is a digital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is different from balances in traditional reserve or settlement accounts": CPMI-MC(2018.3.12.),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2) "A CBDC is a digital payment instrument, denominated in the national unit of account, that is a direct liability of the central bank": BIS(2020.10.9.),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3) 한국은행(2019.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CBDC)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므로 목적에 따라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보유한다 및 이용시간 등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 거래내역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므로 이자지급 또한 가능

[표 1] CBDC와 현금 및 지급준비금 비교

	CBDC	현금
거래 익명성	보장 여부 선택 가능	보장
이자지급	가능	불가능
보유한도	한도설정 가능	없음
이용 가능 시간	설정가능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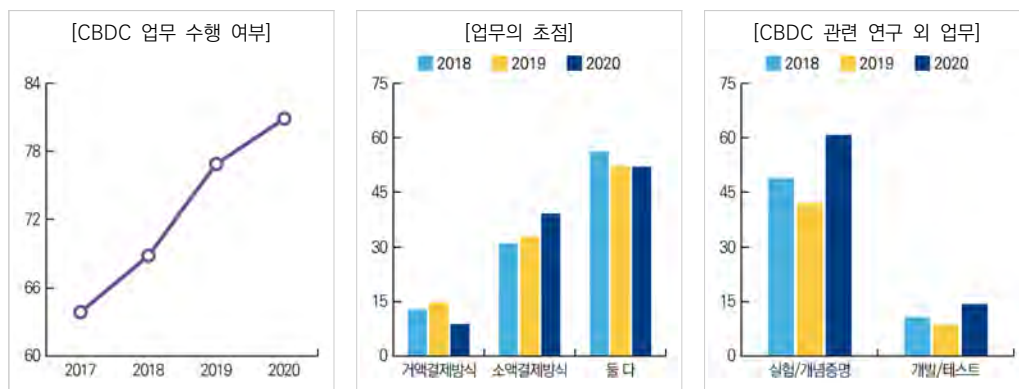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19.1.)

2. 해외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 동향

최근 들어 페이스북의 ‘Diem’과⁴⁾ 같은 민간기업 디지털화폐가 대안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언급되면서, 해외 각국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BIS의 2020년 설문조사⁵⁾에 따르면 전체 65개국 중앙은행 중 약 86%가 CBDC 도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비해 거래결제방식보다 소액결제방식 CBDC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CBDC 관련 BIS 설문조사 결과



자료: BIS Papers No.114(2021.1.)

4) 2020년 12월 Libra에서 Diem으로 명칭 변경

5) 세계 인구의 72%, 세계 GDP의 91%에 해당하는 65개국(선진국 21개, 신흥·개도국 44개)을 대상으로 진행

- 이미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들은 거액결제방식 CBDC에,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및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신흥·개도국은 소액결제방식 CBDC에 관심을 보임

[표 2]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2020.1. 기준)

거액결제방식		소액결제방식	
시범사업(프로젝트) 실시	남아공, EU,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시범운영	바하마, 우루과이, 에콰도르, 캄보디아
시범사업 예정	스위스, 프랑스	시범운영 예정	스웨덴, 중국, 터키
		발행 가능성 검토	EU

자료: 한국은행(2020.2.)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2020년부터 CBDC 공동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CBDC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도 착수

- 2020년 1월 BIS와 주요 6개국(스위스, 스웨덴, 영국, EU, 일본, 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 공동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미국이 추가로 참여
- 2020년 10월에는 주요 7개국(G7)이 보고서를 통해 BIS, IMF, World Bank와 함께 2022년까지 CBDC 국제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0년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 1년 간 주요 기업 및 국내 은행과 연계하여 CBDC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

3.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

중국 인민은행은 화폐 발행비용 절감, 법정화폐 지위 유지,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2014년부터 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CBDC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됨⁶⁾

-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현금 사용빈도 감소, 법정화폐 지위 약화 등의 문제로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6) "Central Banks Edge Toward Money's Next Frontier in Digital World", Bloomberg(2021.2.6.)

-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 전문연구팀을 신설하고 2017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디지털화폐 연구소를 포함한 인민은행 산하 연구소들이 디지털화폐 관련 기술특허를 모두 보유
- 2020년 10월에는 중국 법화에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다는 내용⁷⁾의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며 디지털화폐 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중국은 CBDC 대신 디지털 화폐·전자 결제(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식 명칭은 디지털 위안화(数字人民币)

[표 3]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개발 일지

시기	내용
2014	• 법정 디지털화폐 전문연구팀 신설
2015	•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을 발간
2016.1.20.	• 디지털화폐를 공개적으로 발행한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
7.1.	•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어음거래 플랫폼 연구 개발 시작
2017.1.29.	• 디지털화폐 연구소 공식 설립
2.1.	•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어음거래 플랫폼 테스트 성공
5.27.	• 디지털화폐 연구소 공식 개소
2018.1.25.	• 디지털어음거래 플랫폼 시스템의 온라인 시범운영 시작
3.9.	• 주소천(周小川) 인민은행 총재가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적 디지털화폐 명칭은 “DC(Digital Currency)/EP(Electronic Payment)”라고 처음으로 발표
2019.8.10.	• 무창춘(穆长春) 인민은행 지급결제국 부국장은 제3차 중국금융 40인 포럼에서 디지털화폐 출시가 임박했으며 2단계 운영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
2020.1.10.	• 인민은행 공식계정은 《중앙은행의 2019 점검: 핀테크》에서 법적 디지털화폐의 최상위 설계, 표준제정, 기능 연구개발, 테스트 등의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발표
4.14.	• ‘20.4.14. 기준으로 디지털화폐 발행·유통·활용 전 과정에 대한 특허* 보유 * 인민은행 인쇄과학기술연구소(‘중앙은행-상업은행’ 2단계 운영시스템 및 화폐인증 중앙화 설계 등 총 22건), 디지털화폐 연구소(디지털화폐 생성, 발행, 검증, 유통 등 총 65건)
10.23.	• 중국 법화에 디지털 형식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발표

자료: 零壹智库数字资产研究院(2019), 东方证券(2020), 国盛证券(2020), 人民网(2020)

디지털 위안화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법정화폐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통화(M0)를 대체

■ 디지털 위안화는 일종의 전자현금으로 현금에 전자결제 기능을 결합한 형태

- (법정화폐 지위)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화폐로서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거래참가자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지급결제 및 채무변제를 거절할 수 없음⁸⁾

7) 제19조(인민폐 단위) 인민폐의 단위는 위안이고, 인민폐의 보조 화폐 단위는 각, 분이다. 인민폐는 실물 형식과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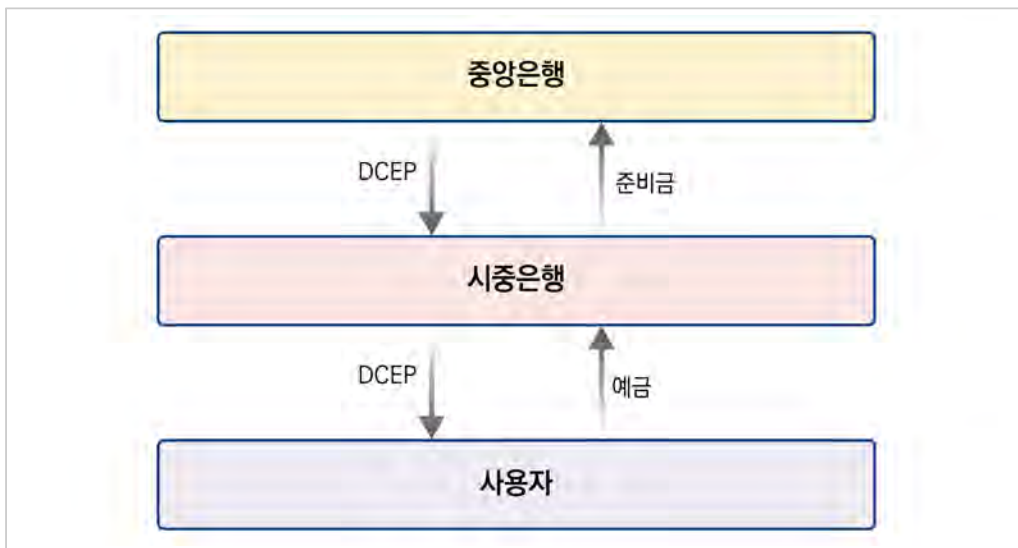
8)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거래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수량을 거절할 수 있음

- (이자지급 불가)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과 동일하므로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별도의 은행계좌 불필요) 디지털 위안화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전자지갑에 저장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은행계좌 연결이 필요하지 않음
- (오프라인 결제) 전자지갑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⁹⁾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기능 활용
- (제한된 익명성) 은행과 상점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볼 수 없으나, 자금세탁이나 기타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

■ 인민은행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통화(M0)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M1이나 M2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¹⁰⁾

- 디지털 위안화는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M1)이 아닌 실제 유통되는 현금통화(M0)에 속함
- 따라서 상업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수령 시 중앙은행에 동일금액을 준비금으로 예치하여 시중 통화량(M0)에는 변함이 없도록 함

[그림 2] 디지털 위안화: 발행 및 유통경로



자료: 新时代证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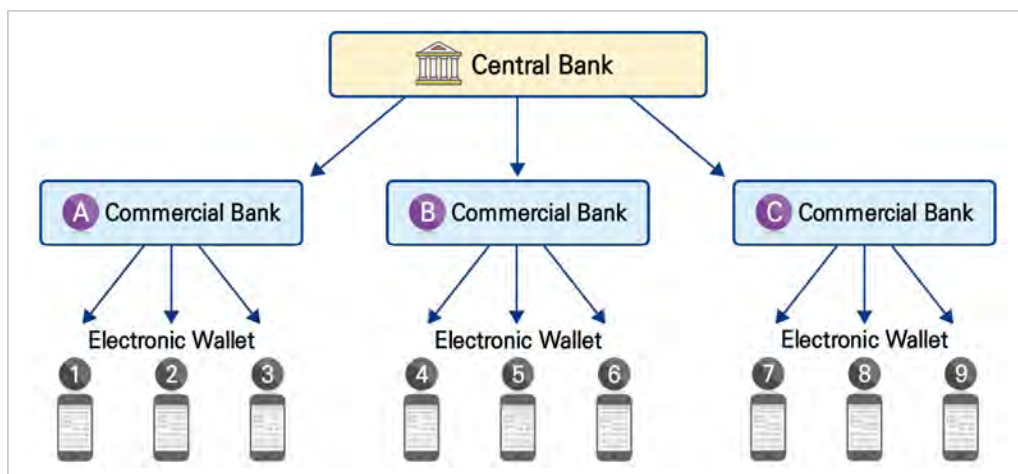
9)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은 반드시 은행계좌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10) “范一飞：关于数字人民币M0定位的政策含义分析”，中国金融新闻网(2020.9.14.)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방식은 현금과 동일하게 ‘중앙은행-상업은행’, ‘상업은행-고객 (개인 및 법인)’의 2단계 운영방식을 활용할 예정

-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독점 발행하고 관리하며 상업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과 입출금 서비스를 담당

[그림 3] 디지털 위안화: 2단계 운영방식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2020)

중국은 2020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¹¹⁾ 지정된 상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0년 4월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는 선전(深圳)·쑤저우(蘇州)·송안(雄安)·청두(成都)·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 등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비공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발표
 - 2020년 10월부터는 선전(深圳)·쑤저우(蘇州) 등에서 공개 시범사업 진행
-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둥(廣東) 등 주요도시는 2021년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 중국 춘절(21.2.11.~2.13.)을 앞두고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청두(成都) 등에서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도 계속 진행 중

11) 당첨된 주민들은 휴대전화에 시범사업 참여은행(4대 국영은행, 교통은행, 우편저축은행 등) 중 하나의 전자지갑을 설치하여 디지털 위안화 수령

■ 중국은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의 범위(지역, 참여은행, 사용처, 발행형태 등)를 점차 넓혀가면서 세계 최초로 CBDC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사용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이 될 것으로 예상

[표 4]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 진행 상황

시기	내용
2020.4.22. ~5.26.	•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송안(雄安), 청두(成都), 베이징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비공개 시범사업 진행
5.	• 쑤저우(蘇州) 상청(相城)에서 교통 보조금의 50%를 디지털 위안으로 지급
8.14.	• 중국 상무부는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 종합방안》에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 삼각주, 웨강아오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중서부 지역 등에서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 계획 발표
10.12. ~10.18.	• 선전(深圳)에서 추첨을 통해 주민 5만 명에게 200위안의 디지털 위안을 나눠주고 3,400여 개의 지정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2.11. ~12.27.	• 쑤저우(蘇州)에서 추첨을 통해 주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의 디지털 위안을 나눠주고 1만여 개의 지정상점(온라인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2.29.	• 베이징(北京) 리저(麗澤)금융지구에 있는 'Mancat Coffee'에서 디지털 위안 시범 사용
2021. 1.5.	• 상하이(上海) 톈런병원(同仁医院) 직원식당에서 전자지갑이 아닌 체크카드 형태의 디지털 위안 시범 사용
1.7. ~1.17.	• 선전(深圳)에서 추첨을 통해 주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의 디지털 위안을 나눠주고 1만여 개의 지정상점(온라인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중국농업은행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디지털 위안화 ATM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
1.~2.	• 춘절을 앞두고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청두(成都)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 춘절 홍바오' 시범사업 진행 중

자료: 东方证券(2020), 관련 기사 종합

4. 시사점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외 지역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미국의 금융제재를 방어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

■ 중국은 주변국과의 국제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대금결제 과정에서 은행계좌에 대한 의존도 축소, 비용 및 시간 감소 등의 편리성으로 인해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달러 주도의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¹²⁾ 구축을 통해 달러패권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금융제재(SWIFT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¹³⁾

12)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 개통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이 이미 존재하나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결제액이 1,357억 위안으로 SWIFT의 1% 미만에 불과(머니투데이, 2020.9.8.)

향후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화를 가속하면서 디지털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2020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국가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전략의 주요 이슈》 기고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화폐, 디지털세 등과 같은 국제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
-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주요국 중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BDC가 될 경우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CBDC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 존재

다만, 디지털 위안화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므로 중앙기관이 개인과 법인의 거래내역을 쉽게 추적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가 존재

- 제한된 익명성으로 인해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위안화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대중무역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¹⁴⁾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준비 작업 필요
-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계기로 각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Bloomberg Law 2020》 보고서에서도 SWIFT 등 기존 금융결제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의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면 국제결제통화로서 달러화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ANALYSIS: Digital Dollar and Foreign Rivals Gain Support in 2020", Bloomberg Law(2020.5.11.)

14) 2019년 대중무역 수출(6.6%) 및 수입(5.1%)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국은행, 2020)

III.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김미애 경제분석관(6788-467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통상 및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통상정책에서는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중심 기조에서 다자무역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 안보와 관련된 산업 및 기업 관련 규제에서 변화가 예상됨

- 정책의 세부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환경과 노동 친화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산업구조 및 통상체제 재편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 기조에 따른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 및 국내 산업에의 영향을 전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 핵심 기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핵심 기조는 (1) 중국 견제는 유지하되 직접적인 보복 정책은 지양, (2) 다자무역협정 및 WTO 등 국제 통상체제로의 복귀, (3) 미국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 구축, (4) 환경 및 노동 친화적 산업활동 촉진으로 요약됨

※ KITA통상리포트(한국무역협회, 2020.10.5) "바이든 vs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과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세미나 자료, 美 무역대표부 대표지명연설 및 다수의 보도자료를 종합하여작성

가. 중국 견제는 유지하되 직접적인 보복 정책 지양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보복성 관세 정책은 지양할 전망

-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전환
- 통상정책에서 첨단기술 규제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중국 견제 도모
 -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반도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중국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은 유지
 -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덤핑,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강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중국기업의 관행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

나. 다자무역협정 및 WTO 등 국제 통상체제로의 복귀

다자간무역협정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견제할 전망

-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최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국 무역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미국 또한 실익을 재검토할 유인이 생김
 - 미국의 가입여부에 따라 협정에 따른 회원국 간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기존 회원국의 미국 가입 설득도 적극적일 것으로 보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고 WTO 등 국제규범을 준수

-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대국과 1대 1로 무역협정을 진행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UN, WTO(세계무역기구), G20(주요 20개국) 같은 다자주의 틀 내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수입품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철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²⁾

1)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서, 2015년 잠정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규모가 축소되어 CPTPP가 발효됨. 이 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 교역 관세를 95% 이상 철폐하되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하고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WHO(세계보건기구) 탈퇴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다. 미국 중심의 생산 및 공급망 구축으로 자국 제조업 재부흥 모색

과거 미국 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제조업 재부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미국 제품 우선 사용 정책³⁾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 조달품 구매에 있어 자국 제품의 사용 의무를 한층 강화⁴⁾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관련 고위직을 신설하여, 연방기관이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OMB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 이를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재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
-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10% → 21%)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1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으로 인한 자국 내 일자리 감소를 억제하고, 외국 기업이 미국 법인 인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유인을 제거

라. 비관세 장벽의 강화: 환경 및 노동 친화적 산업활동 촉진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EU가 도입하는 탄소국경세⁵⁾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

- 탄소조정세의 핵심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
 - 산업 생산을 통해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산방식²⁾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
 - 생산공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산업의 해외기업에게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과도한 무역제한조치(232조)는 지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3)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Made in All of America(미국 국민에 의한 미국에서의 생산)'과 'Buy American(미국 제품사용 우선)'을 강조함.

4) 사전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함

5) EU의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대미 수출 제품 생산과정의 노동조건을 규제

■ 대미 수출기업이 노동착취를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⁶⁾ 높은 관세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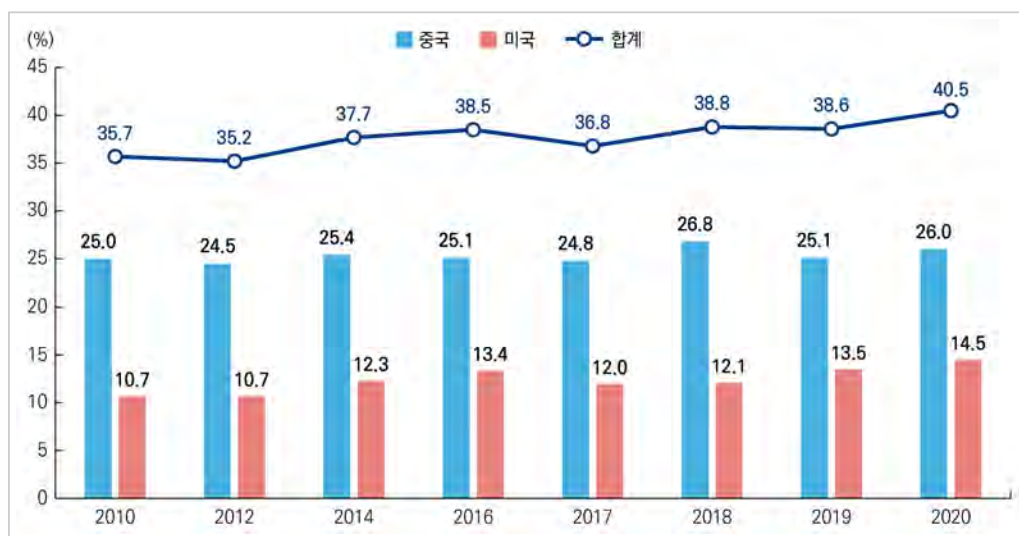
-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대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비관세 무역장벽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3.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미국의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와 대중국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역갈등을 지양하고 완화된 대중국 견제수단을 사용한다면 글로벌 무역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의 특성 상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의존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역을 통해 면화와 토마토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산물의 수입을 금지시킴.

다만, 대중 무역뿐만 아니라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한 통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RCEP⁷⁾에 참여하였지만, 미국이 CPTPP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재검토⁸⁾하는 등 통상정책을 다각화할 필요

[그림 2] CPTPP 및 RCEP 가입국 현황(2019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미국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 구축으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⁹⁾

- 미국을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필요

- 삼성, LG 등 가전 및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도 미국 진출을 계획¹⁰⁾

7)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회원 10개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

8)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CPTPP에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조항과 한중 강화된 관세 철폐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음

9)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 구매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을 M&A(인수-합병)해 미국 제품으로 인정받는 전략을 고려해야 함.

10) 바이든의 미 대선 선거공약 중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판매할 경우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을 시사하였기 때문에 대미수출기업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미국의 첨단기술 사용 제재에 대비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미국 현지 기업 인수 추진 필요

- 미국 내 생산과 자국 기술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이 미국 내 로봇생산 기업을 인수하여 첨단기술 규제를 우회하거나,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국내 법인이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 및 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에의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존재

■ 산업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은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을 위축시키고 수익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음

-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탄소조정세가 EU의 탄소국경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된다면, 단위배출량(tCO₂)에 대해 23.5달러를 부과할 때 대미 수출에서 한화로 약 1,100억 원의 부담이 증가¹¹⁾
- 2030년 단위배출량(tCO₂) 당 75달러를 부과할 경우, 3,400억 원의 부담이 증가
- 국내 산업 중 석유화학 및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미국 탄소조정세 부과 수준 시나리오 별 국내 기업에의 영향

(단위: 백만 USD)

	탄소가격 23.5달러/tCO ₂ 가정	탄소가격 75달러/tCO ₂ 가정
석유화학	73.4	234.3
자동차	13.2	42.2
전자	3	9.5
가전	2.2	7.1
통신	0.8	2.5
합계	92.7(한화 1,100억 원)	295.9(한화 3,400억 원)

자료: EY,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 2021

■ 노동과 환경 관련 조건을 중시하는 기조는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과 관련해 노동, 환경 등에서 미국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데,¹²⁾ 미국 내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 제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할 수 있음

11) 2019년 단위배출량(tCO₂)당 탄소가격은 12.1달러로 추정하여 2030년 7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부과기준을 높여간다는 시나리오에서 부담금을 계산함. (자료: EY,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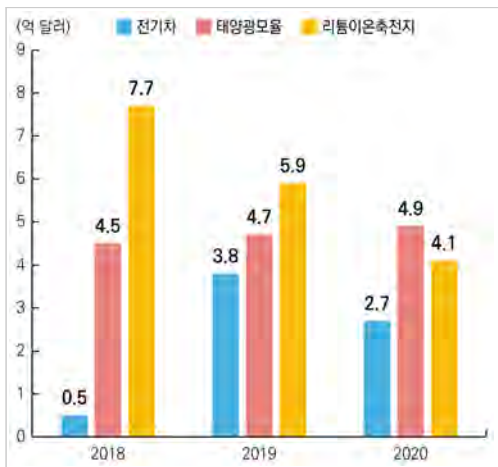
1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 당시 민주당의 요구로 노동환경과 관련된 조건들을 강화시켜 협정 내용을 수정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미국인에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 추진'을 공약한 만큼, 미국이 CPTPP 등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복귀하면서 기존 협약에 환경과 노동 부문에서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품질 차별화 등의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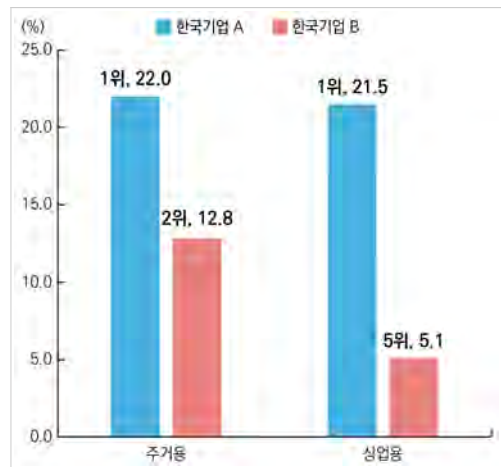
■ 반면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한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국내 기업의 친환경제품 수출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국내 기업 제품 중 전기차와 태양광모듈, 리튬이온축전지 등의 친환경품목은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 내 청정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모듈과 같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

[그림 3] 국내 생산 친환경제품의 대미 수출 규모



[그림 4] 국내 기업의 미국 태양광모듈 시장점유율



IV.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승현 경제분석관(6788-4751)

1. 개요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경제전반은 물론 고용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면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양상이 전개

■ 특히 고용시장의 충격은 고용총량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본고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

■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년 8월에 최근 3개월 임금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산업별(중분류)/종사상지위별/규모별 임금데이터를 매달 제공

■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집계방식 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

- 일례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 사람이 복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더라도 취업자 한 명으로 집계하는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람이 아닌 일자리를 기준으로 취업인원을 계산하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기업에서 일한다면 종사자 2명으로 집계

■ 코로나19 확산은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되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후의 임금동향은 2020년 2월 이후 임금동향을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시계열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2020년 1월의 임금동향을 코로나19 확산 후의 임금동향에 포함하여 분석

[표 1]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교

구 분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규모	매월, 3.5만개 표본가구	매월, 2.5만개 표본사업체
모집단	조사기간동안 국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조사기준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단위	중복 없이 조사된 취업자 개인	중복이 있는 일자리 수
조사기준	매월 15일을 포함한 1주	매월 마지막 영업일
조사항목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등	종사자, 입·이직자
공표수준	17개 시도, 산업대분류 등	산업중분류, 사업체규모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2.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 임금 동향

2011~2019년 동안 상용직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1인당 임금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임금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00인 미만 사업체, 상용·임시일용직, 300인 이상 사업체 순으로 나타남

■ 전체종사자 1인당 임금총액은 2011년 260.7만원에서 2019년 349만원으로 연평균 3.7% 증가

- 임시일용직 1인당 임금총액은 2011년 115.2만원에서 2019년 151.7만원으로(연평균 3.5%), 상용직 1인당 임금총액은 2011년 280.6만원에서 2019년 370.2만원으로 증가(연평균 3.5%)
-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2011년 230.7만원에서 2019년 313.9만원으로(연평균 3.9%),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2011년 415.4만원에서 2019년 535.6만원으로 증가(연평균 3.2%)

종사상지위별·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완화되었으나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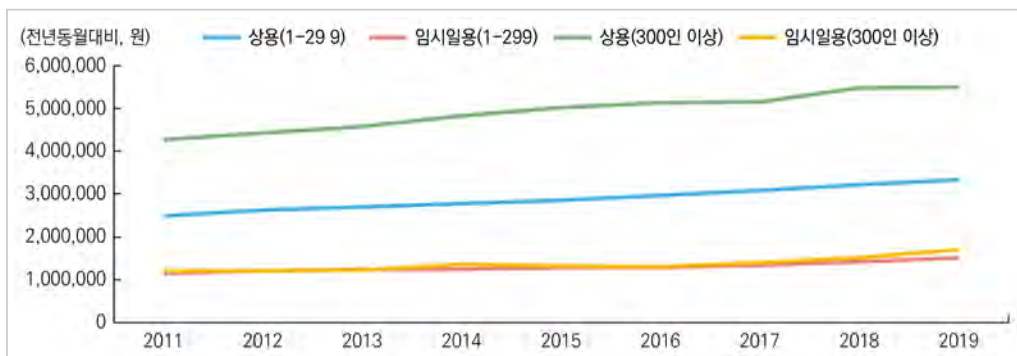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총액비율은 41%,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비율은 59% 수준

-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총액비율은 2015년 40.2%에서 2019년 41.0%로, 0.8%p 상승
-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비율은 2015년 55.0%에서 2019년 59.0%로, 4.0%p 상승

■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의 임금과 그 외 종사자의 임금의 격차는 임금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존재함을 시사

- 2019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의 1인당 임금(549.2만원)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임금은 31.2%,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임금은 각각 60.1%, 27.4% 수준

[그림 1] 종사자지위별·사업체규모별 임금 추이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3. 코로나19 이후 임금 동향

2020년 1~11월 전체종사자 1인당 임금총액 및 종사자지위별 1인당 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체종사자와 상용직의 경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전체종사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2020년 1~11월 348.4만원으로 2019년 1~11월 1인당 임금총액(345.4만원)보다 높음

- 다만, 2020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3차 확산의 충격이 임금에 반영된다면 2020년 전체종사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2019년보다 감소할 가능성

■ 2020년 1~11월 상용직 1인당 임금총액은 367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366.2만원) 0.2% 증가, 임시일용직 1인당 임금총액은 162.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151.2만원) 7.8% 증가

[표 2] 종사자지위별 임금총액 증감률 추이

(단위: 원, %)				
기간	상용직	증감률	임시일용	증감률
2011	2,762,711		1,143,803	
2012	2,905,660	5.2	1,201,449	5.0
2013	3,005,479	3.4	1,244,956	3.6
2014	3,079,357	2.5	1,250,864	0.5
2015	3,154,356	2.4	1,277,002	2.1
2016	3,285,420	4.2	1,284,705	0.6
2017	3,376,595	2.8	1,348,809	5.0
2018	3,547,155	5.1	1,422,938	5.5
2019	3,662,313	3.2	1,511,829	6.2
2020	3,670,449	0.2	1,629,432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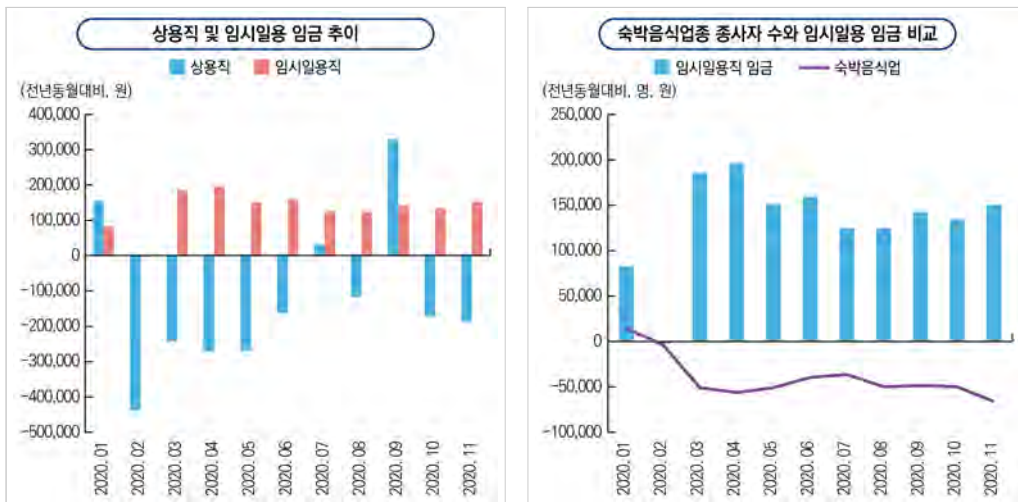
주: 기간은 각 연도 중 1~11월을 의미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직은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특별급여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임시일용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종사자가 감소하여 임금상승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임시일용직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은 숙박음식점(-4.4만명), 교육서비스업(-3.3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3만명) 순
- 2020년 1~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산업별 임금 기준, 임시일용직 임금이 가장 적은 산업은 협회 및 단체, 기타서비스업(73.8만원), 숙박음식업(85만원), 교육서비스업(109만원) 순

[그림 2] 종사자지위별 임금 증감 추이 및 특정업종 종사자 증감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2020년 1~11월 사업체규모별 1인당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감소하여 규모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금충격이 다르게 나타남

■ 2020년 1~11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임금총액은 316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311만원) 1.6%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514.6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529만원) 2.7% 감소

[표 3]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증감률 추이

(단위: 원, %)

기간	1~299인	증감률	300인 이상	증감률
2011	2,277,108		4,060,257	
2012	2,411,234	5.9	4,200,439	3.5
2013	2,490,543	3.3	4,360,425	3.8
2014	2,551,624	2.5	4,593,709	5.4
2015	2,631,021	3.1	4,730,961	3.0
2016	2,727,168	3.7	4,869,580	2.9
2017	2,854,066	4.7	4,918,261	1.0
2018	2,989,436	4.7	5,213,785	6.0
2019	3,109,231	4.0	5,288,318	1.4
2020	3,160,223	1.6	5,146,339	-2.7

주: 기간은 각 연도 중 1~11월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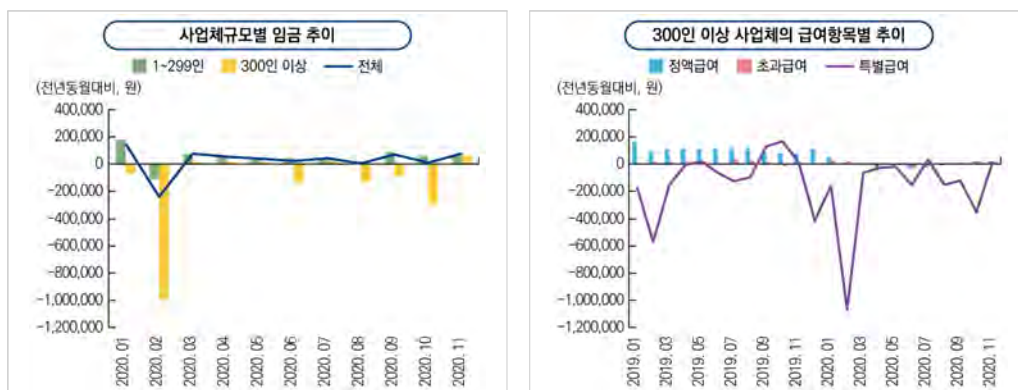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 정액급여¹⁾와 초과급여²⁾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이후에도 감소폭이 크지 않으나(최대 3만원 감소), 특별급여³⁾는 2020.2월 전년동월대비 107만원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

* 외환위기(1998.9월 21.9만원 감소) 금융위기(2009.2월 39.7만원 감소)

- 특별급여 실질감소액⁴⁾도 외환위기(38.6만원), 금융위기(45.6만원) 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103.1만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여금 축소,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의 성과급 축소, 임금체계 변경 등으로 2020년에는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
- 특별급여액이 많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300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된 8월 이후에도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임금 및 300인 이상 사업체의 급여항목별 추이



주: 1) '18.1~2월 중 자동차 관련 산업의 '17년도 임금협상타결금이 지급되어 '19.1~2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가 전년동기대비 감소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 1)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2)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3)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
- 4) 특별급여 실질감소액 = (특별급여 명목감소액)/(해당 연도 GDP 디플레이터)이며, 2020년의 경우 아직 GDP 디플레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19년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

4.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이 종사자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용직 종사자에게는 임금충격으로 임시일용직 종사자에게는 고용충격으로 나타남

- 2011~2019년 동안 상용직의 1~11월 임금은 연평균 4.0%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3.8%p 감소
- 임시일용직의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증가(8.8%)했으나, 임시일용직 중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⁵⁾

사업체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임금충격이 두드러졌으며, 큰 폭의 특별급여액 감소가 그 원인으로 보임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급여항목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초과급여는 소폭 감소한 반면,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
 - 계약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급여, 초과급여는 변경하지 못하므로 상여금,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축소로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했을 가능성

5)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p.182 및 고용노동부, 「20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1.1, p.2 참조

PART 3

Economic · Industrial Trends & Issues

nabo

경제·산업이슈

I.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의 특징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116
--	-----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에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의 특징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황종률 경제분석관(6788-4659)

원/달러 환율은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와 달러선호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며 10% 이상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1,300원대에 근접하며 급등하였으나 빠르게 진정되며 12월 들어 1,100원대를 하회
- 현재 원화의 주요 통화 및 미 달러화 대비 환율 수준은 BIS 실효환율 기준(2010=100) 10%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11월 이후 다시 확대되는 모습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은 교역조건 및 실질구매력 변동을 통해 내수(투자과 소비)와 수출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줌

- 실질환율의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재와 가격의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과 민간소비를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내수 부문은 수입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제품에 대한 실질구매력효과가 비교적 커서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 수출입은 장기적으로 환율요인보다는 세계경제성장률, 대외교역량 등 해외실물경기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일시적인 환율변동성 확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지속적인 변동성 확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

원/달러 환율하락(원화강세)의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환율하락과 변동성 확대는 향후 경기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분쟁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및 다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노믹스(Bide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달러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
 - 향후 예상되는 원화 강세 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재산성 악화, 코로나19 및 대외여건 급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환율의 경제적 효과 관련 주제 논문 및 BIS, 한국은행 등의 시계열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1.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추이의 특징

원/달러 환율은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5월 이후 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며 하반기 들어 10% 이상 하락

■ 지난해 1~2월 중 원/달러 환율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강력한 방역대책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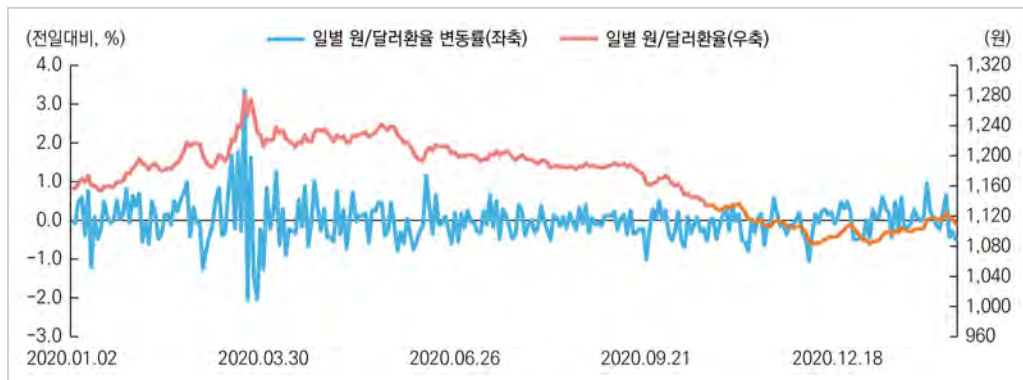
■ 특히 3월 중 원/달러 환율은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의 코로나19 확산과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하(3.4일), 유가폭락(3.9일) 등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

- 미국 내 신용경색으로 달러선호가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3.20일, 1,280.1원)하였으나, 미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발표(3.23일) 등으로 급등세가 빠르게 진정

■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한 미연준의 무제한 자산매입과 신용공급 실시, 대규모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통화공급 확대 등으로 미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하락¹⁾

- 4월과 5월 중 일평균 1,227원 수준에서 횡보하던 원/달러 환율은 6월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7월 중순 이후 1,200원대를 하회하기 시작
- 12월 들어 1,1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 5월 대비 10% 이상 하락
- 원/달러 환율(원): ('20. 1/4분기)1,193 → (2/4분기) 1,221 → (3/4분기) 1,188 → (12월)1,095 → ('21. 1월)1,098

[그림 1] 원/달러 환율의 일별 변동 추이



주: 일별 매매기준 환율

자료: 한국은행

1) 미연준의 제로금리정책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국제적인 미달러화 약세 현상에 대한 분석은 유승선, "최근 미국 달러화 약세의 원인",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9월호」 참조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은 과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주요 통화대비로는 지난 2010년 대비 상당 수준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된 외환위기 이후 2000년 1월~2021년 1월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의 월평균은 1,128.7원 수준이며, 2021년 1월 현재 1,097.5원으로 과거 평균 수준을 2.8%(32원) 하회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기간 중에는 지난 2011년 2/4분기와 3/4분기, 2012년 4/4분기, 2014년, 2018년 상반기 중에 1,100원대를 하회하며 원화강세가 나타남
- 2021년 들어 1월 중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 전환되었으나, 2월 들어 백신보급,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상원통과²⁾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는 양상

[그림 2] 월별 원/달러 및 전월대비변동률의 장기 추이



주: 월평균 매매기준 환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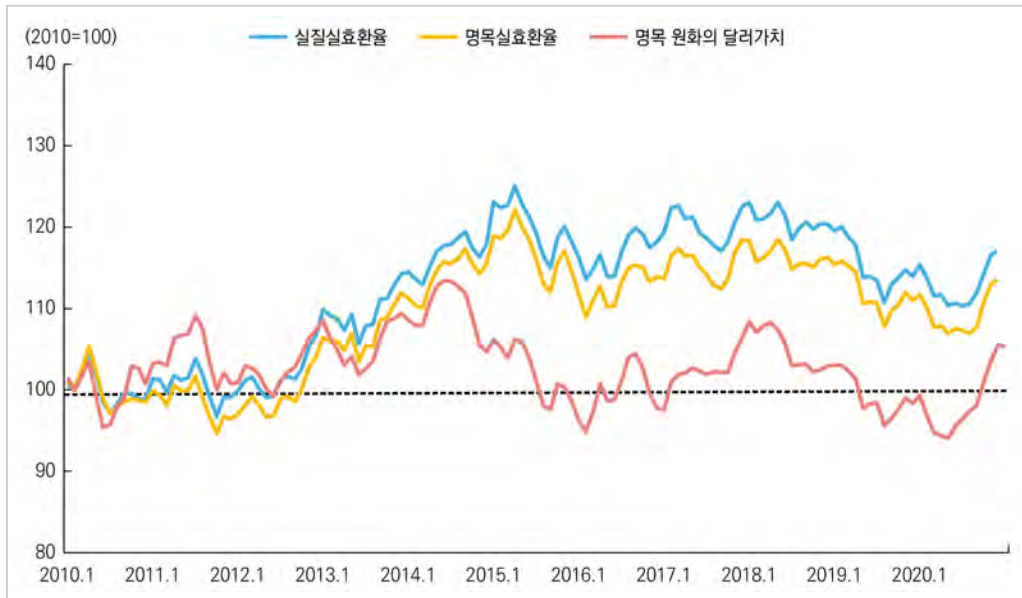
■ 원화의 주요 통화대비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BIS기준)은 2021년 1월 현재 각각 113.5와 117.1로 2010년(100)에 비해 10%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을 보면 2018년 1월 123.0까지 상승하였던 실질실효환율은 2020년 7월 중 110.3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
- 원화 1,000원의 달러가치도 2010년 대비 5.6% 이상 높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지난 6월 0.81달러에서 2021년 1월 0.91달러로 1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바이든 행정부가 1월 14일 발표한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이 2월 5일 상원을 통과하였고 2~3월 중 하원을 통과하여 최종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3) 실효환율은 원화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실효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강세를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주요 통화대비 원화의 가치가 2010년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음을 의미

[그림 3] 원화의 주요 통화대비 실효환율 및 미달러화 대비 명목가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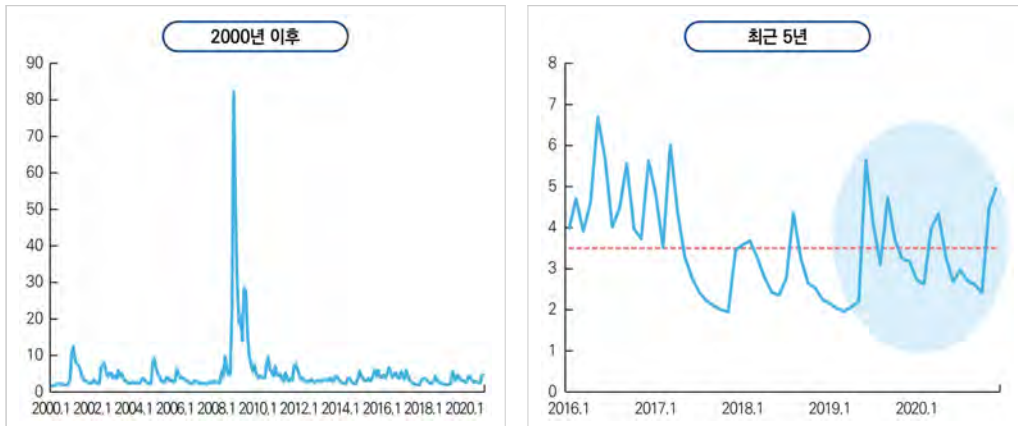
주: 1) 원화의 주요 통화대비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이고, 명목 원/달러 환율은 실효환율과의 비교를 위해 2010년을 100으로 표준화함
 2) 명목실효환율은 원화가치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비중 등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
 3) 실질실효환율은 명목실효환율에 주요 교역상대국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원화의 실질구매력을 평가한 환율
 자료: BIS,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11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11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 환율의 변동성은 조건부 이분산⁴⁾으로 평가했을 때 2020년 중에는 5년간 평균을 하회하였으나, 3월 코로나19 충격 이후 감소하던 변동성이 10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
 - 월별 조건부 이분산 추정치(%p): ('20.10월)2.4 → (11월)4.5 → (12월)5.0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의 월별 환율 변동성은 이전 5년(2011~2015년)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
 - 기간별 월별 조건부 이분산 평균(%p): (2011~2015년)3.7 → (2016~2020년)3.5

4) 환율변동의 조건부 이분산(conditional variance)은 현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한 다음 기의 환율변동의 분산을 의미

[그림 4] 월별 원/달러 환율변동의 조건부 이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OX1〉 환율 변동성 추정 모형

- 환율이 임의보행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200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달러 환율변동률에 대한 조건부 이분산(GARCH(1,1)) 모형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을 추정

- 환율 행태식: $\ln f x_t = \ln f x_{t-1} + e_t$
- 환율변동의 조건부 이분산: $\sigma_t^2 = a + b\sigma_{t-1}^2 + ce_{t-1}^2$

위에서 $\ln f x_t$ 는 t기 원/달러환율의 자연대수값, σ_t^2 은 전월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한 t월의 조건부 이분산, σ_{t-1}^2 은 전월의 이분산 예측치, e_{t-1}^2 은 전월에 관측한 변동성에 관한 정보임

- 추정결과: $\sigma_t^2 = 0.83 + 0.56\sigma_{t-1}^2 + 0.27e_{t-1}^2$
 (0.26) (0.09) (0.05)
- 괄호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이며, 모든 추정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

-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환율하락이 수출입, 투자,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 원/달러 환율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논의를 개관해 본 후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실물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2. 원/달러 환율하락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입 물가 변동을 통해 수출입 및 민간소비, 투자,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침

■ 원/달러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수출입 가격의 환율전가도와 수출입물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됨⁵⁾

-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수출물량에 대한 원화표시 매출이 감소하여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산재화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켜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수출 감소가 국내총생산감소를 통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봄⁶⁾
- 수출과 수입의 실질GDP대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3/4분기 기준 각각 42.8%, 36.6%임

■ 또한 환율 변동은 수입 물가 변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침

-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표시 재화 및 서비스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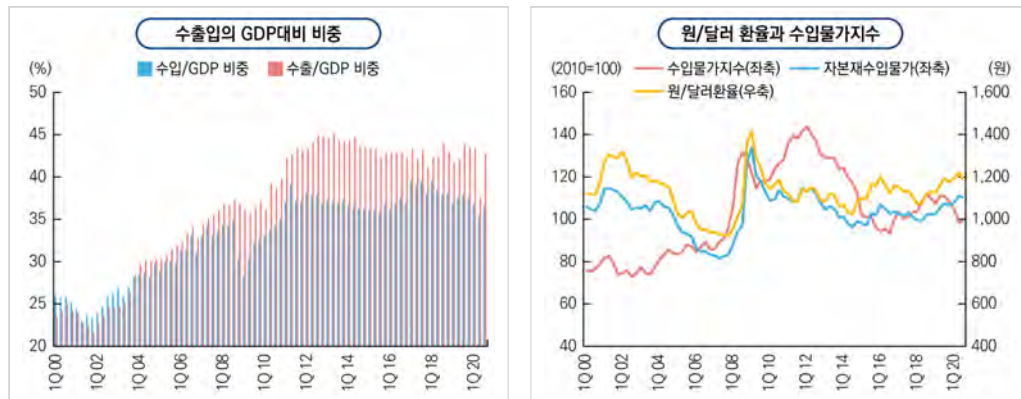
■ 소비자재 수입 가격 변동을 통해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자본재 수입 가격 변동을 통해 자본재 수입 비용을 변화시켜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침

- 원자재 및 자본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을 경우 국내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 투자 등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9년 기준 해외자본재가 국내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5) 환율의 수출물가 전가는 환율이 변동할 때 수출국 통화표시 가격이 변하는 것을 말하며, 환율전가도는 수출물가변동률을 환율변동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반대로 환율이 변동할 때 수입국 통화표시 가격이 변하는 것이 환율의 수입물가 전가 현상이다. 관련 연구를 보면 김용복·곽법준(2009), 조정규(2012) 등은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도를 분석하였고, 최창규(2000), 강상모·왕윤종(2004), 온기운(2015) 등은 수입가격에 대한 환율전가도를 분석하였다.

6) 김익식(2003), 조동철(2004), 김용복·곽법준(2008), 홍성욱·이상호·강두용(2015) 등의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율 하락이 수출물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수출입의 GDP대비 비중,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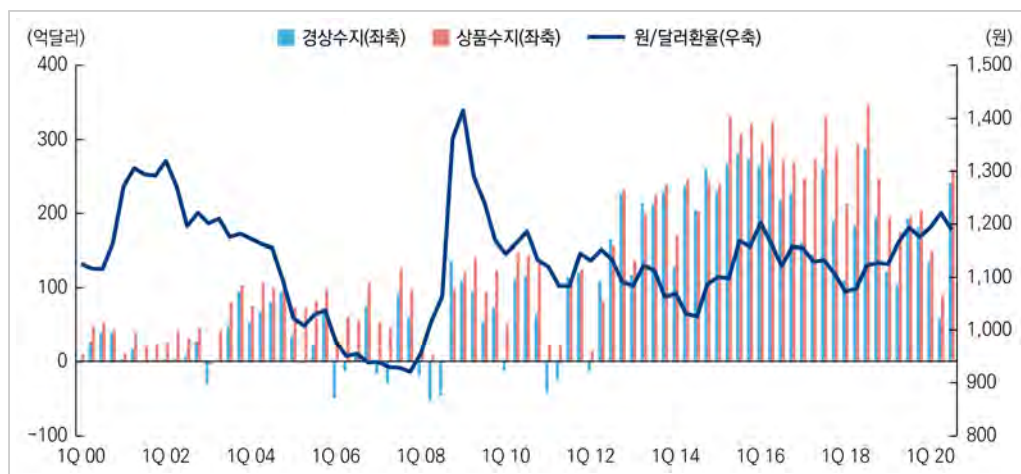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전체적으로 환율변동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입 변동을 통한 경상수지 변화, 소비재가격 변동을 통해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소득효과, 자본재가격 변동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발효과 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

- 예를 들어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소비재 및 자본재가격 하락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전체적으로 실질GDP에 미치는 성장률 하락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
- 주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효과는 줄어들고 물가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

[그림 6]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7) 홍성욱·이상호·강두용(2015)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제조업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율변화와 기업 채산성의 관계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실물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axter and Stockman(1989), Flood and Rose(1995) 등의 기존 연구는 브레튼 우즈 체제 전후 환율변동성의 유의미한 변화에도 실물변수의 변동성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환율 변동성과 실물경제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분석
 - Clark and et. al(2004)는 주요국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환율 변동성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
- 반면, Leby-Yeyati, Ecurado and Sturzenegger(2003)는 환율변동이 경직적인 신흥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더디고 경기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
 - 이상호(2005)는 환율불확실성 확대가 수출입물량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형석(2014)은 환율변동성을 고려한 VAR모형을 통해 환율변동성 충격이 가계의 예비적 저축 증가와 기업의 투자 지연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3. 원/달러 환율하락 및 환율변동성 확대가 실물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수출입, 투자, 민간소비, 실질GDP, 실질환율, 환율변동성 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환율하락과 환율변동성 확대가 실물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⁸⁾

- 외생성이 강한 환율 수준이 변화하거나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차를 두고 수출입물가 변동을 통해 교역조건의 변화를 가져와 수출입, 투자, 민간소비, 실질GDP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VAR모형을 추정 후,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환율 하락과 환율변동성 확대가 여타 실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8) 황종률, “원/달러 환율변동이 실물경제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2018)에서 추정된 기본 모형을 토대로 환율변동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확장하여 분석

〈BOX2〉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한 환율의 경제적 영향 추정

- 벡터자기회귀(Vectorautoregression; VAR) 모형은 경제 시계열변수간의 동태적인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와 특정한 외부충격이 각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 6개 시계열 변수로 이루어진 2개의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각각의 모형에서 실질환율과 환율변동성이 수출입, 설비투자, 민간소비,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추정

$$Y_t = c + \phi_1 Y_{t-1} + \dots + \phi_4 Y_{t-4} + \epsilon_t$$

- 위에서 Y_t 는 로그값을 취한 5변수(원/달러 실질환율, 수출 혹은 수입, 설비투자, 민간소비, 실질GDP)의 차분과 월간 원/달러 명목환율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조건부 이분산(GARCH(1,1))의 월평균으로 구성된 6변수 벡터이며, ϵ_t 는 오차항임
- 실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미간 소비자물가를 고려한 계산한 실질환율을 이용하였고, 수출입을 구분하여 6개변수로 이루어진 두 개의 VAR(4) 모형을 각각 추정
- 6개 변수는 실질환율, 환율변동성, 수출입, 설비투자, 민간소비, 실질GDP 순으로 배열되어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시차를 두고 수출입, 투자, 소비, 마지막으로 실질GDP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함
- 변수간의 장기균형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수준변수간의 공적분관계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분석기간은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인 2000년1/4~2020년 3/4분기임

가. 실질환율 하락의 영향

실질환율의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재화 가격의 하락을 통해 단기적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설비투자는 단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다 감소 전환되어 8분기 이후에는 환율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설비투자는 3분기 동안 증가하다 감소 전환되어 누적적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
- 민간소비는 4분기 정도 증가하다 이후 감소 전환되어 7분기 이후 환율효과가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추정됨

- 원/달러 실질환율의 1% 하락은 민간소비를 0.4% 내외 증가시키고, 누적적으로 0.08%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수입물량은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5분기 이후에는 감소 전환되어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물량은 증가하다 5분기 이후에는 감소 전환되어 9분기 이후에는 환율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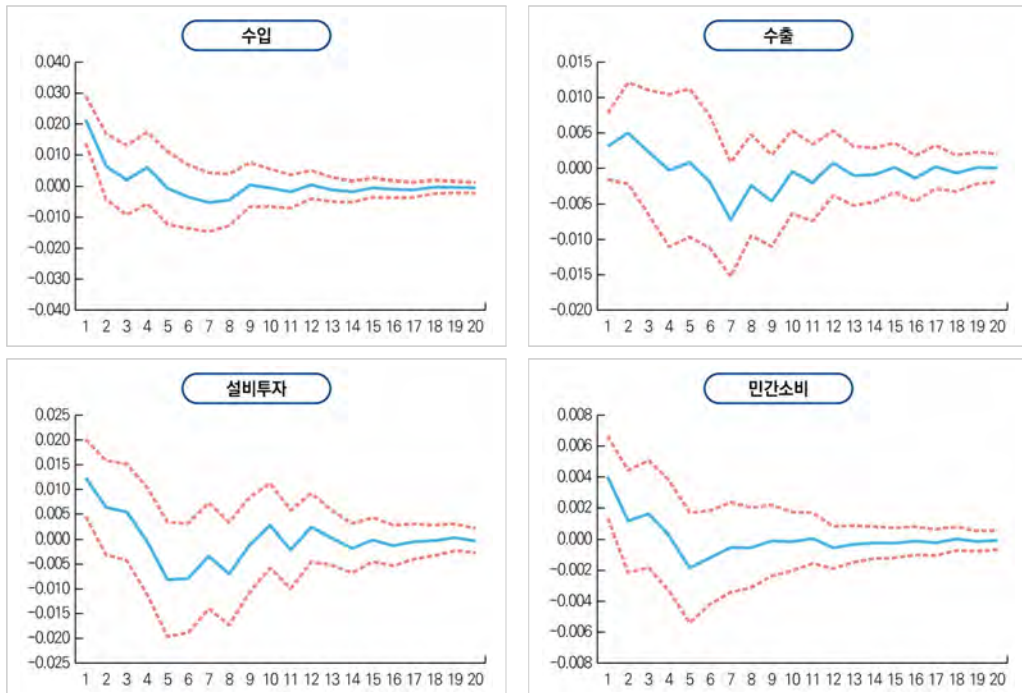
- 누적적으로 수입물량은 증가하고 수출물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GDP는 단기적으로 설비투자과 민간소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3분기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되어 7분기 이후에는 환율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추정됨

- 원/달러 실질환율 하락은 단기적으로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4분기까지 실질GDP를 증가시키지만,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실질환율의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재화 가격의 하락을 통해 단기적으로 설비투자과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7] 원/달러 실질환율 하락이 주요 실물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 주: 1) 그래프의 적색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2) 환율이 표준오차만큼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임
 3) 수출에 대한 그래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입물량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내수(민간소비, 투자) 부문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효과(기업의 비용효과)가 비교적 커서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 선행 연구(윤경수·이종현·엄상민(2012))에서도 환율하락이 수입재가격 하락에 따른 동일 금액 원 화지출의 실질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소비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반대로 환율상승은 수입재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
- 즉 국산과 수입산 간 대체탄력성이 낮아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제품 가격 상승이 국산으로의 대체로 이어지지 못함

수출입물량은 장기적으로 환율요인보다는 세계경제성장률, 대외교역량 등 해외실물 경기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수출입물량증감률을 교역조건변화율과 세계교역량증감률로 회귀 분석한 결과 수출입 모두 세계교역량 변동과 교역조건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⁹⁾

- 세계교역량증가율이 1%p 증가하면 수출은 0.76%p, 수입은 0.83%p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p 상승하면 수출은 0.29%p, 수입은 0.37%p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원/달러 환율 변동이 수출입 가격 변동을 통해 수출입물량에 미치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김용복·곽법준(2009))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환율전가도)하여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격탄력성)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¹⁰⁾

나. 환율변동성 확대의 영향

환율변동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9) 세계교역량은 CPB에서 발표하는 세계상품교역량 지수, 교역조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순상품교역지수를 이용하여 2000. 1/4~2020. 3/4분기까지 기간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임

10) 김용복·곽법준(2009)은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도는 외환위기 이전 0.66에서 외환위기 이후 0.46으로 감소하고,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도 동기간 -0.74에서 -0.45로 크게 약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환율의 수입가격 전가도는 외환위기 이전 0.13에서 외환위기 이후 0.87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물량의 가격탄력성은 동기간 -0.84에서 -0.24로 절대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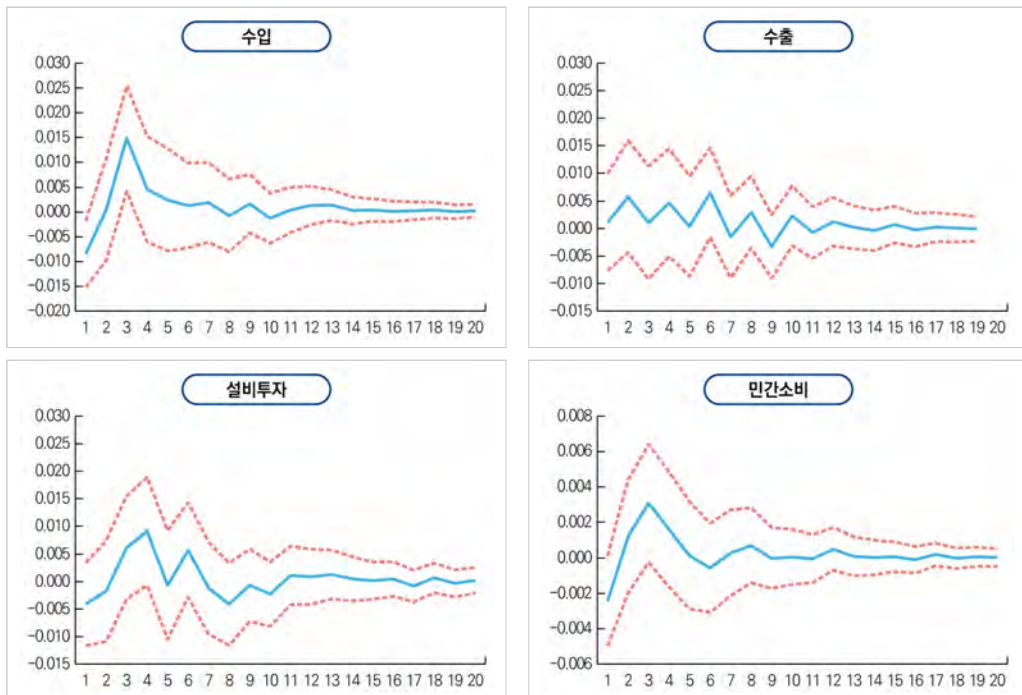
-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입물량이 감소하지만 2~3분기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효과가 빠르게 소멸되며 통계적 유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추정됨

- 환율의 변동성을 GARCH(1,1)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조건부이분산으로 정의하는 대신 일별 환율변동의 월별 표준편차로 대체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추정 결과를 보임

- 관련 선행연구의 추정 결과도 환율변동성의 정의 및 모형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환율변동성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지 않는 모형이므로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시적인 환율변동성 확대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환율변동성 확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¹¹⁾

[그림 8] 환율변동성 확대가 주요 실물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주: 1) 그래프의 적색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2) 환율변동성이 표준오차만큼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임
 3) 수출에 대한 그래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입물량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김용·김현수,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2012)

4. 요약 및 시사점

원/달러 환율은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계 공급망 훼손과 신용 경색 우려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며 10% 이상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3월에는 1,300원대에 근접하며 급등하였으나 빠르게 진정되며 12월 들어 1,100원대를 하회
 - 미연준의 무제한 자산매입과 신용공급 실시, 대규모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통화공급 확대 등으로 미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하락
- 원화의 주요 통화대비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BIS기준)은 2021년 1월 현재 각각 113.5와 117.1로 2010년(100)에 비해 10%이상 고평가
 -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은 과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주요 통화대비로는 지난 2010년 대비 10%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환율의 변동성은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11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원/달러 환율 변동은 교역조건 및 실질구매력 변동을 통해 수출입과 설비투자, 민간 소비 등에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실질환율의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재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수입물량이 수출물량보다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반응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출입물량 모두 환율요인 보다는 세계경제성장률, 대외교역량 등 해외실물경기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일시적인 환율변동성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지속적인 변동성 확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

원/달러 환율하락의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분쟁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¹²⁾
- 미연준의 정책금리가 당분간 제로금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환율안정화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및 다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노믹스(Bide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달러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장기적인 환율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부문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관리를 통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12) 홍성욱·이상호·강두용(2015)은 환율이 1% 하락(상승)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내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0.05% 하락(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2월호 | 통권 제14호

발행일	2021년 2월 2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 이슈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